

칼라판/소년소녀 위인전기 7

장 보 고

글 구 석 봉
그림 이 우 범





삼국통일의 명장
1 김 유 신



인류의 스승
2 그리스도



신라의 고승
3 원 효 대 사



항해 탐험가
4 콜 롬 부 스



고매한 문장가
9 최 치 원



근대 교육의 창시자
10 페 스타 로 지



고려의 시조
11 왕 건



천재 음악가
12 모 짜 르 트



한국의 발명왕
17 장 영 실



가곡의 왕
18 슈 베 르 트



조선 중기의 학자
19 이 황



동화의 아버지
20 안 데 르 센



《동의보감》을 쓴
25 허 준



아프리카의 탐험가
26 리 빙 스 턴



북학파의 영수
27 박 지 원



농민을 그린 화가
28 밀 레



서역을 도발한
5고 선 지



자연 과학의 아버지
6갈릴레이



해상 무역의 왕
7장 보 고



근대 과학의 건원자
8뉴 우 턴



목화씨문 들여 온
13문 익 점



유업을 정복한
14나폴레옹



위대한 임금
15세종대왕



악성
16베에토벤



여성의 귀감
21신사임당



노에 해방의 대통령
22링 컨



왜적을 무찌른 성웅
23이 순 신



전하문의 창시자
24다 아 윈



천재 화가
29김 홍 도



민주주의의 시인
30취 트 먼



실학의 거두
31정 약 용



백의의 천사
32나이팅게일

칼라판/소년소녀 위인전기 7

장 보 고

글 구 석 봉
그림 이 우 범



금성출판사



머 리 말

예로부터 나라 사정이 어지러우면 도둑의 무라가
성하고 외적의 침입이 잦은 법입니다.

신라에서도 백제와 고구려를 정벌한 뒤에는 국민
들의 생활이 차차 윤택해지면서 일보다는 놀기를 즐
겼고, 더우기 상류층의 지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일을 위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향락에 빠져들
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는 바다를 무
대로 삼아 갓은 노략질을 일삼는 해적과 왜구의 무



리들이 나타나서 선량한 우리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또 당나라와의 무역에도 지장이 많았습니다.

이 무렵, 당나라 군대에서 소장 벼슬을 지내고 있
던 장 보고는 이와 같이 어지러운 나라 사정을 듣고
는, 해적과 왜구를 무찔러 선량한 백성들을 구하겠
다는 생각으로 신라에 돌아와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
다.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 정의의 칼을 높이 뽑아
든 것이지요.

바다의 왕자 장 보고의 애국심에 불타는 정의감을
본받아, 우리도 나라를 아끼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나 기승을 부리던 해적들이 장 보고가
청해진 대사로 부임한 뒤부터는 한 척도 나타나
지 않았습니다.

(본문 76 페이지에서)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나 기승을 부리던 해적들이 장 보고가
청해진 대사로 부임한 뒤부터는 한 척도 나타나
지 않았습니다.

(본문 76 페이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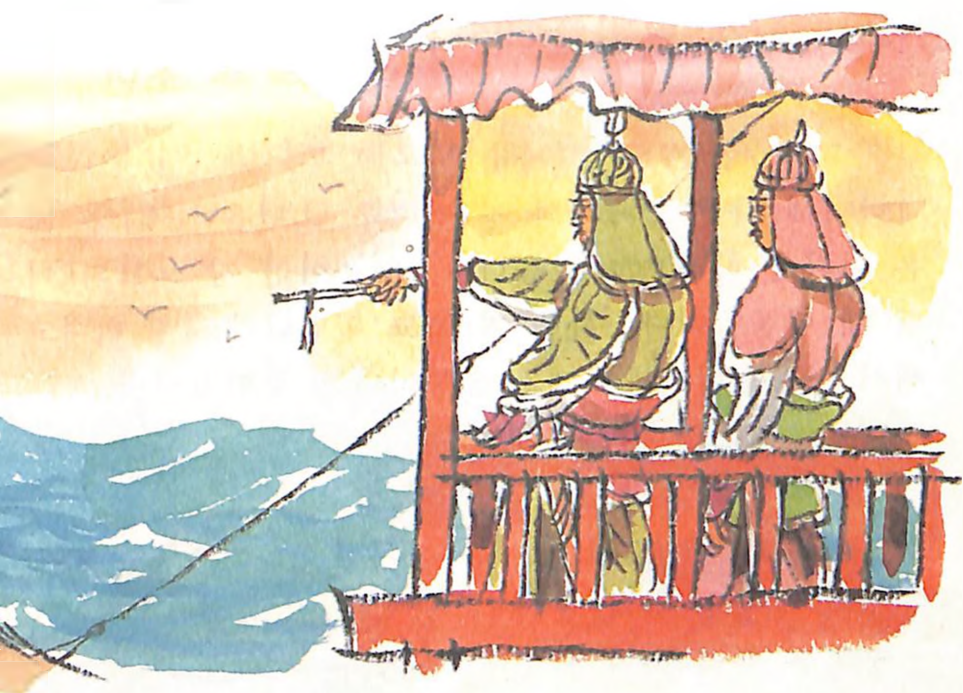






차 례

머리말.....	2
헤엄치는 두 소년.....	8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중국으로.....	22
무령군 소장.....	43
노예로 팔려 온 신라 소년들.....	52
청해진 대사.....	63
바다의 왕자.....	82



치열한 왕권 다툼.....91

돌아온 친구.....102

서라벌의 비극.....121

진해 장군 장 보고.....136

아, 이 억울한 최후.....144

해 설.....154

연 표.....158

■ 역사 인물 사전.....161



헤엄치는 두 소년

바다에 나온 궁복이와 정 연, 두 소년은 끝없이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섰습니다. 궁복이란 장 보고의 어릴 때 이름입니다. 활을 잘 쏘고 말달리기도 잘 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장 보고를 궁복이라고 불렀답니다.

“연이야!”

“응?”

“우리 오늘도 저기 보이는 까치섬
까지 헤엄쳐 갔다 올까?”

궁복은 멀리 바다 가운데
밤송이만하게 솟아
있는 까치섬을
가리킵니다.



“까치섬이 여기서 몇 리나 되는지 알아, 형?”

연이는 궁북이보다 두어 살 아래여서 언제나 궁북이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까치섬이 멀다고 해도 이십 리밖에 더 될라고?”

“아니래 형.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까치섬은 여기서 이십 오 리나 된대.”

“뭐, 그렇게 멀지도 았구나.”





“씨이, 이십 오 리면
왔다 갔다 오십 리인
데, 형은 한 번도 쉬
지 않고 오십 리를
헤엄칠 수 있어?”

“글쎄, 헤엄칠 수 있
는지 없는지는 해
봐야 알 게 아니야.”

궁복은 연이와 함께
날마다 칼쓰기, 창던지
기, 말달리기를 연습하
면서도 헤엄치기를 게
을리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헤엄치기에는
언제나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 궁복이 어머
니가 바닷가에 서 있

는 두 소년을 보고 그들을 향해
백사장을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읍니다.

“궁복아, 궁복아!”

급하게 달려오는 풍수로 보아 집안에 무슨 일이 있
나 봅니다.

“형, 형네 어머니가 달려오고 계셔.”

“나도 봤어. 내가 날마다 집안일은 하지 않고 무술

연습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집 안에 붙들어 얹혀 놓고 일을 시키실 생각인가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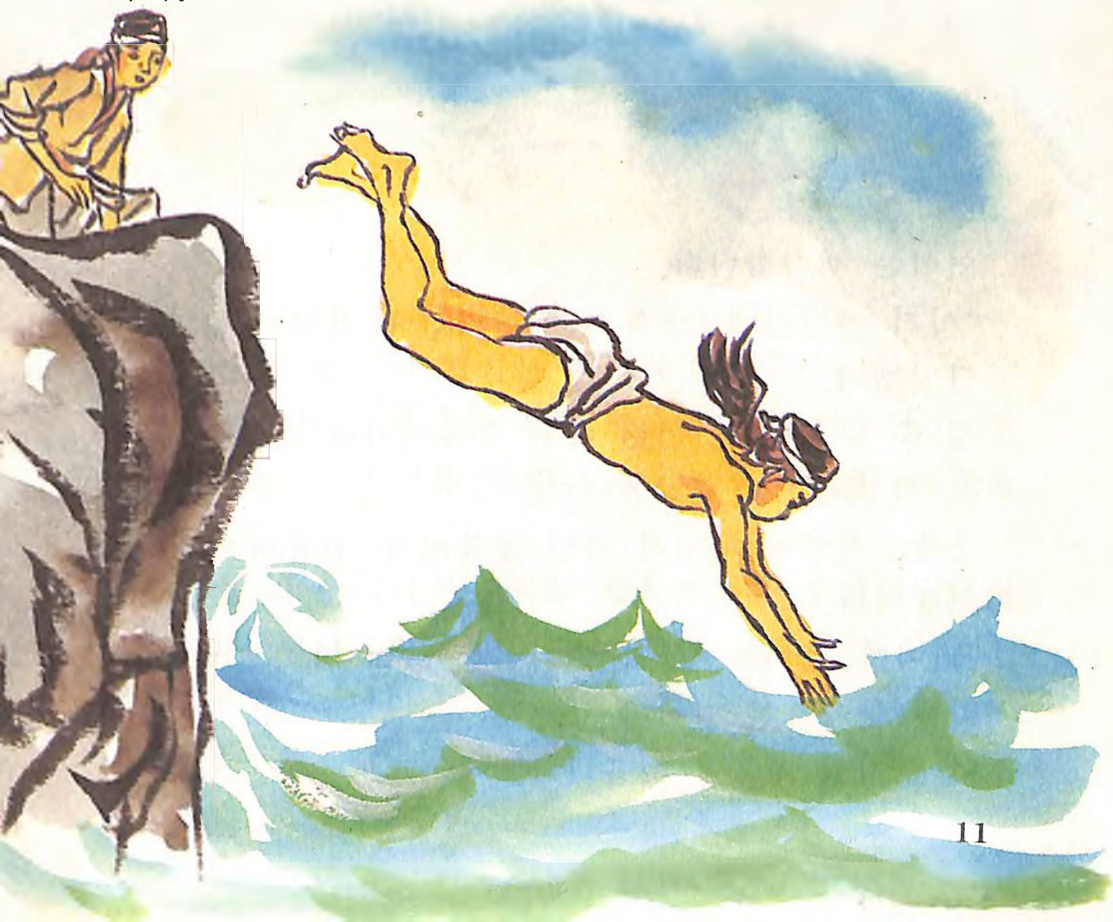
“그럼 어찌지?”

“어찌긴 뭘 어찌? 바다로 뛰어드는 거지.”

연이가 무어라고 말할 짬도 주지 않고, 궁복은 풍덩 하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궁복아, 나 좀 보고 가거라. 궁복아!”

거의 백사장까지 달려온 궁복이 어머니가 바닷속으로 뛰어든 궁복이를 향해 손을 저어 대면서 불렀지만,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힘차게 헤엄을 계속해 갑니다.





연이는 생각합니다.

‘이거 야단났네. 궁복이 어머니한테 잡히면 나만 야단맞겠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는 궁복이하고 행동을 같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문득, 저만치 헤엄쳐 가던 궁복이가 뒤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연이야, 임마! 뭘 하는 거야? 빨리 까치섬까지 한바퀴 돌아오잔 말이야…….”

더 주저할 겨를이 없습니다.



“알았어, 형…….”

연이도 풍덩 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닷물이 발끝에 채이는 백사장 끝까지 달려나온 궁복이 어머니는, 저만치 바다 한가운데로 자꾸자꾸 멀어져 가는 두 소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발길을 돌립니다.

‘별 도리 없다니까. 매일 쌍둥이처럼 붙어다니면서 저 짓들이니, 저것들이 커서 대체 무엇이 될라누.’

“푸우푸, 신난다 신나.”

“푸푸푸우, 신나고말고.”

계속 헤엄을 쳐 나가면서 궁북이와 연이는 입으로 바닷물을 뱉어 내며 지껄여 댔습니다.

“연이야!”

“응? 푸푸.”

“왜, 바닷물이 자꾸 입 안으로 들어가니?”

“파도가 이렇게 심하게 치니까 짝물이 자꾸자꾸 입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헤엄쳐 갈까?”

“잠수질을 치면서 가자 이거지?”

“크래, 우리 잠수질 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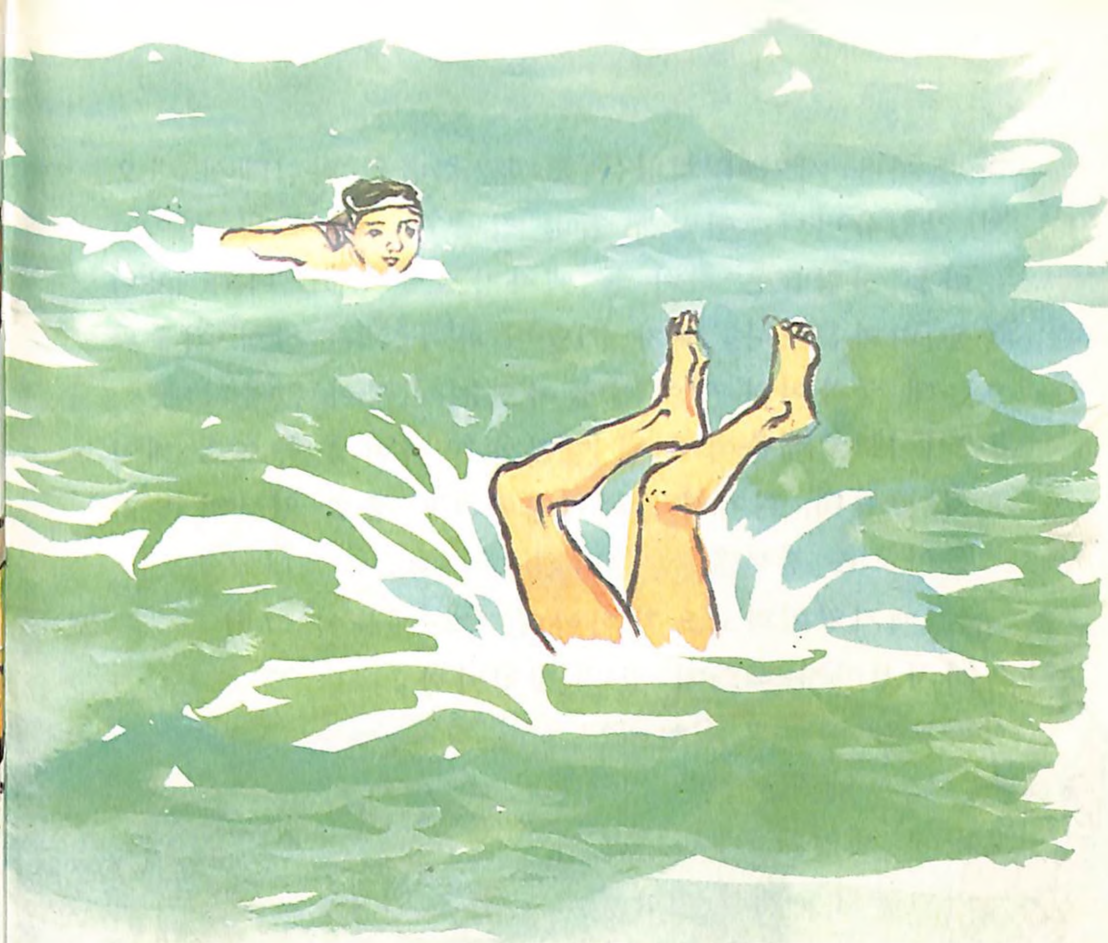
“좋아, 물개처럼 신나게 헤엄쳐 가는 거다.”

“물개처럼 신나게? 헤헤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고 물개로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을 거야, 하하하…….”

“하하하……, 그렇게 말야.”

하나, 둘, 셋 하는 구령에 맞추어 두 소년은 그야말로 물개처럼 바닷속으로 쭉욱 들어갔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신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물 속에서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로 먼저 가려고 다투면서 까치섬 쪽을 향해 힘을 내었지요. 그렇게 얼마 동안 잠수질을 쳐서 가다 까치섬 쪽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을 때에는, 바다 위로 쭈욱 솟구쳐서 까치섬 쪽을 확인하고는 도로 물 속으로 들어가 잠수질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궁복이와 연이가 까치섬 쪽으로 헤엄쳐 나간 뒤 마을에서는 큰 야단이 났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벌

써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두 소년은 바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정말 큰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백사장으로 몰려 나와 바다 쪽을 바라봅니다. 해가 기울어 바다 위는 점점 어두워오는데 궁복이와 연이는 돌아오는 기척이 없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어쩐 일일까? 까치섬 쪽으로 헤엄쳐 갔는데, 거기서 갈매기알이라도 줍고 있느라고 안 돌아오는 걸까?”

“갈매기알이라고요? 아아니, 그 애들이 그럼 까치섬까지 헤엄쳐 갔단 말입니까?”

과도가 이렇게 심한데?”

“여느 날엔 십여 리씩 밖에 헤엄쳐 가지 않던 아이들이 여기서 이십 오리나 되는 까치섬까지 어떻게 헤엄쳐 간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 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궁복이와 연이 어머니는 자기네 아들이 물 속에 잠겨 죽기라도 한 것처럼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그렇게나 말렸는데 바다에만 뛰어들더니 이게 무슨 변이란 말이냐? 아이고, 궁북아!”

“언이야! 이 못난 자식아! 어디를 가서 안 돌아오는 게냐? 이 미련한 자식아!”

마을이 온통 궁북이와 연이 걱정으로 침울해 있는데, 누가 바다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크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연이다! 연이가 돌아오고 있어욧!”

“연이가? 어디 어디?”

사람들은 우르르 바다 쪽으로 달려갔읍니다. 과연 물에 함빡 젖은 연이가 바닷물 속에서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연아! 호으호으...”

제일 먼저 연이 어머니가 달려가서 아들을 꼭 끌어안고 울어 댔읍니다. 그러자 궁복이 어머니는 더 슬퍼졌읍니다.

“우리 궁복이는 어디 다 버려 두고 너 혼자 왔느냐, 영? 우리 궁복이는 어디 있어?”

“네? 궁복이 형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연이는 자기들 두 사람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바다로 몰려 나온 일에 놀랐고, 무엇보다 궁복이가 돌아와 있지 않은데 또 한 번 놀랐읍니다.

“어떻게 된 거냐? 궁복이하고 너하고 함께 헤엄쳐가지 않았니?”

궁복이 어머니가 연이를 붙들고 물었읍니다.

“예, 함께 갔어요. 헤엄을 치기도 하고 물 속에서 잠





수도 하면서 까치섬까지는 함께 땀났는데요.”

“그래서?”

“까치섬에서 되돌아올 때는 누가 먼저 마을에 돌아가나 시합하자고 해서 죽어라 하고 헤엄쳐 왔는데……. 전 궁복이 형이 먼저 돌아와 있는 줄 알았어요.”

연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궁복이 어머니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우리 궁복이는 틀림없이 죽었구나, 죽었어! 아이고
호호호…….”

하고, 모래를 움켜쥐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마을 아낙네
들이 달려고 위로해도 소용 없는 일이었어요.

그 때였습니다.

“저기 궁복이가 온다!”

누군가 찢어지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궁복이가 와? 어디, 어디?”

“궁복아아, 궁복아아.”

궁복이 어머니를 앞세
운 마을 사람들이 우르
르 궁복이한테로 달려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들린 사람처럼 떠들어
댔습니다.

“이놈아, 살아 왔구나,
살아 왔어!”

“장하다, 장해! 저 까
치섬을 돌아왔으니 너
희들은 자그마치 오십
리를 헤엄친 녀석들이
야, 오십 리……!”

“궁복이, 연이, 만세에!”

흥분한 청년 하나가
느닷없이 만세를 부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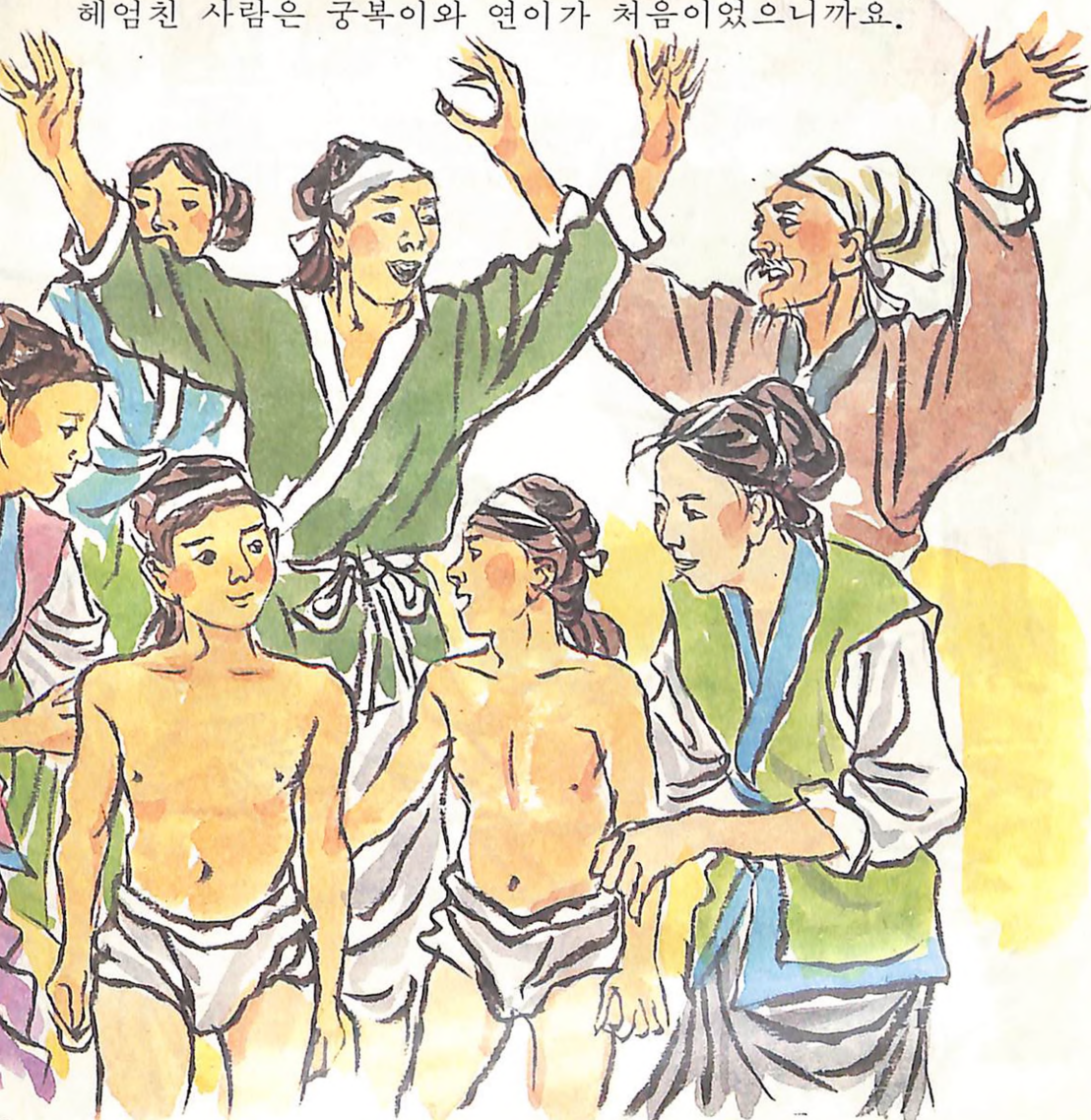
마을 사람들도 들떠서 만세를 따라 불렀습니다.

“만세!”

“물개들 만세!”

“하하하……, 물개들 만세!”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나서 계속 만세를 불러 댔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을 다 절끔거렸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십 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서 헤엄친 사람은 궁복이와 연이가 처음이었으니까요.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중국으로

바다가 보이는 갯마을에서 태어났고, 갯마을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잔뼈가 굵어진 궁복이, 홀어머니 밑에서 외톨로 자라난 궁복이, 그에게 꿈이 있다면 신라에서 가장 높은, 바다의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장군, 바다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 궁복이는 단짝 친구 연이와 함께 매일같이 활쏘기, 창던지기, 말달리기, 헤엄치기, 잠수질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도 연이와 함께 창던지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안방에서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궁복아, 이제 돌아오느냐?”

“예.”

“잠깐 내 방으로 건너오너라.”

“예, 어머니.”

창던지기를 하느라고 온몸에 뒤집어쓴 먼지를 씻을 새도 없이 궁복이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어머니!”

“응, 거기 좀 앉거라.”

다른 때보다 의연한 어머니 모습을 잠시 눈여겨보다가, 궁복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방바닥에 꿇어앉았습니다.



“편히 앉아라. 널 꾸짖으려고 불러들인 건 아니니까.”

“예.”

꿇어앉은 무릎을 풀고 편하게 앉자, 어머니는 아들 쪽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중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궁북이는 은근히 마음이 죄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매일같이 말타기, 창쓰기, 헤엄치기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장차 무엇이 되려고 그런 무술 공부를 하느냐?”

‘그걸 몰라서 물으시다니, 뜻밖인데요!’



하고 궁복이는 마음 속
으로 생각했지만, 어머니
가 물으시는 데는 잠자
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 장차 군대에 들어
가서 장군이 되고 싶
습니다, 어머니.”

“장군?”

어머니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조용히 되
뇌었습니다.

“장군이 되기가 그렇
게 쉬운 줄 아느냐?”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어머니?”

“실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되는 세상이 아
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너는 뱃사람의 자식이란 걸 잊은 게로구나.”

“뱃사람의 자식은 군인도 못 됩니까?”

궁복이는 어머니에게 대들 듯 자신 있는 말로 되풀이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잘 지켜 보세요. 아버지는 뱃사람이
었고,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셨다
가 돌아가신 어른이시지만, 저는 정말이지 아버지처

럼 뱃사람이 되어서 고기를 잡다가 죽지는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머니는 궁복의 결심어린 말을 듣고 여전히 딱하다는 얼굴을 지우려들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은 그런 얼굴로 궁복이를 마주 보던 어머니는 이윽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궁복아!”

“예, 어머니.”

“넌 이 신라 땅을 어서 떠나가거라.”

“예? 절더러 이 신라 땅을
떠나라고요? 그러면,
전 신라의 장군이
못 되지 않습
니까?”



“신라에 눌러 있어 가지고 장군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니라.”

모를 말씀입니다. 신라 사람이 신라의 장군이 될 수 없다니, 그런 거짓말도 다 있습니까?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장군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온 궁복이에게 어머니의 말씀은 기를 죽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절더러 왜 이 신라 땅을 떠나라 하시는지 불효 막심한 이 궁복이는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궁복아…….”

“예, 어머니. 답답합니다. 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깊이 내쉬셨습니다.

“너는 잘 모르는 일이다만, 이 신라 땅에는 신분의 차이가 너무 많으니라.”

“신분의 차이라니요, 어머니?”

“뱃사람은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졌어도 큰 벼슬을 할 수 없단 말이다.”

“뭐여요, 어머니? 뱃사람은 출세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니까. 아무리 좋은 머리, 좋은 무술을 가지고 있어도 신분이 낮은 뱃사람들은 높은 벼슬을 할 수 없는 게 이 나라의 법이니라.”

‘별 이상스런 법도 다 있네요.’

하고 생각한 궁복은, 무슨 말을 하려다 껍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머리 속을 스쳐 갔습니다. 곰곰히 생각하니 가슴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사람 차별을 하는 이런 나라에 왜 내가 눌러 있어? 내 재주, 내 무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면 그 나라에선 나를 장군으로 받들어 모실 텐데…….’

궁복이는 주먹을 그러쥐었습니다.

‘좋다. 내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배운 무술을 써 먹고 말 테다. 연이하고 먼 나라로 가서 한번 출세해 볼 테다.’

그 후 며칠 뒤, 궁복

이는 연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 날은 마침 당나라

장삿배가 포구에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여비를 타 가지고 중국으로 떠나는 궁복이의 마음은, 늙은 어머니 한 분만 마을에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이 걸렸을 뿐 개운했습니다.

‘두고 보아라. 내 언제고 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테다.’

배가 포구를 떠나자 연이는 얼굴을 찡그리고 울먹이는 것 같습니다.

“연이야, 너 울고 있니?”

“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와.”

“눈물이 나오면 참지 말고 실컷 울어, 임마!”

그렇게 말하는 궁복이의 눈에도 이슬이 맺힙니다.

“저어기 저 언덕 좀 봐. 누가 서 있는 것 같잖아?”





연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두 사람이 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연이야, 너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봐.”

두 소년은 새삼스럽게 그리움이 솟아올라 소리 높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배는 포구를 뒤로 하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선 궁복이와 연이는 막막했습니다.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들을 돌봐 줄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낮선 거리, 낯선 사람들을 수없이 지나쳐서 두 소년이 닿은 곳은 쉬조우(徐州)라는 곳입니다.

때마침, 한 때의 중국(당나라) 군인들이 길거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야산에 얹드려 혼련 중이었고, 거리에는 많은 중국 상인들이 달구지에 짐을 싣고 바쁘게 오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장이 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차를 끌고 가던 중국 장삿군 한 사람이 갑자기 그 곳에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삿군은 다짜고짜로 궁복이와 연이에게 다가와서 멍살을 휘어잡는 것이었습니다.

“어, 어, 왜 그래요? 이 손 봐요!”

영문도 모르고, 두 소년은 건장한 장삿군에 잡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들! 네놈들은 신라에서 왔지? 그렇지?”

중국 장삿군은 목에 핏줄을 세우고 몰아세웠습니다.



겹이 난 연이가

“그레요. 우린 신라 소년들이어요.”

하고 싣토를 했읍니다.

“하하하……, 그러면 그렇지, 내 눈은 못 속인다니
까. 내가 아까부터 네 두 놈을 유심히 살피봤느니라.
갈 데 없는 신라 놈들인데, 이 쉬조우 거리에 와서 어
정거린단 말이야, 가자!”

중국 장삿군은 거칠게 두 소년을 끌어당겼읍니다.

“우릴 어디로 데리고 갈 참이어요?”

궁복이가 불만스러운 말투로 물었읍니다.

“어디로 가진 어디로 가! 중국
땅에 왔으니까 중국
사람 심부름이나 하면
서 밥술이나 얻어먹
고 지내면 되는 거 아
냐?”

“싫어요, 싫어!”

“가자, 이놈들!”

“싫어요!”

가자커니 싫다커니 중
국 장삿군과 두 소년은
실랑이를 벌였읍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나
가다간 별 수 없이 저
자한테 끌려가겠어.’





궁복이는
마음 속으로
결심하였습니다.

‘좋아! 신라에서 익혀
두었던 무술을 이럴 때 써 먹자.’

중국 장삿군이 궁복이의 먹살을 좀 늦추는 듯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궁복이는 잽싸게 몸을 빼어 놈의 두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는 불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와 함께
장삿군의 몸뚱이는 허공을 두어 번 맴돌다가는 저만치
길바닥에 거꾸로 내리꽂히고 말았습니다. 실로 눈깜
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켜 서서 구경하던 중국 장삿군들 입에서 일제히,
“와아!”

하는 탄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건장한 중국인 장삿군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비실비실 일어나 몸을 툭툭 털면서 중국 장삿군은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섰습니다. 험악한 그의 얼굴은 달아올랐습니다.

“오 패썽한 놈들! 내가 누구라고 함부로 덤벼! 내 이레 보여도 왕년에 씨름 선수로 황소를 다섯 마리나 탄 사람이다, 알겠냐?”

두 소년과 장삿군이 마주 버티고 섰습니다. 싸움이 불 만해질 것 같으니까 길 가던 사람과 야산에서 훈련을 받던 군인들도 모두 쭈그리고 앉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놈, 어디 덤벼 보라!”

장삿군은 어느 틈에 마차 위에 있는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이 쪽은 맨손인데 저 쪽은 단단한 몽둥이를 쥐고 박살을 낼 것처럼 덤벼듭니다. 그렇지만 미리 기가 죽을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먹이나 잔피로써 저 우둔한 중국인 장삿군을 때려누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였습니다. 길 옆 야산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군인 한 사람이 지게 작대기만한 참나무 몽둥이를 던져 주는 것이었습니다.

“야! 꼬마 장수, 이걸 가지고 싸워 보시게.”

궁복이는 군인이 던져 준 참나무 몽둥이를 오른손에 쥐었습니다. 연이도 궁복이가 몽둥이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멀찍이 떨어져서, 여차 하면 달려들 태세로 장삿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에잇!”

하고, 먼저 장삿군 쪽에서 고함을 치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얼씨구!”

하는 비웃음 소리가 구경군들 속에서 튀어 나왔습니다. 나이 어린 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덩치 큰 사람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이 우습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른과 소년의 싸움은 이윽고 불이 붙었습니다. 장삿군이 궁복이를 치려고 덤벼들면, 궁복이는 새털처럼 가볍게 몸을 날려 장삿군의 허리를 뚫다 공격합니다.

“어이쿠 !”

하는 부르짖음에 이어서 또,

“아구구구 !”

하는 신음 소리가 연거푸 장삿군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궁복이의 참나무 몽둥이를 맞은 장삿군이 아픔을 이기느라고 찢찢 매는 사이를 이용해서 연이의 몸이 쏜살같이 날아가 놈의 머리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구, 아구구구 !”

장삿군의 입에서는 연방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궁복이와 연이는 쓰러져 움쭉달싹도 못 하는 놈을 번쩍 들어서 길가 논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놈은 머리가 논바닥에 내리꽂혀, 두 다리가 하늘로 향한 채 버둥거립니다. 그 꼴이 어찌나 우스웠던지 구경꾼들은

“하하하…….”

“히히히히, 꼴 좋구나.”

하고 유쾌하게 웃어 댔습니다.

싸움이 소년들의 승리로 끝난 것을 보고, 길가 야산에서 군인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잘 싸웠어. 무예도 놀랍더구나. 그런데, 신라에서 왔는지 ?”

“예.”

두 소년은 주먹으로 이마에 솟은 땀을 훔쳐 내며 대답했습니다. 대장인 듯한 그 군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들 우리 군대에 들어오지 않겠나?”

“군대에 들어오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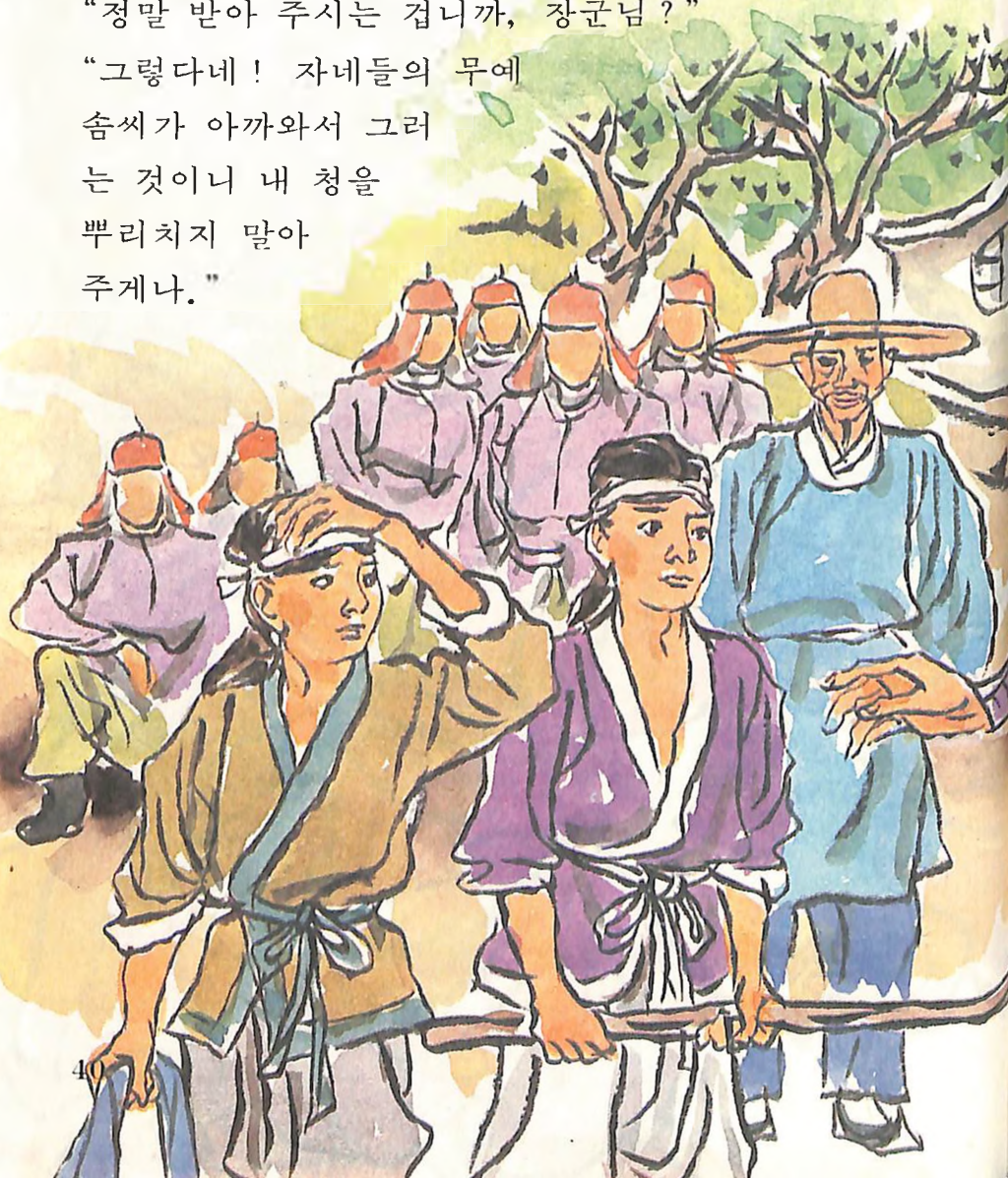
궁복이와 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동경하던 군대였던가!’

“음, 난 이 무령군(武寧軍)의 책임자다. 자네들이 원한다면 오늘부터 우리 무령군에 들어와도 좋다.”

“정말 받아 주시는 겁니까, 장군님?”

“그렇다네! 자네들의 무에
숨씨가 아까워서 그러
는 것이니 내 청을
뿌리치지 말아
주게나.”



“신라 사람도 중국 무령군의 군인이 될 수 있나요?”

“아암! 신라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우리가 필요한 건 무예에 능한 젊은이를 뽑아서 강한 군대를 만드는 일이니까.”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무령군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고맙네. 자네 이름은 뭔가?”

“장 궁복(張弓福)이에요.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탄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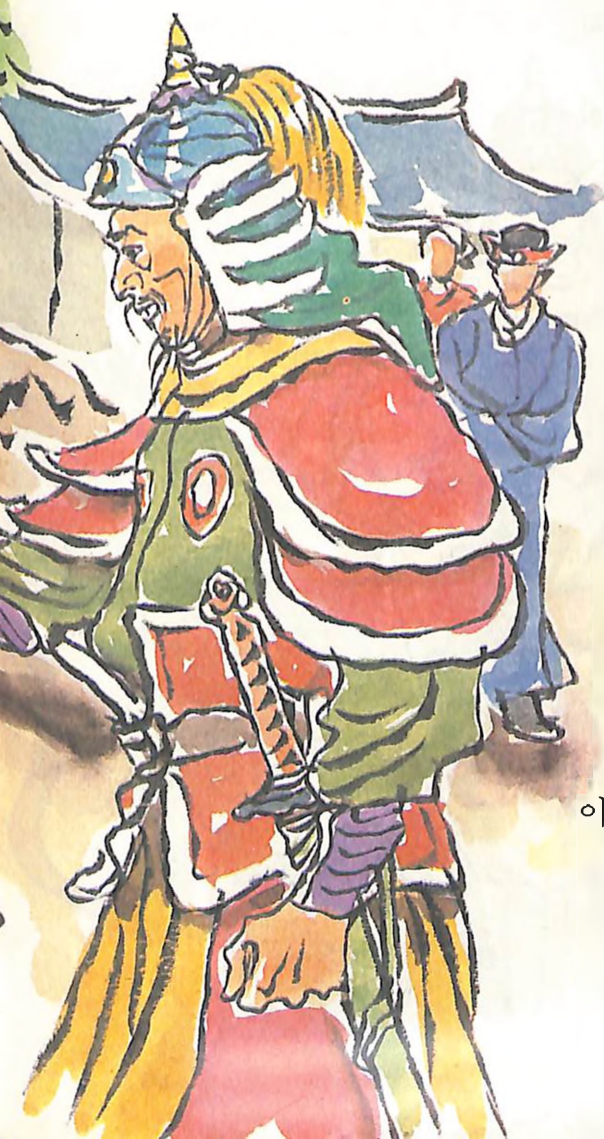
“음, 궁복이라……. 활을 잘 쏘고 말 잘 타는 사람을 중국에서는 보고(保皐)라고 부르니까, 오늘부터는 장 보고(張保皐)로 고쳐 보게.”

“예, 장군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이름은?”
이번에는 연이 쪽을 돌아보고 물었습니다.

“정 연(鄭年)이에요.”

“음, 그 이름은 그대로 뒀도 괜찮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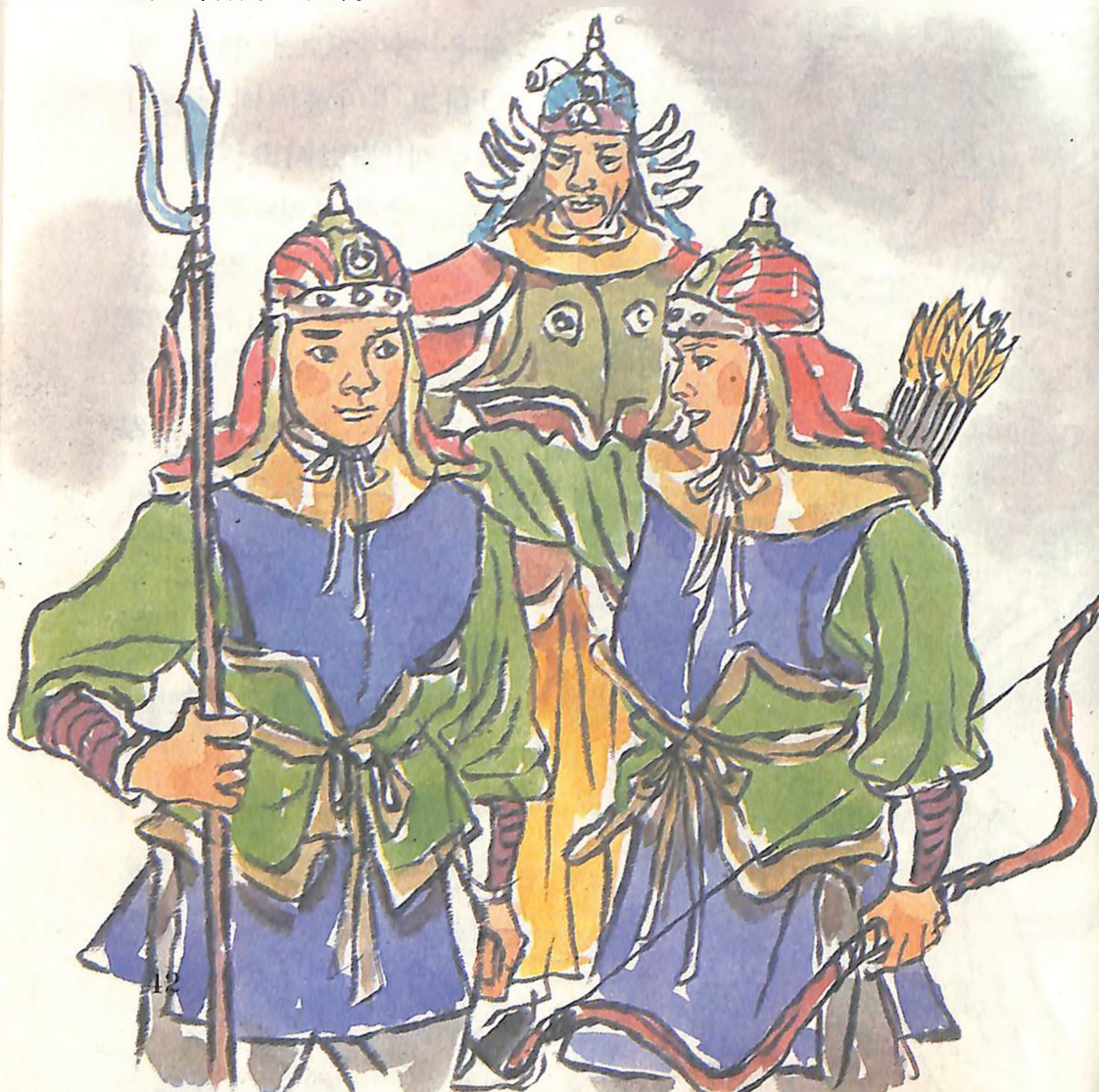
무령군의 장군은 군사들 쪽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봐!”

“예, 장군님.”

“이 두 신병에게도 무령군의 창과 활을 가져다 주도록 해라!”

“예, 알았습니다. 장군님!”

그 날부터 당장 두 소년은 무령군의 신병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령군 소장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령군이 주둔하고 있는 쉬조우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평조우(登州)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평조우에는 신라에서 장사하러 들어온 배들이 자주 출입을 하고, 또 신라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마을도 따로 있었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은 이 신라 마을을 신라방(新羅坊)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장 보고와 정 연이가 쉬조우의 무령군에 입대한 지 몇 해가 지나서, 이 신라 마을에는 참으로 놀라운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란,

“그 참 이상한 소문도 다 있지?”

장사를 하러 쉬조우에 다녀온 신라 사람이, 마을에 오자마자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듣고 왔길래 그래?”

궁금한 신라 마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아, 글썄, 내가 쉬조우의 어느 객줏집에서 하룻밤 쉬면서 들은 얘긴데 말일세.”

“아따, 답답하구면. 어서 말해 보게.”

신라 장삿군은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자네들 놀라지 말게.”

“어허 참, 뜸들이지 말고 냉큼 이야기를 꺼내 놓으라니까.”

“글쎄, 쉬조우 무령군 군대 안에 우리 신라 젊은이가 있다더군.”

“뭐야, 신라 젊은이가?”

“그래!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나 있는데, 군대 벼슬이 소장이라요, 소장!”

“무령군 소장!”

“암!”

“에끼 이 사람아, 그런 농담일랑 말게.”

듣고 있던 신라 사람들은 핀잔을 주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면 내 이 혀를 뽑겠네. 난 하도 반갑고 신기해서 무령군 소속 군인을 붙잡고 물어 보기까지 했다네.”

“그랬더니 그 군인이 뭐라던가? 정말로 신라





젊은이가 무령군 소장이
라고 일러 주던가?”

“아암! 이름이 장 보고
하고, 또 정 연이라는 젊
은이들이래.”

“장 보고?”

“정 연?”

그들이 모두 당나라 무
령군의 소장이라니, 그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아심으로,
듣고 있던 사람들의 궁금
증은 더욱더 풀리지 않았
습니다.

생각다 못 해 신라 마을
사람들은 대표를 뽑아 직
접 무령군 주둔지로 보내
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
다. 그리고, 만일에 장 보
고와 정 연, 두 소장이 신라
사람이라고만 확인된다면
평조우의 신라 마을 사람
들은 더 이상 기쁠 게 없
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라 출신의 소장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곳은 쉬조우의 무령군 막사.

평조우의 신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소리에 장 보고 소장은 일손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날 찾소?”

늙수그레한 신라 사람들은, 장 보고를 보자, 첫눈에 그가 신라 사람이란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어, 장 소장님은 신라에서 오신 분이รา면서요?”

“그렇소이다.”





“우리도
신라 사람들
입니다.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소장님!”

두 신라 사람은 장 보고의 손목이라도 덥석 잡을 듯
이 다가섰습니다.

반가운 것은 장 보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들도 신라에서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래, 어디 살고 계시오?”

“평조우 바닷가, 신라 마을에 살고 있지요.”

“평조우의 신라 마을이라니? 이 당나라에 신라 마
음이 있단 말이오?”

“그러문요. 신라의 장삿배가 당나라에 건너올 때마다 선원들이 묵어 가는 마을이기도 하고요. 아주 이곳에 살면서 장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가 보고 싶구료. 안내해주겠소?”

장 보고는 정 연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장 보고의 마차를 타고 신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날 밤, 신라 마을은 온통 잔치 기분이 되어 두 사

신라방의 위치



람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술과 맛있는 음식으로 장 보고와 정 연을 대접했고, 마을 사람들도 흥건히 마셨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누군가가

“신라인 만세!” 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신라인 만세!”

하고 따라 불렀읍니다. 이어서,

“장 보고 소장님 만세!”

“정 연 소장님 만세!”

하고 또, 만세를 부릅니다.

신라 마을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하고,

“장 보고 소장님 만세에!”

“정 연 소장님 만세에!”

하고 만세를 불러 댔읍니다.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읍니다



신라 마을을 뒤흔들던 흥분도 가시고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는 무령군 본부로 돌아갈 시각입니다. 그런데, 신라 마을의 촌장(村長)격인 노인이 두 소장의 곁으로 다가와서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군님,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장군님께서서는 무령군의 높으신
소장의 몸이시라, 군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르
고 계실 것
입니다.”



“예, 실제로 군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실 테죠. 당나라에 신라 마을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긴데…….”

장 보고는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정 연 소장도 노인 쪽으로 귀를 모았습니다.

“당나라에는 해적들의 소행으로 신라의 장정들이 많이 팔려 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장 보고와 정 연은 크게 놀랐습니다.

“해적들의 소행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나라 해적들이 우리 신라의 해안 지대에서 젊은 이들을 잡아다가, 이 나라 지주들한테 팔아먹고 있던 말씀이외다.”

“아아니,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음.”

장 보고의 입에서 신음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 당장 당나라의 황제께 말씀드려서 해적들의 그 같은 만행을 근절시키도록 하리다.”

“고맙소. 제발 그렇게 청을 드려 우리 불쌍한 신라 젊은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장 보고는 주먹을 그러쥐고 치를 떨었습니다.

‘괘씸한 놈들, 어디 두고 보자.’



노예로 팔려 온 신라 소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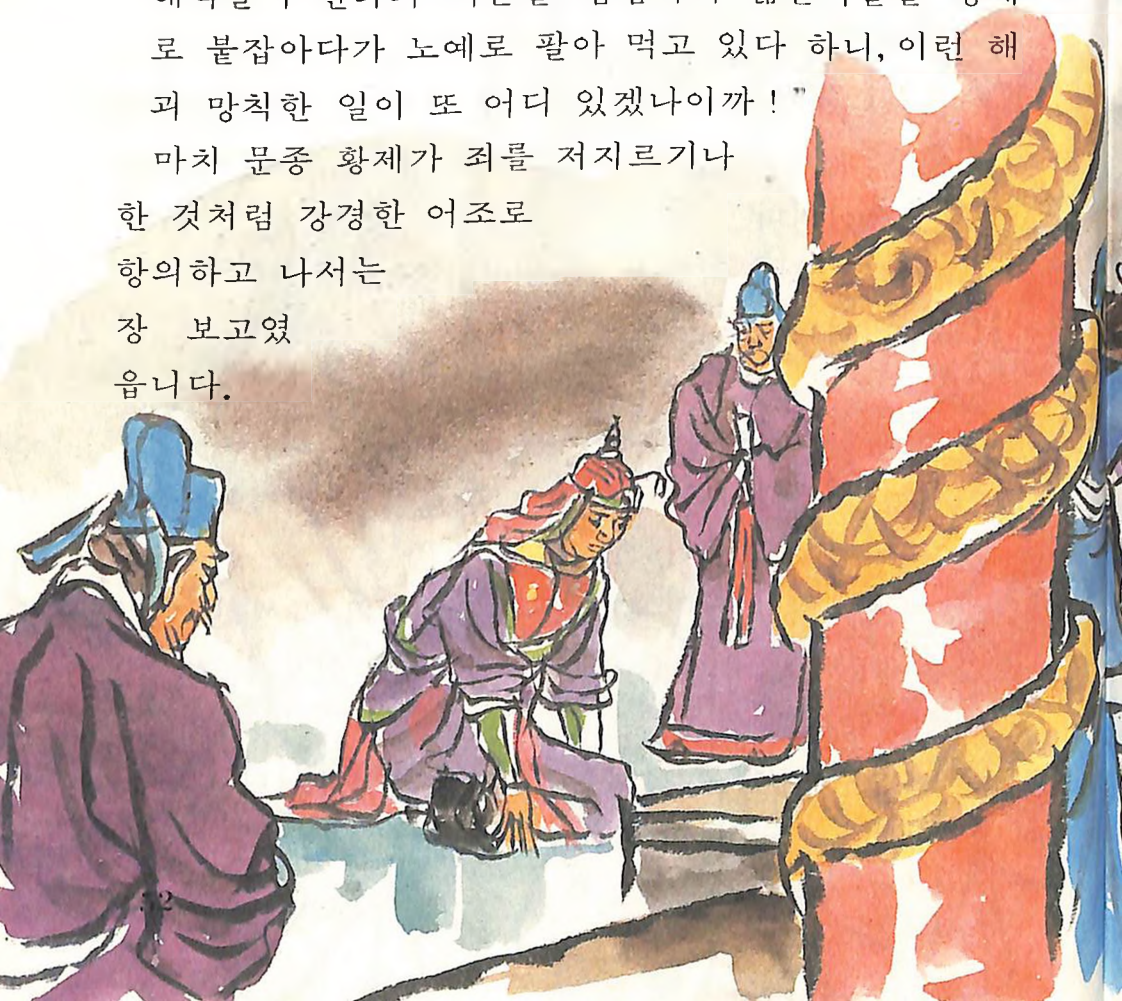
“황제 폐하께 아뢰옵나이다.”

당나라 문종(文宗) 황제 앞에 나아간 장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말을 꺼냈습니다.

“말하오, 장 소장.”

“다름이 아니옵고, 지금 당나라 곳곳에는 지각 없는 해적들이 신라의 어촌을 침범하여 젊은이들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먹고 있다 하니, 이런 해괴 망칙한 일이 또 어디 있겠나이까!”

마치 문종 황제가 죄를 저지르기나 한 것처럼 강경한 어조로
항의하고 나서는
장 보고였
습니다.



“이히, 짐은 금시 초분이구료. 내, 다른 길로 알아보
아 그런 일이 있을시면 즉각 이를 벌하고, 잡혀 온 신
라 젊은이들을 본국으로 돌려 보낼 터이니 장 소장은
돌아가 있구료.”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폐하!”

황제 앞을 물러나온 장 보고는 그 길로 정 연과 함
께 마차를 타고 평조우의 신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황제께서 당장 칙령(황제의 명령)을 내려서 해적의
무리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네.”





“쓸데없는 일일세. 보아하니 지금 우리 신라는 해안 경비가 엉망인 것 같네. 게다가 이 당나라도 망해 버리려고 그러는지, 도처에 도둑과 해적들이 들끓고 있네.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해적들이 쥐구멍으로 쭉쭉 들어가 버릴 것 같은가?”

정 연은 모처럼 그럴 듯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옳은 생각입니다. 지금 신라는, 당나라의 해적들과 왜구(일본의 해적)들이 바다를 어지럽히고, 민간인을 잡아 가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무력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 연의 말대로 지금 당나라 사정도 그야말로 쑥대밭 끝입니다. 언제나 나라가 멸망하고 말지 모를 판국입니다.

장 보고와 정 연이 탄 마차는 황금 물결로 뒤덮인 가을의 논둑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일꾼들이 벼를 베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달리는 마차 위에서 그들은 벼가 잘 익은 황금 들판을 바라보며

잠시 고국 신라의 들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앗, 저 녀석이!”

“왜 그러나, 연이?”

“저 녀석이 길거리에다 벼단을 한 짐 내버리고 도망치잖아?”

정 연이 가리키는 마차 앞길을 바라보니, 과연 길 한가운데 벼단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마차는 그 벼단 앞에서 멎었습니다.



노기가 등등한 정 연이·마차 위에서 뛰어내리며, 버
를 베고 있는 소년들 쪽으로 사납게 눈길을 돌렸습니
다. 여차 하면 말채찍으로 후려칠 태세입니다.

“장군님!”

소년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장 보고와 정 연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의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린 신라에서 잡혀 온 소년들입니다!”

“뭐라고?”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들어 보श्य요. 저흰 신라의 서남 해안
에서 대대로 고기잡이로 살아 온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왜 당나라에 와서 벼를 베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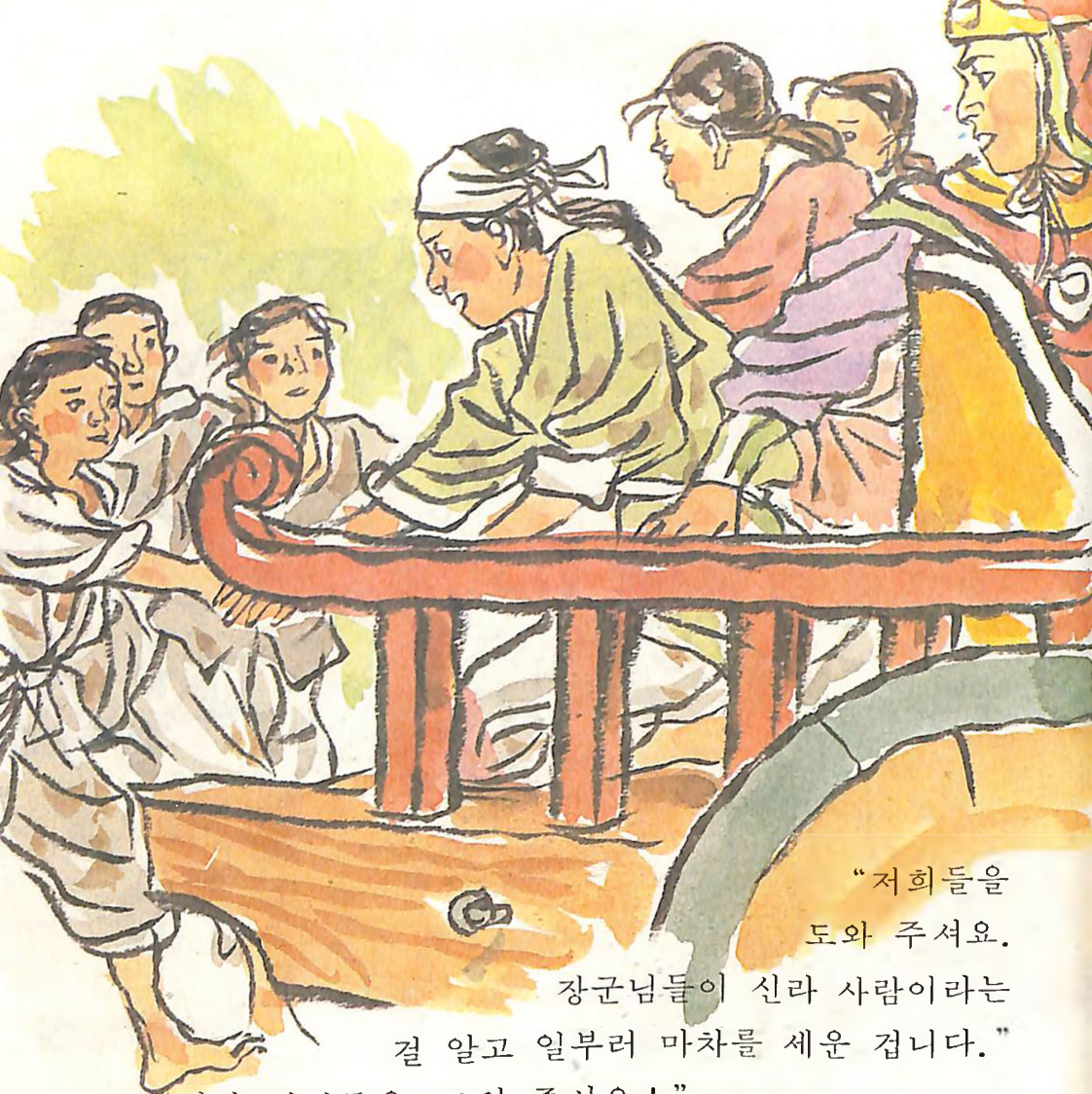
장 보고가 물어 보았습니다.

“지금 신라의 해안 지방은 도둑들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흰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당나라의 해적선한테
불잡혀서 이 곳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신분
은 노예입니다. 해적들이 저희들을 노예로 팔아먹은
겁니다.”

다른 한 소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श्य요.

장군님들이 신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마차를 세운 겁니다.”

“제발 저희들을 도와 주श्य요!”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주인은 어디 있느냐?”

“주인은 잠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서 구출해 주
श्य요.”

장 보고는 마차 뒤를 가리키며,

“어서 타라!”

하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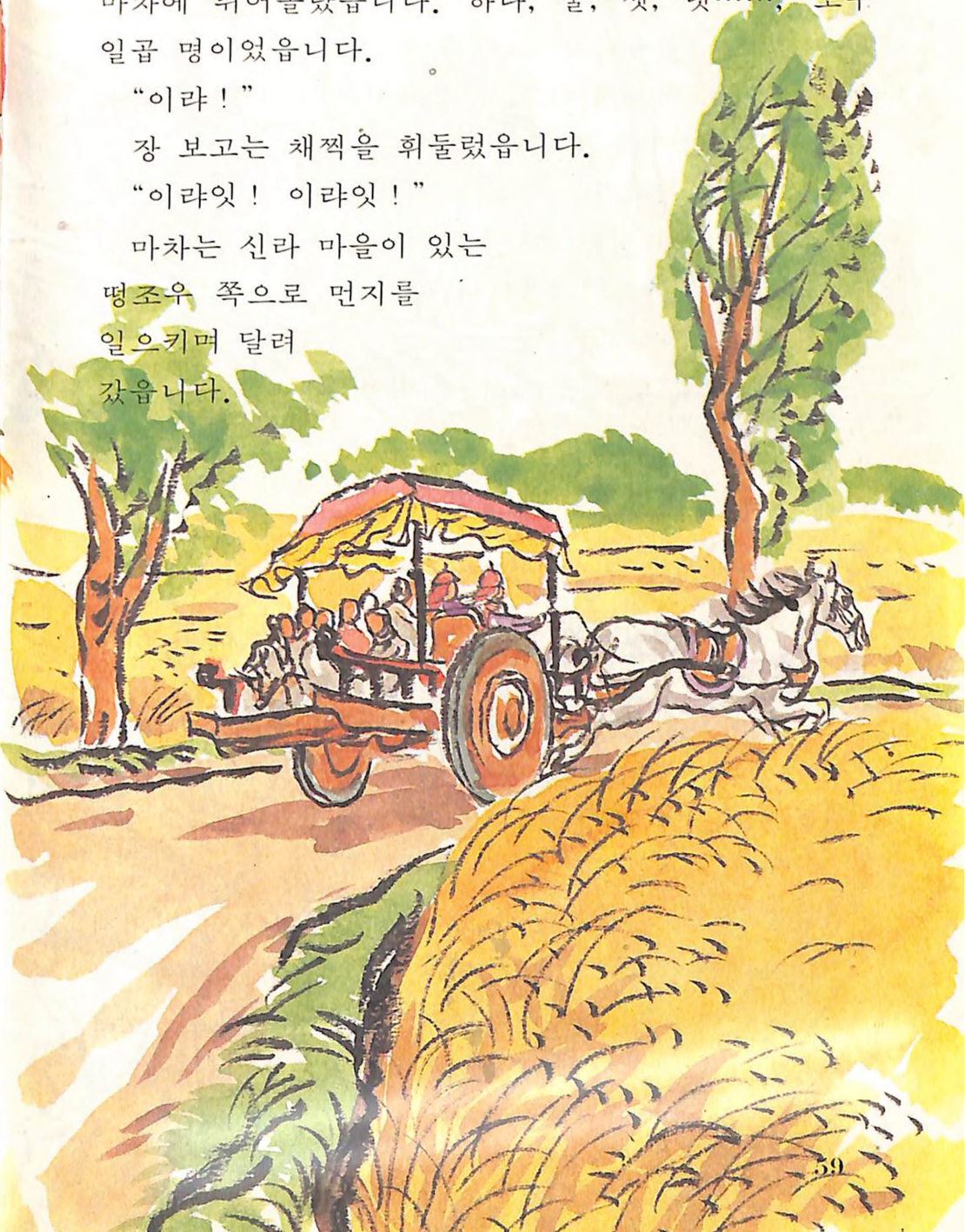
신라 소년들은 낫을 논바닥에 집어 던지고 허겁지겁
마차에 뛰어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일곱 명이었습니다.

“이라!”

장 보고는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이라잇! 이라잇!”

마차는 신라 마을이 있는
평조우 쪽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
갔습니다.



얼마 뒤에 장 보고의 마차가 신라 마을에 닿자,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장 보고, 정 연 두 소장을 환영하려고 몰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 보고는 마을 사람들을 멀찍이 물러서게 하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촌장격인 노인만을 불렀습니다.

장 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소문이 나면 신라 소년들한테 해로울 것 같아 노인장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 소년이라고요?”

노인의 눈이 번쩍 뜨이며, 사방을 한 바퀴 휩 둘러 보았습니다.

“노인장, 저 마차 안에는 신라 소년들이 타고 있습니다.”

“아,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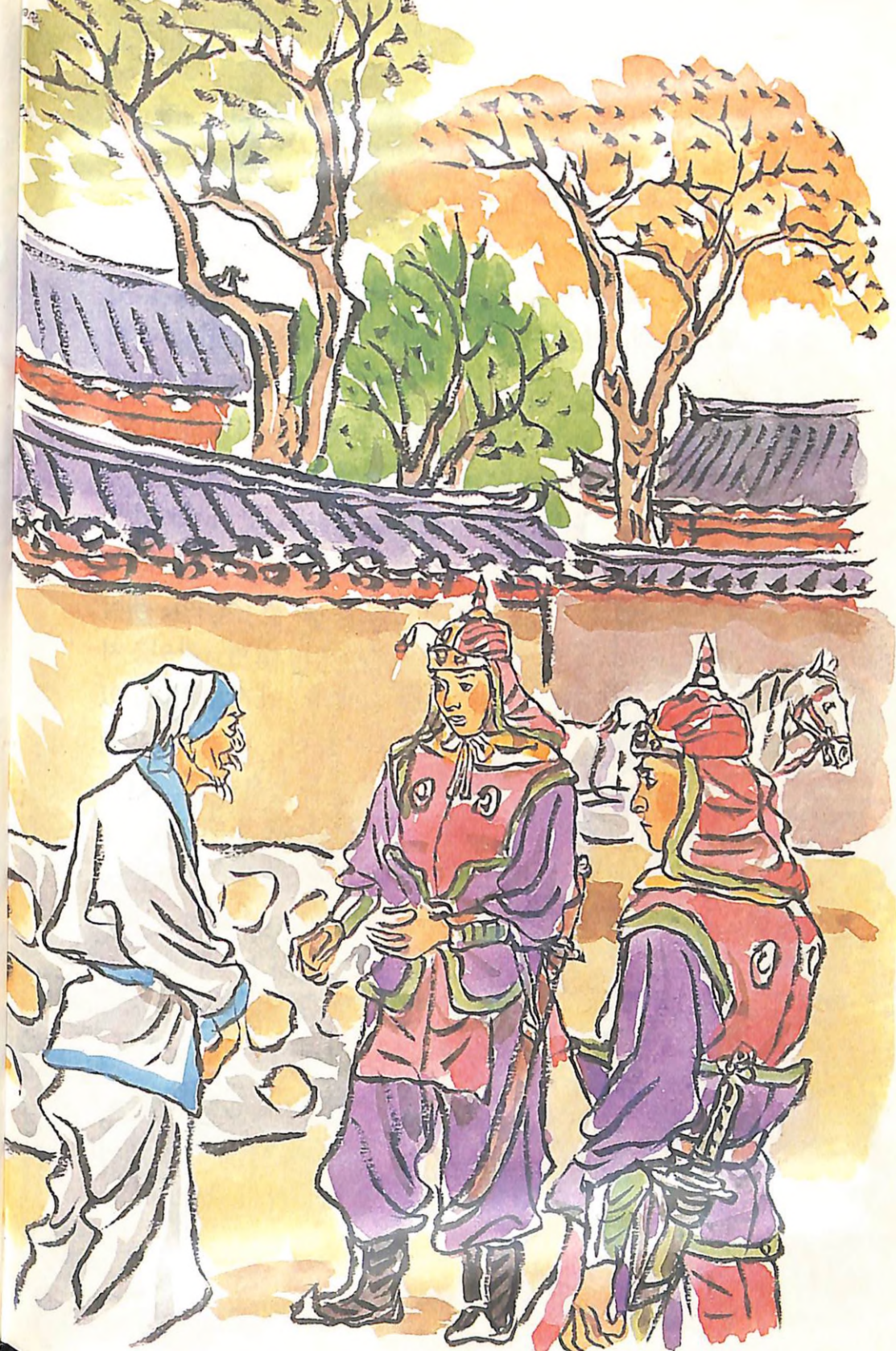
장 보고는 소년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경위를 설명하고,

“그러니 노인장, 이 소년들을 어디다 피신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소년들은 제게 맡기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칠 동안 신라 마을에 숨어 있게 하였다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적산(赤山) 법화원(法花院)이란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숨겨 두면 가장 안전하죠.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신라 장삿배가 평조우 항구에 도착하면 그 배로 귀국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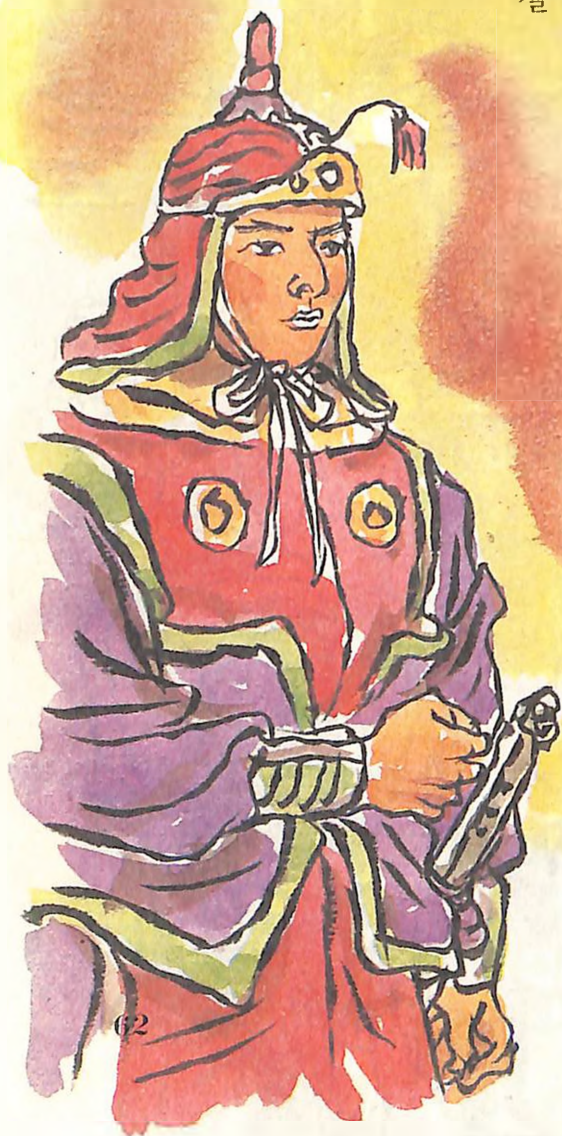
“좋은 생각이요. 그럼 노인장만 믿고, 우리는 갈 테니 알아서 잘 살피 주시오.”

“예, 예. 마음놓으시고 어서 쉬조우로 돌아가십시오, 장군님들!”

그 뒤로도 몇 번씩이나 노예로 팔려 온 신라의 소년들을 평조우의 적산 법화원에 숨겨 두었다가 신라의 장삿배에 태워 귀국시킨 장 보고는 차츰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여기 붙잡혀 온 신라 소년들을 구해 내 봤자 소용 없는 것이야. 해적들이 신라 해안 지방을 어지럽히고 있는 한, 내가 아무리 많은 신라 소년을 구출해 낸다 해도 소용 없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예 신라로 돌아가서 신라의 바다를 지키리라!’

마음이 결정되자, 그는 무령군의 최고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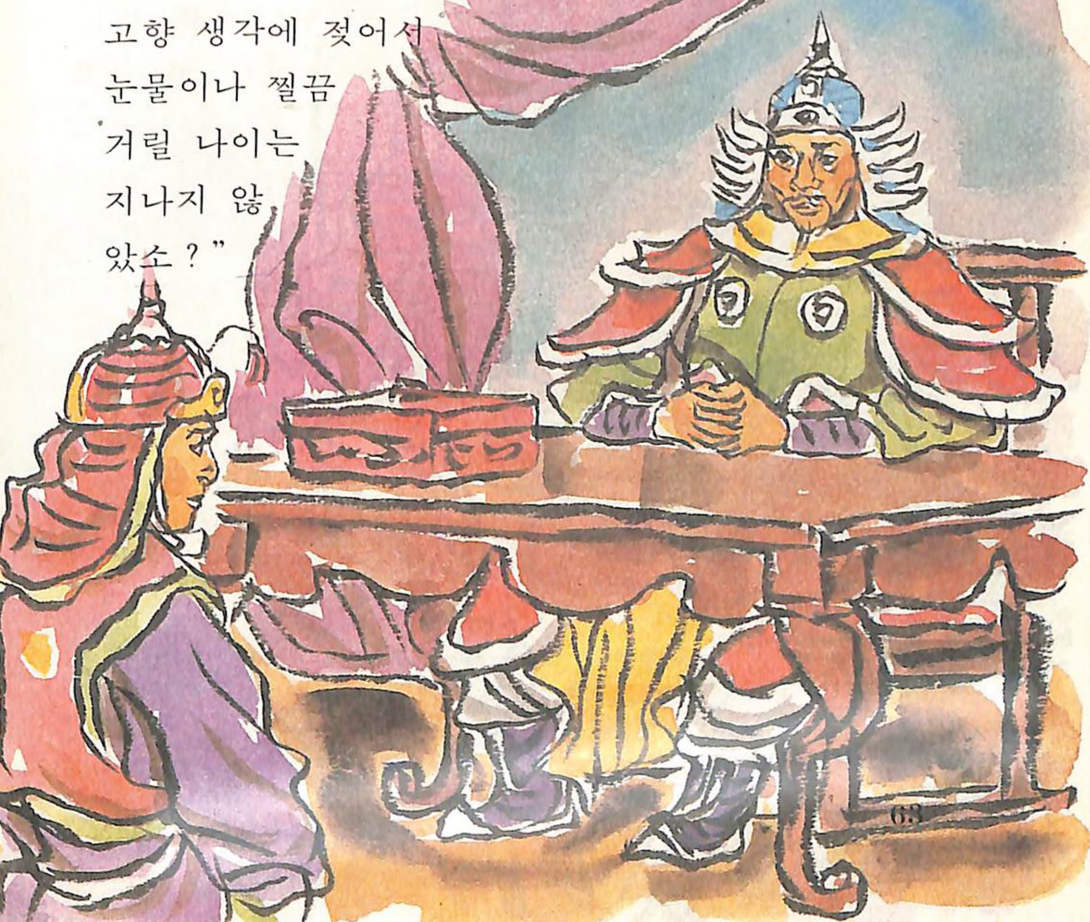


청해진 대사

“뭐라고? 장 소장이 신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난 무령군 사령관은 천만 뜻밖이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 보고 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대가 잠시 고향 생각이 나서 신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생각을 돌이켜 보구려. 장 소장은 이미 고향 생각에 젖어서 눈물이나 찢끔 거릴 나이는 지나지 않았소?”



“물론입니다. 하지만, 고향 생각을 버릴 수는 있어도 조국 신라의 젊은이들이 난폭한 해적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 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저를 신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음!”

무령군 사령관의 입에서는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조국을 위해 떠나겠다는 그대를 내 어찌 붙잡아 둘 수 있겠소. 부디 신라로 돌아가거든 그대 조국 신라를 위해 힘을 써 주시오.”

“고맙습니다, 장군!”



사령관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장 보
고는 그 길로 친구
정 연 소장을 찾아
갔습니다.

“자네, 눈치를 챘
겠지만 난 무령군
소장 벼슬을 내놓
고 신라로 돌아가
기로 했네.”

정 연은 얼굴을
돌린 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기 당나라로
건너온 지도 너무
나 오래 되어서 신
라 사정을 잘 알
수는 없네. 그러나, 나라 사정
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 내가 가서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바로잡아 볼까 하네.”

잠자코 듣고 있던 정 연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궁복이 형.”

“음?”

“난 형을 장 보고라 부르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불러
오던 궁복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다와.”



“말해 보게, 연이.”

“난 궁복이 형이 신라로 돌아가겠다는 걸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하지만 뭔가? 내가 간다는데 자네도 따라가 주지 않으려나?”

“난 안 가!”

정 연은 분명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안 가겠다는 이유가 뭔가?”

“우리 조국 신라는 지금 멍이 들어 있어. 위로는 전하(왕)와 문무 백관들이 백성은 돌보지 않고 호사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바른 태로 살려고 하는 의욕을 버리고 도박이나 도둑질만을 일삼고…….”

“연이!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나라를 바로잡자는 얘기가 아닌가? 같이 가세, 연이!”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난 안 가!”

“안 가겠다는 이유는 뭔가?”

장 보고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 연은 처음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조국 땅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건지 얘기나 해 보라니까.”

장 보고의 재촉을 받고 정 연은 입가에 씩쓰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생각해 봐요, 궁복이 형. 우린 신라에서 출세할 수

없는 몸이 아니었소?
신분이 낮은…… 뱃놈
의 자식이라서, 재주
가 있어도 그 재주
를 살릴 수 없는 세
상이라 당나라로 건
너온 게 아니란 말
이오. 천신 만고 끝에
당나라 장정들도 따
기 어려운 소장이란
높은 벼슬까지 따지
않았느냐 말이오.”

장 보고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
연의 말은 계속되었습
니다.

“형! 긴 말 할 것 없
소. 조국이 우리들을
버렸는데, 내가 조
국을 찾아가겠소?
조국 신라가 흥하건
망하건 난 모르오.”

실상 이렇게 되고
보면 긴 말이 필요 없
었습니다.





“알겠네, 연이. 자네
말에도 일리는 있어.
어느 때고 여기가
싫증나거든 신라로
돌아오게.”

“난 결코 죽을 때까지
안 돌아갈 거야.”

“그래 알았네. 그럼
부디 몸성히 잘 지
내게. 노예로 팔려 오
는 신라 소년들을 계
속 구해 주고.”

“.....”

정 연 소장은 그 부
탁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연을 두고 떠나
는 것이 마음에 걸리
기는 했으나, 장 보고는 예정

대로 당나라를 떠나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신라 흥덕왕(興德王) 3년(828), 장 보고는 무령군
소장이라는 높은 벼슬을 버리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신라의 하늘은 언제 보아도 맑고 푸르렀습니다.

서라벌(경주)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에 차
있었고, 생활도 윤택한 것 같았습니다.

장 보고는 곧장 국왕이 계시는 궁궐로 말을 달렸읍니다.

당나라에서 미리 신라 장삿배 편으로 연락을 하고 왔기 때문에 대궐 안에는 문무 백관들이 모두 나와 있었읍니다.

당나라에서 소장이라는 지위에까지 올랐었던 사람이 어전(임금 앞)에 나타나니, 둘러섰던 문무 백관들이 모두 장 보고를 주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장 보고는 먼저 귀국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지금 신라의 서남 해안에는 해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당나라 해적들이 선량한 어민을 붙잡아가 당나라의 노예로 팔아먹는가 하면, 왜구의 횡포가 날로 심해 가고 있나이다.”

“오, 과인은 금시 초문이오.”

흥덕왕의 용안에 경련이 이는 듯했습니다. 지켜 보셨던 문무 백관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었습니다.

“전하, 그러하오니 당나라의 해적과 왜구를 물리치려면 바다를 지키고 어촌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아옵니다. 청컨대 부족한 소신에게 바다를 지키는 일을 허락해 주소서.”



장 보고의 말은 오로지 바다를 안정시키려는 일념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무 백관들은 장 보고가 혹시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 때에, 시중(侍中) 벼슬에 있는 김 우징(金祐徵)이 선뜻 나섰습니다.

“당나라의 소장 벼슬을 버리고 고국 신라로 돌아온 장 보고에게 중책을 맡기심이 가한 줄로 아뢰오.”



“과인도 지금 그걸 생각중인데, 무슨 일을 어떻게 시켜야 좋을지 모르겠소!”

홍덕왕은 좌우 중신들을 돌아보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중신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중 김 우정이 또 거들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장 보고에게 청해(지금의 완도)를 맡기심이 좋을 듯하나이다.”

“청해에 가서 무엇을 한단 말ियो?”

“그 곳에다 새로이 진(사령부)을 설치하고 바다를 지키는 일이옵니다.”

“음.”

장 보고도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청해 땅은 오래 전부터 당나라와 일본의 장삿군들이 드나들었고, 지리적으로 볼 때도 우리 나라와 당나라, 일본 세 나라를 잇는 중요한 땅입니다. 이 곳에 진을 설치한 뒤 당나라의 해적과 왜구들을 소탕하고 수군(해군)을 길러 해안 지대를 경비하면, 우리 나라 어민들이 억울하게 잡혀 가는 일이 없어질 게 아니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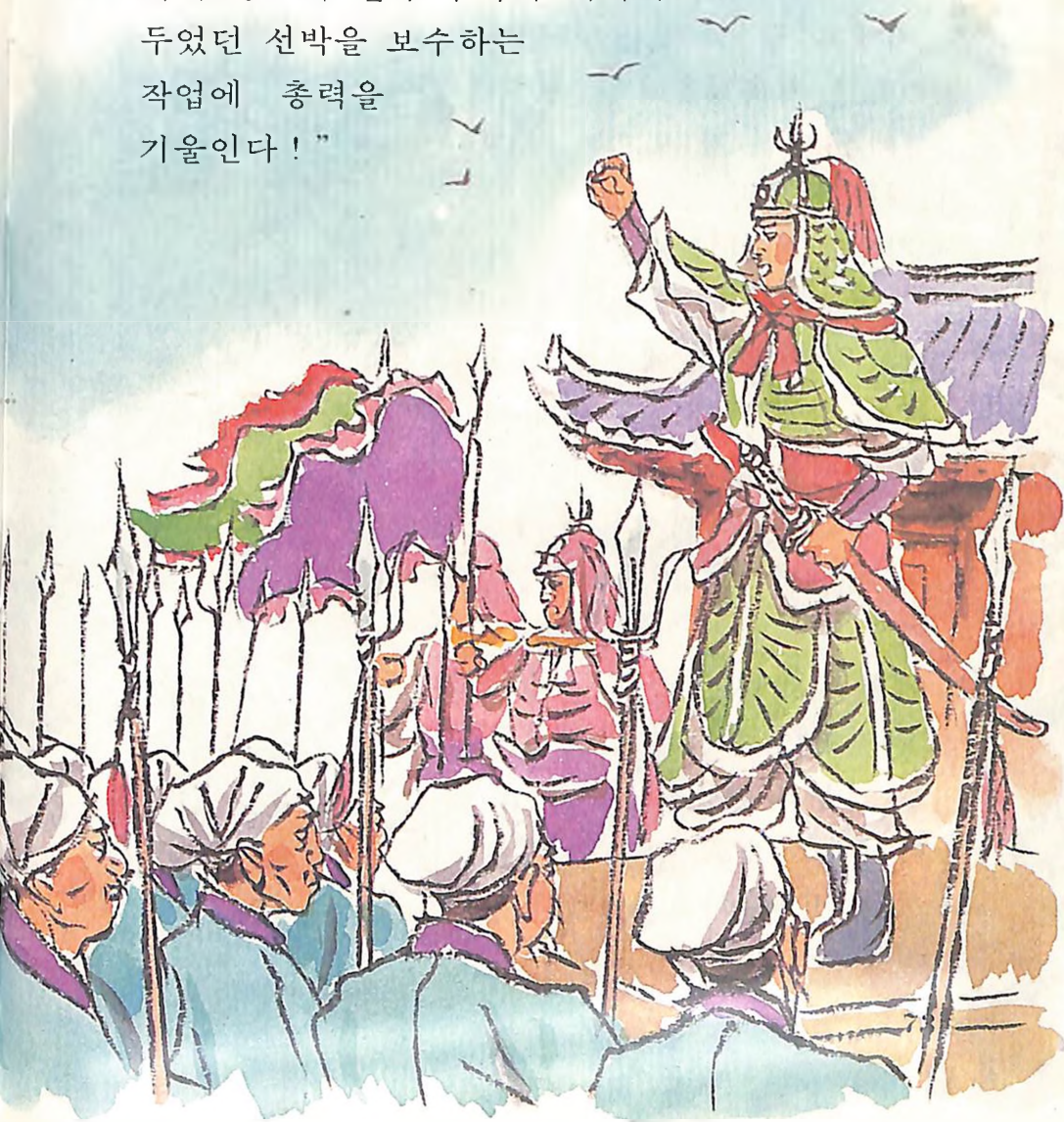
“음, 장 소장의 말이 그럴 듯하구면, 허허허. 내 그대를 청해진 대사로 명하고, 군사 1만 명을 줄 터이니 소임을 다 해 어지러운 바다를 평정시키도록 하기 바라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전하.”

어전을 물러나온 장 보고는 임금이 주신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곧장 청해로 떠났습니다.

청해의 가리포(加利浦)에 닿기가 바쁘게 청해진 대사 장 보고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청해진에 소속된 1만 명의 군사들은 남은 항구를 보수하고 산에는 성채를 쌓을 것이며, 지금까지 항구의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선박을 보수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청해진의 복구 공사가 완공
되면, 난 산 속에 처박아 둔
내 마누라를 데려와야겠어.”

“난 어머니를 모셔 와야지.”

군사들은 신이 났읍니다. 힘
든 일을 날마다 계속하고 있는
데도, 어디서 샘 솟는지 바위라
도 떠메고 갈 것 같은 기운이
불끈불끈 치솟았읍니다.

청해진 대사 장 보고는 또다
시 명령합니다.

“작업을 마친 군사들은 듣거
라! 우리에게 낫과 밤이 없
다. 오늘부터 낮에는 작업을
하고, 밤에는 무술 훈련과 해
양 훈련을 하기로 한다.”

“훈련 중에 해적선이 몰려오
면 어떻게 합니까, 대사님?”

겁에 질린 군사 하나가 장 보
고에게 물었읍니다.

“해적선이 침범해 오면 훈련
을 거두고 싸움을 하면 될 것
아닌가? 새로 지은 망루에
서 감시를 하고 있으니 염
려할 것 없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방에 햇불을 내걸고 쉬지 않고 훈련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나 기승을 부리던 해적들이 장 보고가 청해진 대사로 부임한 뒤부터는 한 척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 참 신기한 일이네.”

청해진의 어민들이나 군사들은 그게 이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상할 것 없네. 우리 장 대사님이 무서운 사람이란 걸 소문으로 듣고 얼씬도 안 하는 것일세.”



“해적들도 장 대사님의 무술 솜씨를 알고 있다는 말인가?”

“암 알고 있고말고. 도둑질을 하려면 남의 집 담장의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 식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집 숟가락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야 도둑질을 할 게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해적들도 벌써 장 대사님의 실력을 환하게 알고 있는 거로구나.”

“여부가 있을라고.”

그러나, 장 보고가 무서워서 해적들이 바다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군사들이 횃불을 내걸고 맹훈련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해적선이다!”

망루에서 바다를 감시하고 있던 군사 하나가 훈련장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사님! 해적선이 나타났습니다.”

부관이 급히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적선? 놈들이 이제야 나타났구나. 좋다. 단단히 맛을 보여 주자!”

“어떻게 할까요?”

“즉시 훈련을 멈추도록 하라!”

“예,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훈련을 멈춘 군사들은 장 보고 대사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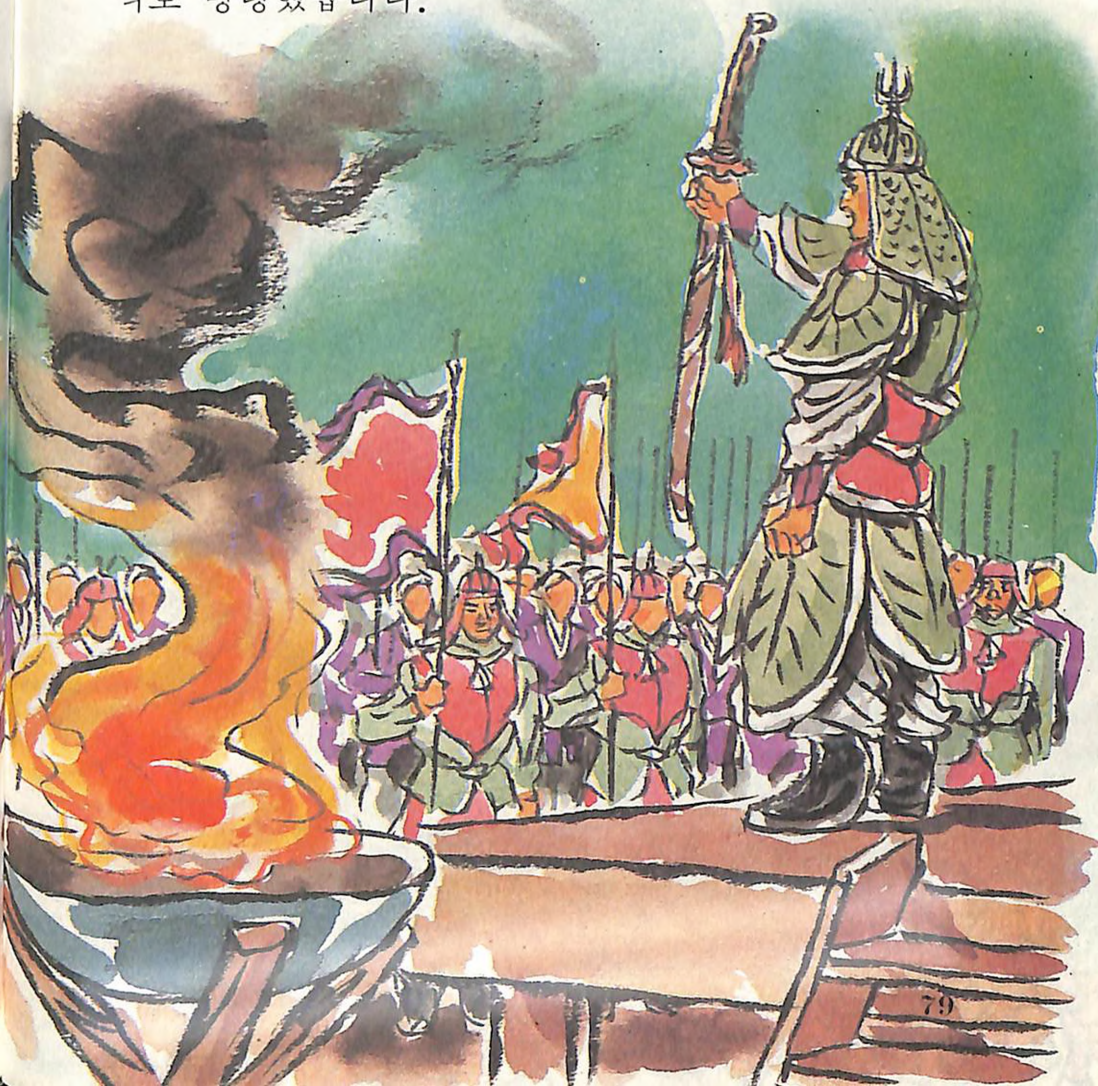
“군사들은 듣거라!”

1만여 명의 청해진 군사가 각기 창과 활과 잠수복을 갖추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어이 해적들이 우리 해안에 나타났다. 해적들은

우리가 작업에 열심이고 밤에는 또 밤대로 군사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자, 몸이 지쳐 있는 깊은 밤을 이용하여 급습해 온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바다와 육지에서 닦은 무술 솜씨를 발휘하여야 한다. 청해진 해안까지 침범한 해적들을 한 놈도 살려서 돌려 보내지 말아야 한다.”

장 보고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크고 위엄 있는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해적선을 향해 모두 돌진하라!”

순식간에 바다는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해적들은 혼란에 지쳐 있는 청해진 군사를 알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청해진의 1만 군사는 막강한 힘을 길러 왔고, 장 보고의 투철한 정신력 밑에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 밤이 가고, 바다에 아침 해가 솟을 때까지 싸움
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바다는 온통 파괴된 해적선의 잔해로 어지러웠고, 청
해진 군사의 공격을 받고 죽은 시체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다의 왕자

한번 혼이 난 해적들은 그 뒤 잠잠했습니다.

장 보고는 부장들을 모아 놓고 다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부장들도 알다시피 우리 청해진은 당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길목이다. 그리고, 청해진의 1만 군사가 먹고 지내자면 상당히 많은 군량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해적들이 뜬한 기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 볼 생각인데, 부장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좋은 생각이십니다, 대사님.”

“좋고말고요. 우리 청해진 군사가 1만 명이니, 해상을 지키는 군사도 충분하고 상선을 동원하여 장사를 하기에다 유리하다고 봅니다. 무장한 군사를 상선에 태워 가지고 다니면 해적들의 침입을 받아도 걱정될 게 없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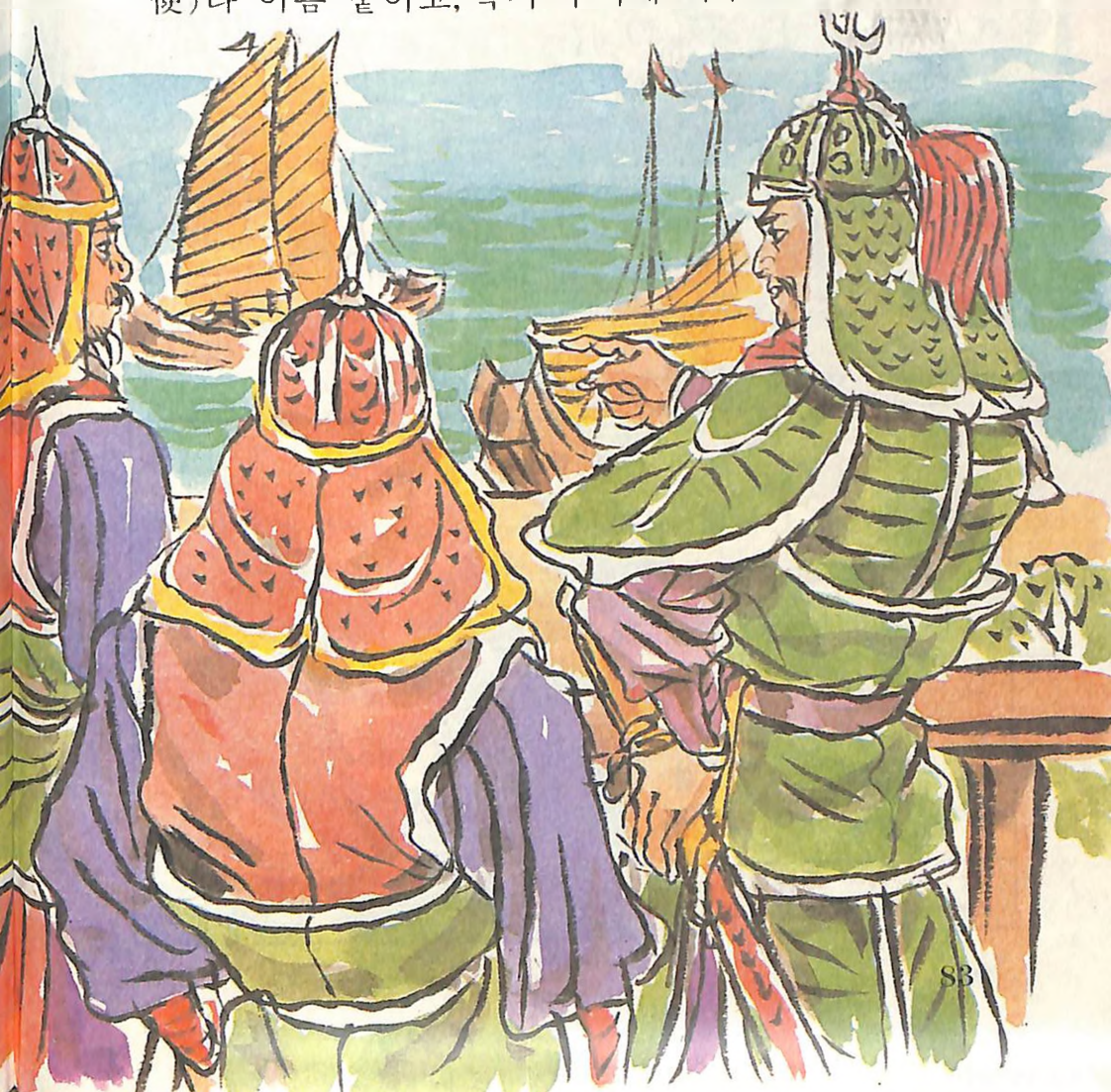
“당장 내일부터라도 장삿배를 움직여 보는 게 좋겠어요, 대사님.”



부장들은 장 보고의 생각에 모두 찬성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청해진 대사 장 보고는 즉시 장사에 경험
이 있는 군사와, 장사에 밝은 어민들을 동원하여 일을
착수했습니다.

“당나라 산둥성 평조우를 드나드는 상선을 교관선(交
關船), 교관선의 우두머리를 견당 매물사(遣唐買物
使)라 이름 붙이고, 즉시 무역에 착수하도록 하라!”



“대사님, 일본에도 배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다. 내 생각은, 당나라와 신라의 물건을 일본으로 싣고 가서 장사를 해 볼 계획이다.”

회역사(回易使)란 이름으로 당장 일본으로 배가 떠났습니다. 바다에서 해적들이 사라지자, 장삿배는 제법 활기를 띠었습니다. 지금껏 해적들의 피해를 받아 오던 일본 사절들은 장 보고에게 해상 보호를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대사님, 일본에서 서찰(편지)이 한 통 왔습니다.”

“일본에서 서찰이?”

“예, 여기 이걸 좀 보십시오. 지카쿠 대사(慈覺大師) 엔인(圓仁)이 보낸다고 써어 있지 않습니까?”

장 보고는 부장이 들고 온 서찰을 뜯어 보았습니다. 서찰 내용은, 해적들의 소탕에 공이 큰 장 보고를

통일 신라 시대의 해상 무역로





치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해 왔습니다.

「……대사님, 소승은 당나라로 들어가 순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청해진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소승의 귀국은 돌아오는 가을이 될 것 같사오니, 그 때 일본으로 들어가는 신라인의 선박이 있으면 소승이 타고 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사님?”

“배편이 있으면 그 스님을 태워 보내도록 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사님.”

장 보고는 이제 해적을 토벌하는 바다의 왕자일 뿐만 아니라, 여객선과 상선(장삿배)을 운영하는 민간 외교가로서도 실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거쳐 가는 모든 배, 즉 고깃배, 장삿배, 여객선까지 장 보고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적들로 들끓던 청해진과 그 밖의 어촌들은 이제 살기 좋은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허어, 청해진이 그렇게도 살기가 좋다면서?”

“말도 많게. 청해진에서는 당나라와 일본으로 늘 장
삿배가 드나들고, 그 나라 물건도 매일 싼 값으로 얼
마든지 사 쓸 수가 있다네 그러.”

“우리 이 산골에서 구차하게 살지 말고 청해진으로
가세.”

“그래! 청해진으로 가세!”

사람들은 둘이 모여도 청해진, 셋이 모여도 청해진,
청해진 타령이었읍니다. 그러더니 몇 년이 못 가 청해
진은 아주 번창한 항구로 발전되었읍니다.

평화로운 세월이 또 흘렀읍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평화롭
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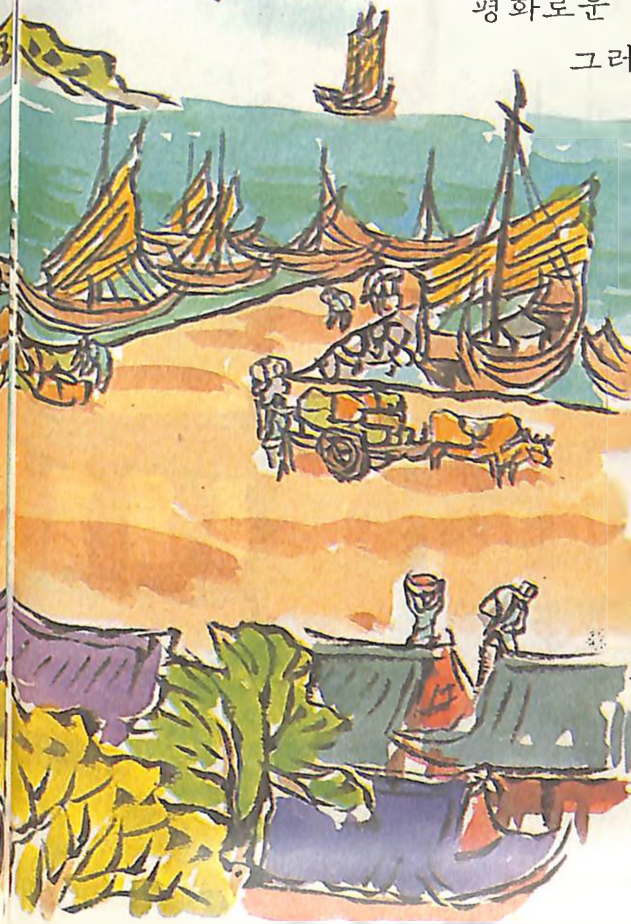
장 보고가 청해에다 진
을 설치한 지도 어느덧
9년이 흘러갔읍니다.

홍덕왕 11년 12월의
어느 날,

“크, 큰일났읍니다, 대
사님!”

부장 하나가 대사의
막사로 급히 뛰어들어
오면서 말했읍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
이냐?”



“서라벌에서 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변란이?”

장 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라!”

“예, 흥덕왕이 승하(돌아가심)하시고 대를 이을 왕자가 없자, 왕족 사이에 보위(왕의 자리)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음, 내 오직 청해진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여 서라벌 사정에는 눈이 어두워서 무슨 뜻인지 알아 들을 수가 없구나. 좀더 자세하게 말해 보라.”

“예, 말씀드립니다, 대사님!”

부장이 들려 준 이야기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흥덕왕에게 세자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 하면, 흥덕왕이 선왕인 헌덕왕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그 해에 이미 왕비께서 세상을 뜨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왕자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이미 장 보고도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새 왕비를 앉히도록 추천하였지만, 홍덕왕은 왕비 후보를 모두 뿌리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새로 왕비를 맞이하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요. 두 마리 부부새가 짝을 잃는다 하더라도 슬피 우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으로서랴. 내 좋은 배필을 잃었다고 하여 어찌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다시 왕비를 얻겠소? 과인은 죽을 때까지 혼자 있겠소.”

홍덕왕은 혼자 사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왕비 없이 혼자 사시던 흥덕왕은 물론 왕자도 한 분 없었지만, 무척 불행한 임금이었습니다.

흥덕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서부터 웬일인지 나라 안에 흉한 일만 되풀이해서 일어났습니다.

서라벌에 큰 가뭄이 들기도 하고, 봄에 큰 기근이 드는 가 하면, 원인도 알 수 없는 나쁜 병으로 수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흥덕왕이 승하하시기 1년 전에 국왕은 시중 김 우정의 아버지 김 균정(金均貞)을 상대등(신라 최고의 관직)으로 삼았고, 아버지가 상대등이 되자 아들은 임금님에게 글을 올려 시중 벼슬을 사양하면서, 아찬 벼슬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김 우정이 맡고 있던 시중 자리는 대신, 대아찬(신라의 제 5 등 관직) 벼슬에 있던 김 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왕권 다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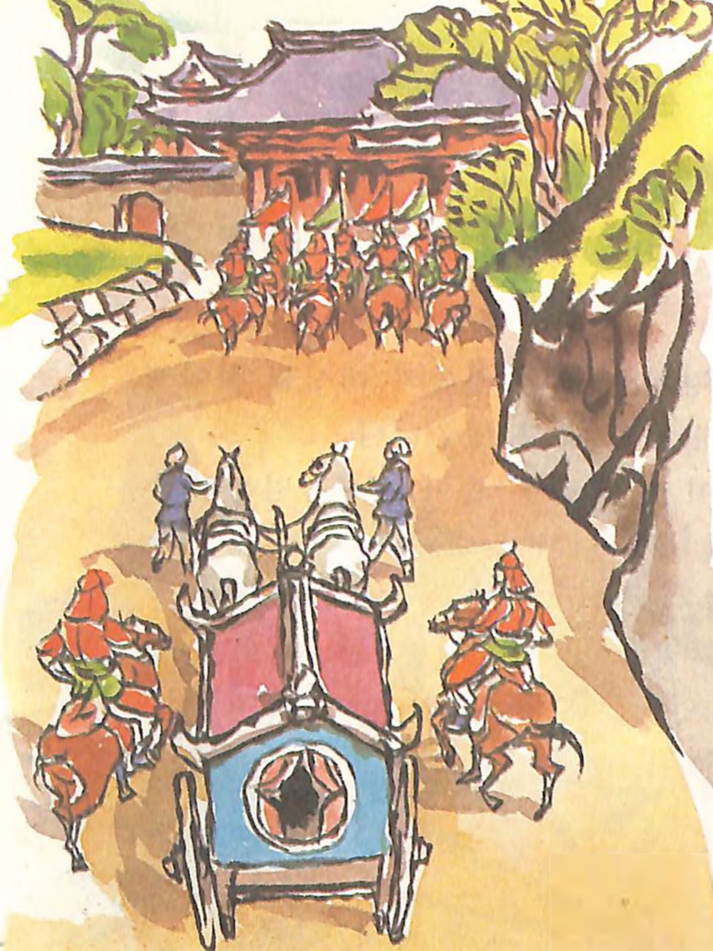
세자가 없는 흥덕왕의 죽음은 왕족과 대신들 사이에 불꽃튀기는 왕위 쟁탈전을 몰고 왔습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다음 왕은 돌아가신 흥덕왕의 조카이신 김 제룡(金悌隆)이어야 합니다.”

“그야 여부가 있소이까?”

그 당시 정계에서 세력이 크던 시중 김 명(金明)과 아찬 이 흥(利弘), 그리고 배 환백(裒萱伯)은 왕의 조카 김 제룡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찬 김 우징(金祐徵), 김 예징(金禮徵), 김 양(金陽) 등은 김 우징의 아버지이며, 선왕의 동생인 상대등 김 균정(金均貞)을 왕으로 받들고 나섬으로써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신라 사십 삼 대 임금님은 상대등 김 균정으로 결정되었소!”

“선왕의 아우이신 상대등이 보위에 오르셔야 하오!”

김 우징 일파는 먼저 김 균정을 모시고 적판궁(積板宮)으로 갔습니다. 뒤를 따르는 군사들이 이미 왕위에 오른 거나 다름없는 김 균정을 호위했습니다.



궁궐을 에워싼 김 균정의 추종자들은 반대 세력이 궁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군사들로 철통 같은 경비를 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김 우징, 김 양의 군사가 김 균정을 왕으로 모셨다고?”

“그렇소이다! 우리가 한 발 늦었습니다.”

김 명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선왕의 조카인 김 제룡을 왕위에 앉히려던 계획이 틀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 명은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 우징, 제까짓것들의 군사가 아무리 적판궁을 지키고 있다 해도 우리 쪽 군사를 당할 것 같은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중?”

이 홍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어찌긴 뭘 어쩐단 말이오? 밀고 쳐들어가 왕좌를 빼앗는 거요!”

“군사를 동원할까요?”

옆에서 배 흰백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물론이오. 지금 곧 군사를 정비하여 적관궁으로 쳐 들어가겠소.”

곧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적관궁 안팎에서는 화살이 날고 창을 휘두르는 등 큰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필코 왕좌를 빼앗아야 한다!”

군사들의 선두에 서서, 김 명은 큰 소리로 호령하였습니다.

“저 궁 안에 있는 김 균정, 김 우징, 김 양, 김 예징의 무리를 한 놈도 남김 없이 쳐 없애라!”



수가 많은 김 명의 군사는 어느 새 적관궁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궁 안에서 김 우징도 소리쳤습니다.

“국왕의 자리는 우리가 이어야 한다! 적의 수효가 많다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그러나, 사태는 궁 안에 있는 군사 쪽이 점점 불리해 갔습니다. 재빠르게 왕좌에 올라앉았던 상

대등 김 군정도 왕관을 벗어 버리고 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궁궐담을 넘어선 김 명의 군사들은 소나기 같은 화살을 퍼부어 대면서 접근해 왔습니다.

“앗!”

김 양이 화살을 맞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이어 상대등 김 군정도 비호같이 날아온 창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상대등이 쓰러졌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잠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상대등이 쓰러졌다는 말에 김 우정의 군사는 기가 꺾였습니다.

“모두들 창을 던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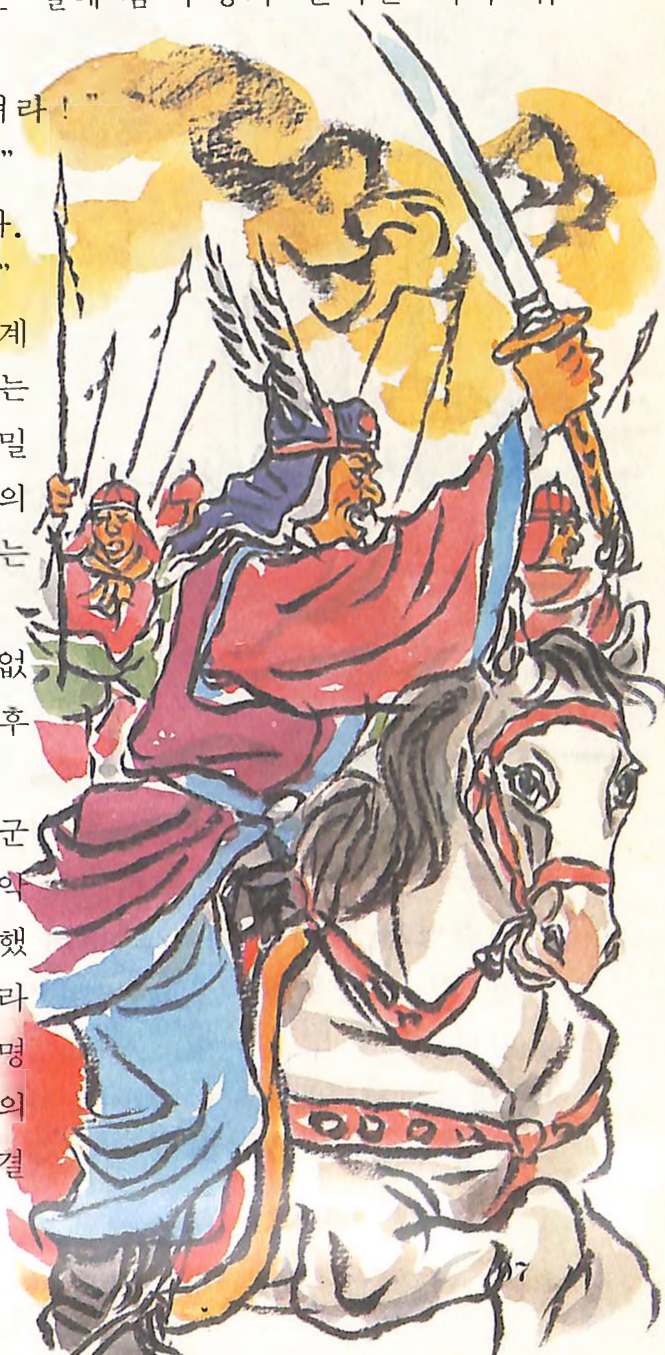
“화살을 날려라!”

“상대등이 죽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목이 쉰 소리로 계속 군사들을 독려하는 김 명과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김 명의 군사들로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김 우정은 할 수 없이 패잔병을 이끌고 후퇴했습니다.

마침내, 김 명의의 군사들이 적판궁을 장악하고 왕좌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라 제43대 임금은 김 명의 계획대로, 선왕의 조카인 김 제룡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을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되셨습니까?”

패잔병과 가족을 이끌고 멀리 청해진으로 피신을 온 아찬 김 우징을 장 보고는 극진히 대우하며 맞이하였습니다.

“대사께서 바다를 지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김 우징도 각듯이 장 보고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장 보고는 김 우징을
맞아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이 한 순
배 돌아가자, 김 우징은
장 보고에게 억울한 사
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장 대사…….”

“예, 말씀하시지요.”

“세상에 원 이런 변란
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라 궁중 관례
로, 국왕이 승하하시
고 대를 이을 세자가
없을 때는 마땅히 그
아우 되시는 분이 왕위

를 계승해야 하는 법인데, 조카 되는
분이 계승하다니, 이럴 수가 있소이까?”

김 우징은 흥분된 어조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옳은 말이었읍니다. 그래서, 장 보고도 김
우징을 깊이 동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 대사…….”

“예, 말씀하시지요.”

“궁중 관례로도 물론, 반란군의 창에 맞아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께서 대를 이어야겠지만, 인품으로도 우
리 아버님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야 이를 말입니까? 돌아가신 상대등께서는 지금 왕좌에 오른 김 제룡이란 사람보다 훨씬 출중하신 분이셨지요.”

장 보고도 김 우정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왕의 동생인 김 우정의 아버지가 이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왕의 자리는 돌아가신 선왕의 조카인 김 제룡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 대사, 두고 보시오. 김 명이란 그 자가 우리를 내쫓고 김 제룡을 왕위에 올려 놓았지만, 언젠가는 김 명 그 자가 김 제룡을 왕위에서 몰아 내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테니까요!”

김 우정은 그렇게 단정을 내렸습니다. 그 말에 장 보고는 주먹을 그러쥐었습니다.

“김 명이 왕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소이다! 두고 보시오, 장 대사.”

“내 그 때는 김 명 그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여기, 이 청해진 군사를 이끌고 서라벌로 쳐들어가 놈의 목을 쳐서 없애겠다 말입니다!”

장 보고의 의분을 보고 지기(志氣)가 서로 통한 김 우정은 만족하게 웃고 술잔을 건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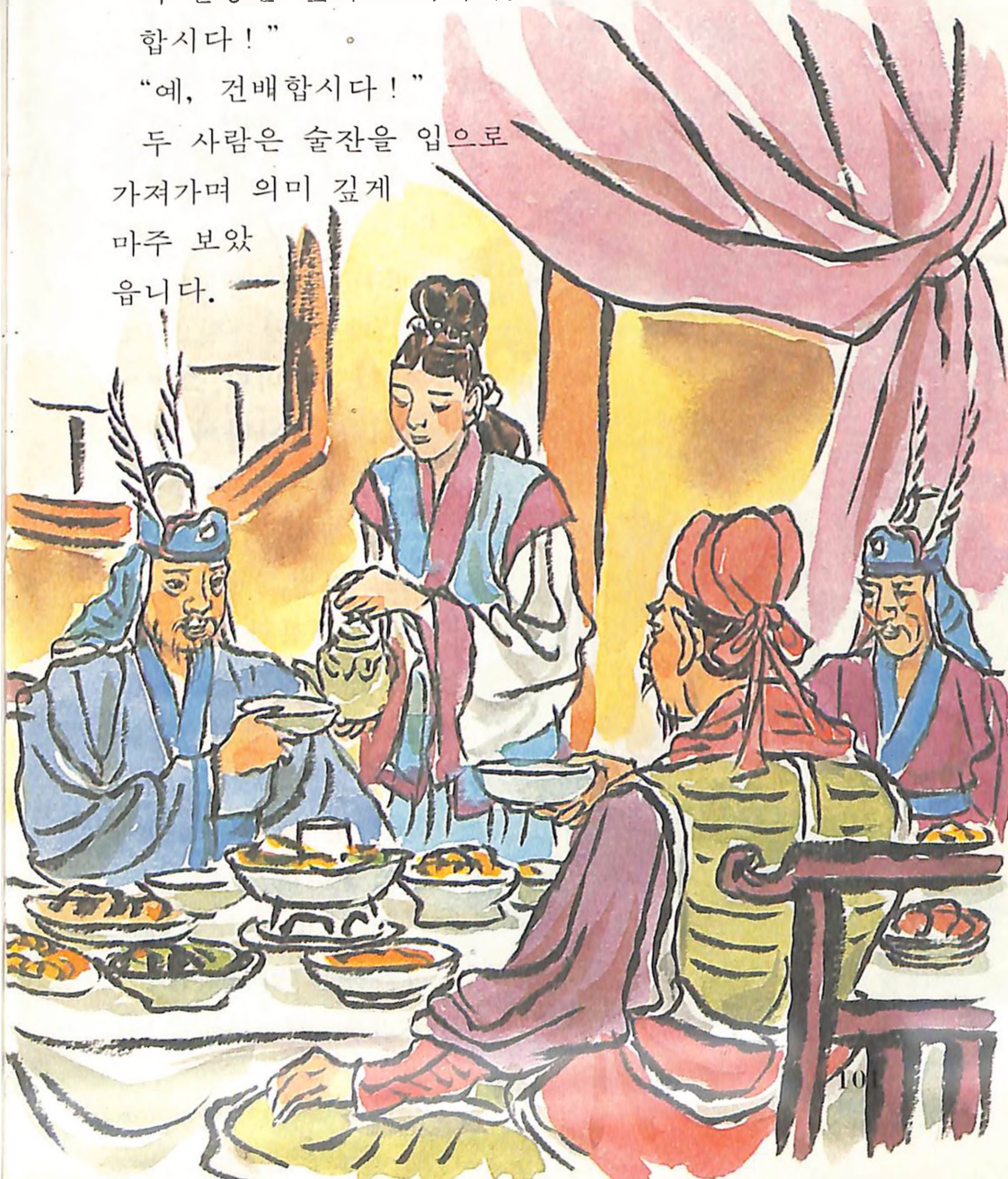
“자아, 내 술을 받으시오, 장 대사!”

“예, 따르십시오, 어서.”

“장 대사와 나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소. 내가 오늘은 비록 서라벌을 멀리 떠나 장 대사의 숙소에 묵고 있으나, 언젠가는 서라벌에 다시 돌아가 장 대사의 은공을 갚아 드리리다. 우리 그 날을 위해 전배합시다!”

“예, 전배합시다!”

두 사람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의미 깊게
마주 보았
읍니다.





돌아온 친구

왕족 김 우징 일가족이 청해진에 묵고 있는 동안에도 장 보고는 군사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당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무역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제 누구도, 청해진 대사 장 보고의 군력(軍力)과 재력(財力)을 과소 평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나라와 일본을 왕래하는 모든 외교관, 상인, 구법 스님, 선교 스님, 유학생들이 청해진의 군벌(軍閥), 청해진의 호상(豪商)으로 등장한 장 보고의 도움 없이는 배편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날도 장 보고는 바다에 나와 당나라로 물건을 싣고 가는 장



삿배를 점검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누가 장 보고 곁으로 다가오면서 묻는 것이었읍니다.

“당신이 청해진 대사 장 보고란 분이십니까?”

남루한 옷에 흡사 거지 차림새의 사나이가 장 보고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소만, 당신은 뉘시오?”

“형님! 나 모르시겠읍니까?”

남루한 사나이는 다짜고짜로 장 보고의 두 손을 잡았읍니다.

“형님이라고?”

“그래요! 궁복이 형! 나 연이오, 정 연!”

“정 연? 아아!”

“형님!”

“연아!”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연아! 네 꼴이 이게 뭐냐, 응?”

장 보고는 거지가 다 되어 나타난 정 연의 어깨를 흔들며 콧날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도 마시오, 형님. 형님이 떠난 뒤로 난 무령군 소장의 자리도 팽개치고 신라 마을로 돌아왔지 뭐요.”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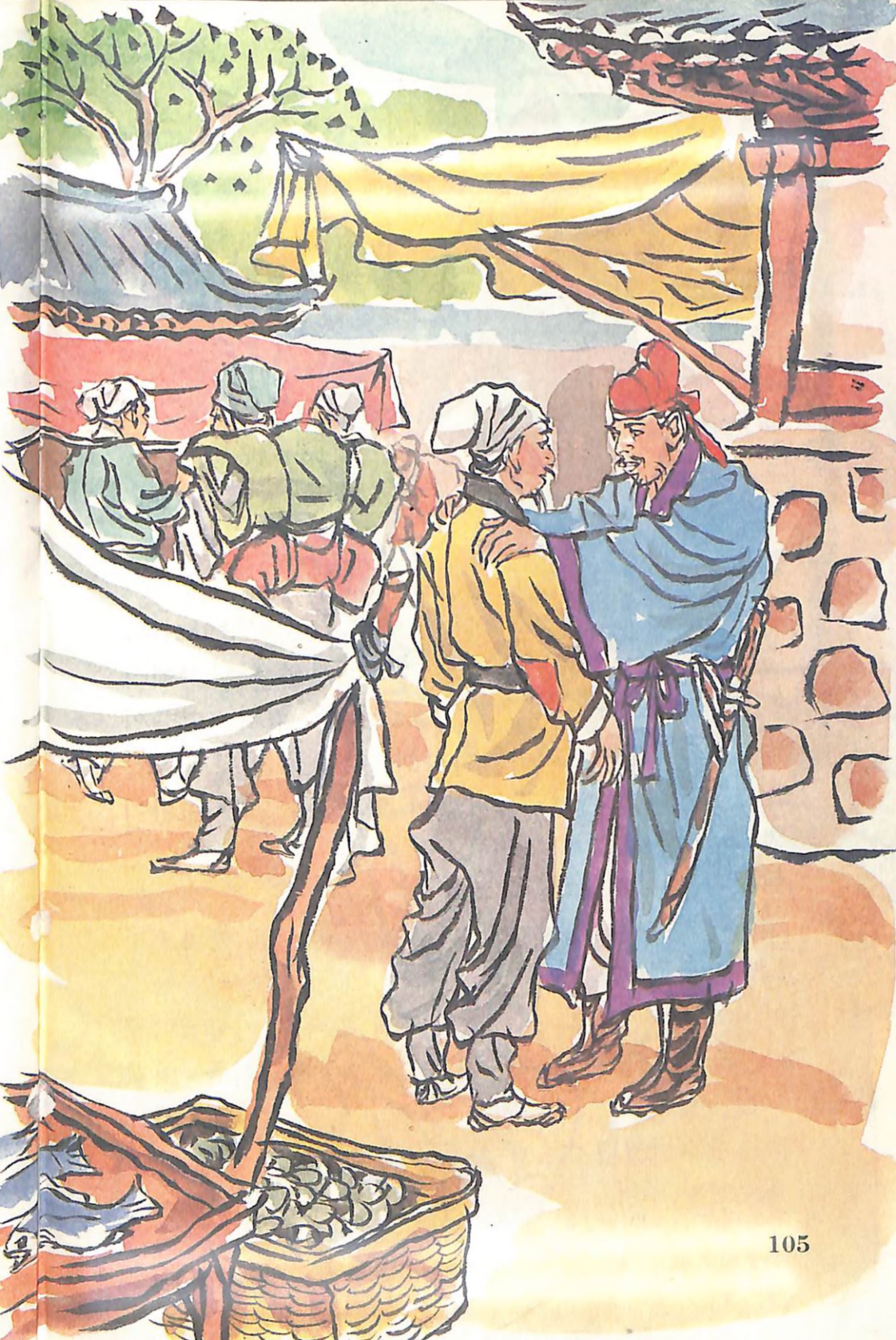
“그 뒤부터 계속 고생이었어요.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남의 집 품팔이를 해도 일이 몸에 배지가 않아서 늘 고생이었단 말입니다.”

정 연은 후유 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이 되면 빨리 돌아올 것이지, 왜 당나라에 눌러 있었나?”

“창피해서 돌아올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성공하려고 신라를 떠난 놈이 거지꼴로 돌아오면 손가락질을 받을 게 아니오? 그게 두려워서 못 돌아오고 있다가 이제야 온 겁니다.”

“어쨌든 잘 왔다. 여기 청해진에서 내 일이나 봐 주면서 기회를 좀 보자. 나라꼴이 하도 뒤숭숭하니까 몸조심하고.”





“알았어요,
형님. 당나라에서
들으니까 형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알려져 있더군요.”

정 연은 싱글거리며, 당나라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떻게 알려져 있기에 그래?”

“형더러 바다의 왕자라지 뭐여요? 바다의 왕자! 형님은 성공했어요.”

“실없는 소리 말고, 너 그 옷부터 갈아 입어야겠다.”

장 보고는 너덜너덜 떨어진 정 연의 저고리를 벗겼습니다.

약간 부끄러웠던지, 정 연은 이를 드러내 놓고 멋지게 웃으면서,

“형님, 나 거지 같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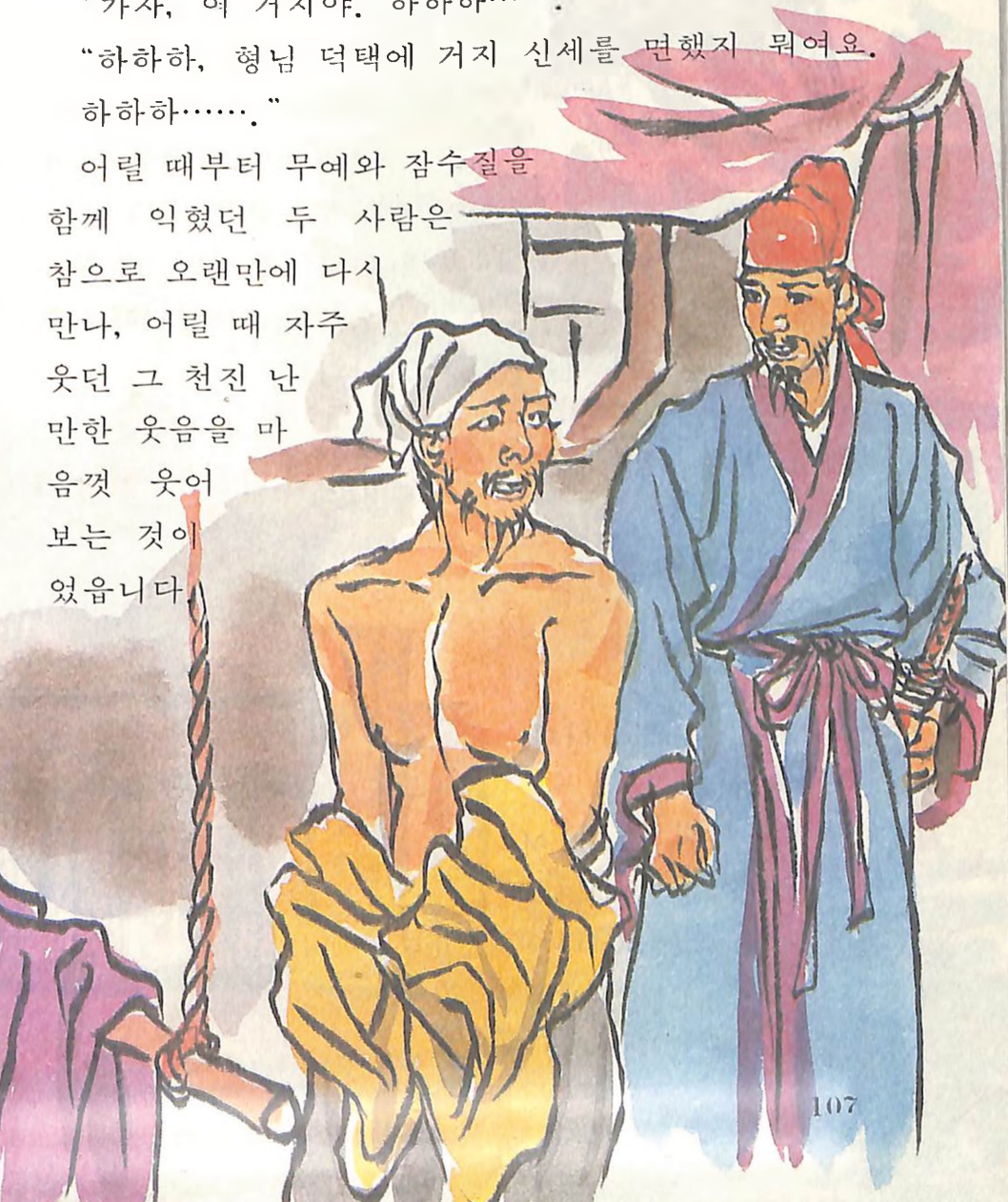
“거지 같은 것만이 아니라,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다,
임마!”

“히히, 미안해요, 형님.”

“가자, 여 거지야. 하하하…….”

“하하하, 형님 덕택에 거지 신세를 면했지 뭐어요.
하하하…….”

어릴 때부터 무예와 잠수질을
함께 익혔던 두 사람은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만나, 어릴 때 자주
웃던 그 천진 난
만한 웃음을 마
음껏 웃어
보는 것이
있읍니다.





봄도 지나고 계절은
여름의 문턱을 넘어서
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쫄도둑들이 멀리 청해
진의 변두리를 괴롭히
기도 했지만, 바다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6월로 접어들자, 바
다를 감시하던 망루
위의 군사도 줄음이
오는지 연신 하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품을 하고 난 군사가
문득 버릇처럼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소리를 버럭 질렀
습니다.

“앗! 해적이다!”

“뭐, 해적이라고?”

망루 아래에 있던 군
사도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디, 어디!”

망루 주변의 군사들이
망루 위로 올라와 멀리
바다 쪽을 노려봅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세 척이다!”



“아니야, 네 척이야!”

“맞았어, 네 척이야!”

최근에 해적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구경 못 한 군사들은 은근히 신바람이 납니다.

“헤헤, 활을 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던 참인데 잘 됐구나.”

“배가 낡은 걸 보니까 해적선은 해적선인데, 거지 같은 녀석들인가 보다.”

“아뭇튼 대사님께 빨리 보고해야지.”

한 군사가 부리나케 망루를 내려와 장 보고의 막사로 달려가는데, 망루 위의 군사가 또 소리를 쳤읍니다.



“앗, 네 척이 아니라 여덟 척이다!”

“뭐? 어디 어디!”

여덟 척, 아니 자세히 세어 보니 여덟 척도 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웬 놈들이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로 슬슬 기어들어?”

“이제야 실컷 화살을 쏘아 보게 되었구나, 히히히.”

청해진 대사 장 보고는 보고를 받고 싸움에 대비하여 즉시 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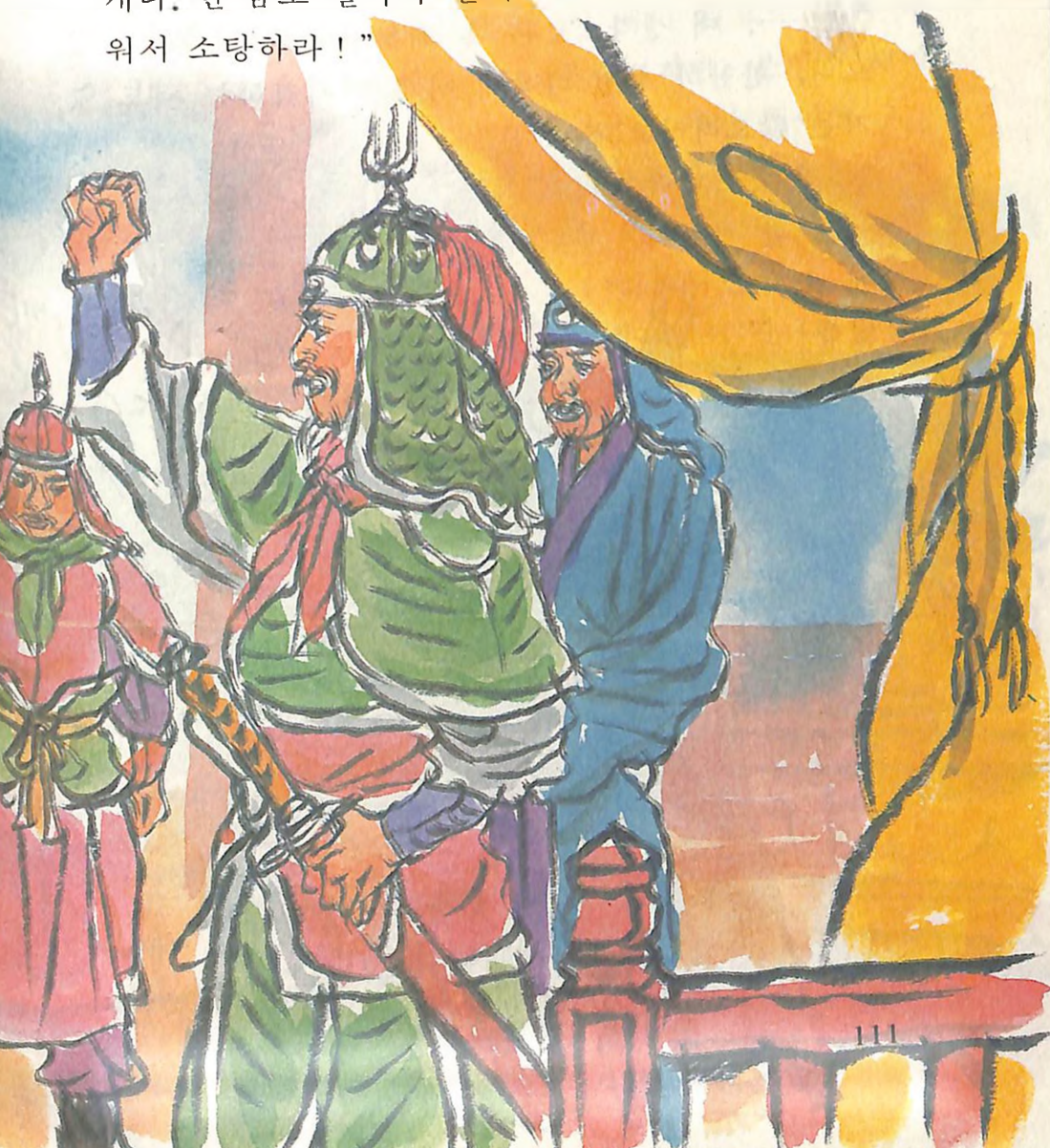
“너희들은 듣거라!”

“예, 대사님!”



당당한 자세로 장 보고 앞에 죽 서 있는 부장들은
저절로 힘이 솟았습니다. 장 보고는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해적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우리 청해진
이 날로 번창하고, 군량 창고에는 가득가득 군량미
가 쌓여 가자, 놈들이 이것을 탐내고 덤벼드는 것일
개다. 한 놈도 살아서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힘껏 싸
워서 소탕하라!”



“옛, 대사님!”

“잠깐…….”

부장들의 늙름한 모습을 지켜 보던 김 우징이 장 보
고에게 말했습니다.

“장 대사!”

“예,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내 생각으로는 혹 해적선이 아닌 듯도 싶
으니, 찬찬히 살핀 다음에 싸움을 시작하는 것도 늦
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해적이 아니라고요?”

부장 한 사람이
불멘 소리로
물었읍
니다.



김 우정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생각해 보시오, 청해진의 장 보고 대사라면 천하에 모를 사람이 없는데, 뻔히 죽을 걸 알면서 무턱대고 오는 해적이 어디 있겠소?”

“그럼, 해적선이 아니라면 장삿배가 저렇게 여러 척이 모여든단 말이오?”

“물론 장삿배도 아닐 게요. 저 배의 외모로 보아 무기를 싣고 있는 배임에는 틀림없지만, 분명히 해적선은 아닐 것ियो.”

김 우정의 말은 자신에 차 있었읍니다.

‘그렇다면……, 만일 해적선이 아니라면, 많은 군사를 풀어 놓아 화살을 소모시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장 보고는 생각 끝에 부장들에게 다시 명했읍니다.

“배가 좀더 가까이 오는 것을 지켜 본 다음에 행동을 개시하겠다. 각자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배의 동태를 살피도록 하라!”

“옛, 대사님!”

부장들은 물러갔습니다.

장 보고는 김 우징과 단 둘이 되자,

“어째서 해적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장 대사를 알
보고 이 청해진을 습격해 올 사람은, 해적이든 다른
나라 군사이든 이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장

대사의 힘이 막강해
졌다는 것이고요. 다
른 하나는 저 배, 가
까이 오는 저 배들
을 보시오. 어디서
많이 본 배들이 아
닙니까?”

장 보고는 김 우징
이 가리키는 바다 위
의 배를 찬찬히 살펴
봤습니다. 과연, 모두
낯익은 배들입니다.

“저건 우리 신라의
배가 아니오?”

“맞았소이다. 틀림없
이 신라의 배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 청해진 안으로 오고 있는 여덟 척의 배를
바라보고 섰습니다.

이 때, 부장 하나가 급히 달려와서 보고했습니다.

“대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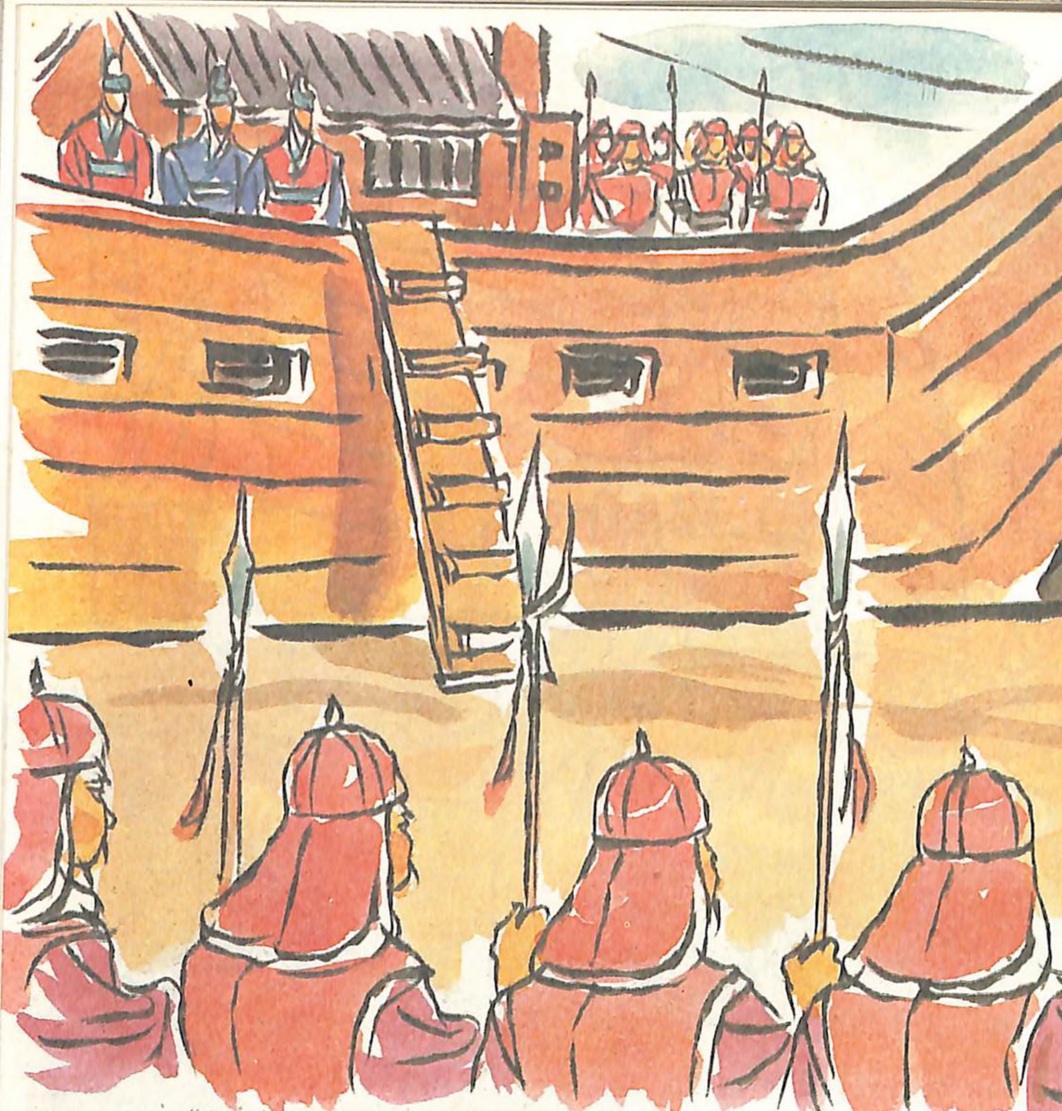
“음?”

“배 위에서 깃발을 흔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깃발을 흔든다……?”

“예,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오도록 내버려 두게.”



“그러다가 기슭을 당하면 우리 측이 피해를 입을 텐데요, 대사님?”

부장은 마음이 안 놓이는 모양입니다.

“명령대로 해!”

“엏, 알았습니다.”

얼마 뒤, 배가 모두 청해진에 정박했습니다.

배 위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대사가 어느 어른이신가? 뵈게 해 달라.”



배에서

먼저 내린 사람이

장 보고를 급히 찾았습니다.

김 우정이 지키고 섰다가 반색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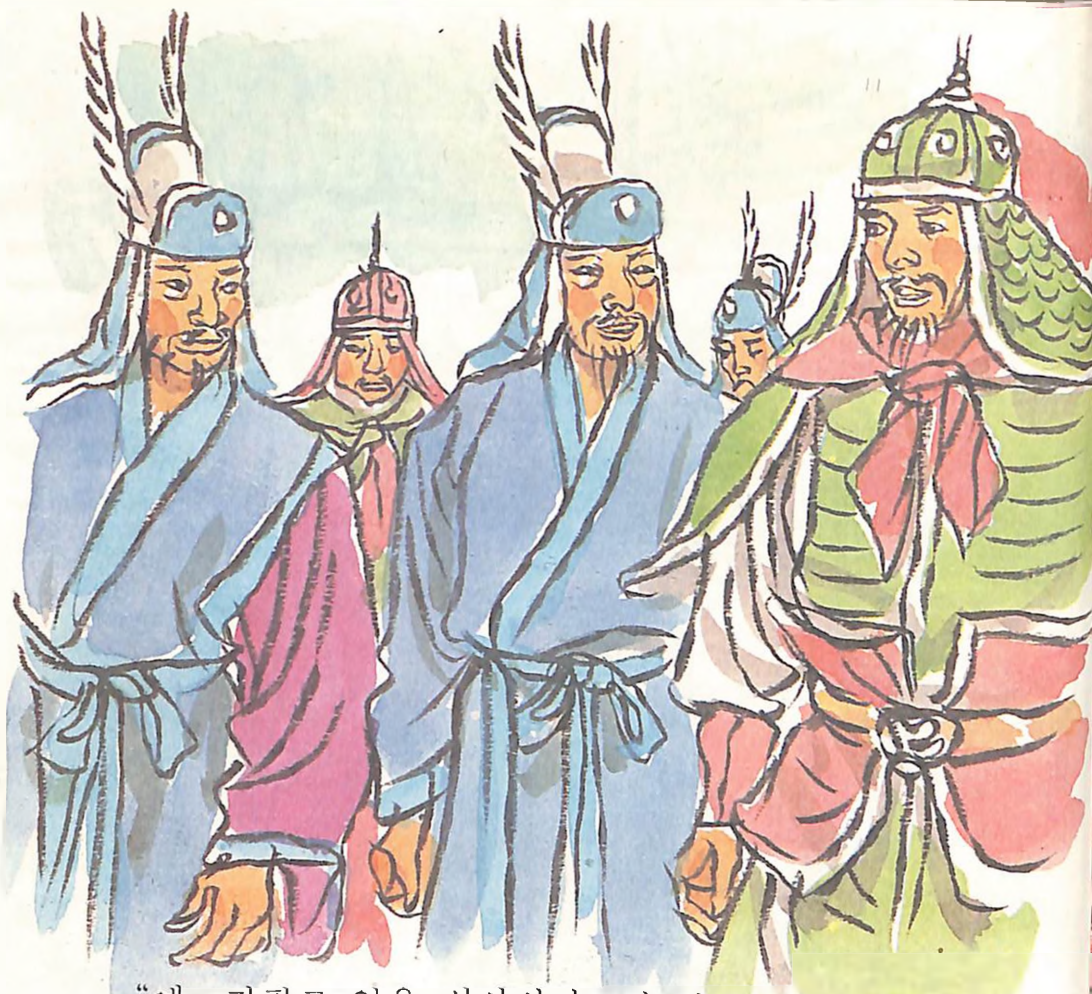
“아아니, 그대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아찬 김 양순(金良順)과 김 예정이었읍니다.

“어떻게 이 곳까지 왔는가, 이 사람들아.”

김 명 일당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김 예정과 김 양순, 그들이 패잔병을 싣고 청해진에 온 것입니다.

“잘 왔네, 잘 왔어. 여기에서 힘을 정비하여 김 명의 무리를 쳐부수러 가세!”



“예, 기필코 일을 성사시키고야 말겠습니다.”
청해진은 차츰 바빠졌습니다.

김 우정과 그의 일가족들이 와 있고 정 연과 김 예
징, 김 양순을 비롯한 수많은 군사들이 서라벌 탈환의
꿈을 부르익히면서 전략을 짰습니다.

장 보고의 딸 나미(那美)는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김 우정의 아들 경응(慶膺)과 이따금 바닷가를 거니는
게 여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
는 사이였습니다.

“언젠가, 서라벌로 돌아가시게 되면 경응 씨는 귀한 분이 되시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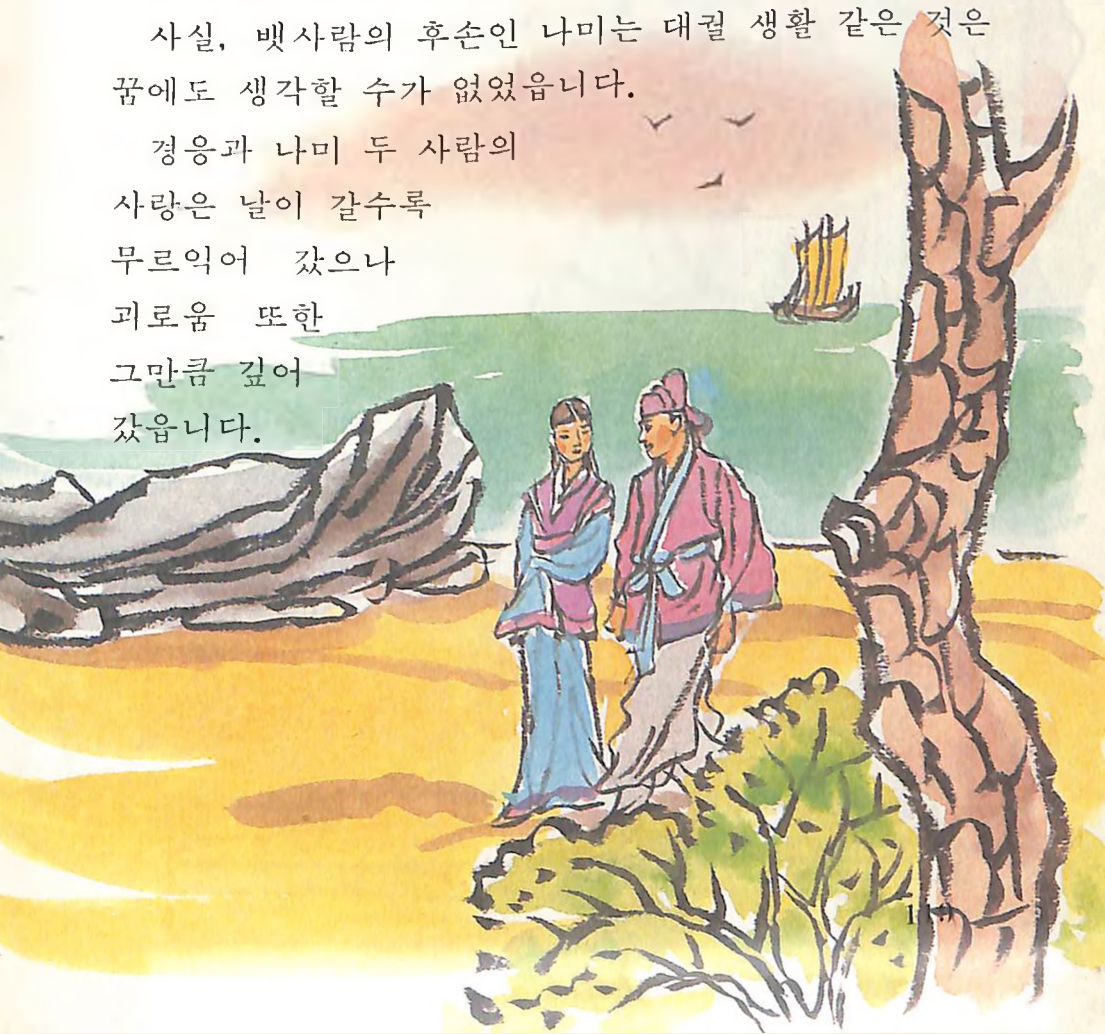
나미는 경응이가 왕손이라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야릇한 질투심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경응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청해진 대사 따님이신 나미 씨도 얼마나 귀한 분이신데 그래요?”

“하지만, 우린 미천한 집안이라 왕궁에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뱃사람의 후손인 나미는 대궐 생활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응과 나미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무르익어 갔으나
괴로움 또한
그만큼 깊어
갔습니다.





“나미, 내 언젠가 서라벌에 돌아가게 되는 날, 나미를 궁 안으로 데리고 갈 테야! 난 약속할 수 있어요.”

경응이가 열띤 소리로 그런 약속을 했지만, 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라벌로 돌아가시게 되면 절 잊으실 거예요. 서라벌엔 저보다도 신분이 좋고 어여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미는 내 약속을 믿지 않겠다는 건가?”

“믿고 싶지만, 신분이 낮은 제가 어떻게 왕궁으로 가서 살 수가 있겠어요?”

나미는 참으려 해도 자꾸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미의 커다란 두 눈에서는 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미! 왜 이러는 거야, 나미!”

“으흐흐흐.....”

경응이가 아무리 달래도 나미는 그저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합니다.



서라벌의 비극

바람결에 들려 오는 서라벌의 대궐 안 소문은 모두 어두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실권을 잡은 김 명은 상대등이라는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있었고, 이 흥도 시중의 중책을 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판궁 싸움에서 화살을 맞았던 김 양을 김 명과 이 흥, 두 실권자는 왕족(王族)임을 감안하여 상대등으로 올려 놓았으나, 신왕(희강왕)에게 별로 협력하지 않는 김 양이라 언제나 눈의 가시처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상대등 김 명과 시중 이 흥은, 어느 날 은밀한 곳에서 단 둘이 만났습니다.



“시중…….”

“예, 상대등.”

김 명은 목이 타는지, 유리잔에다 차 한 잔을 따라서 마셨습니다(이 때, 신라에는 이미 당나라에서 들어 온 유리잔이 있었고, 지리산에 많은 차나무를 심어 보급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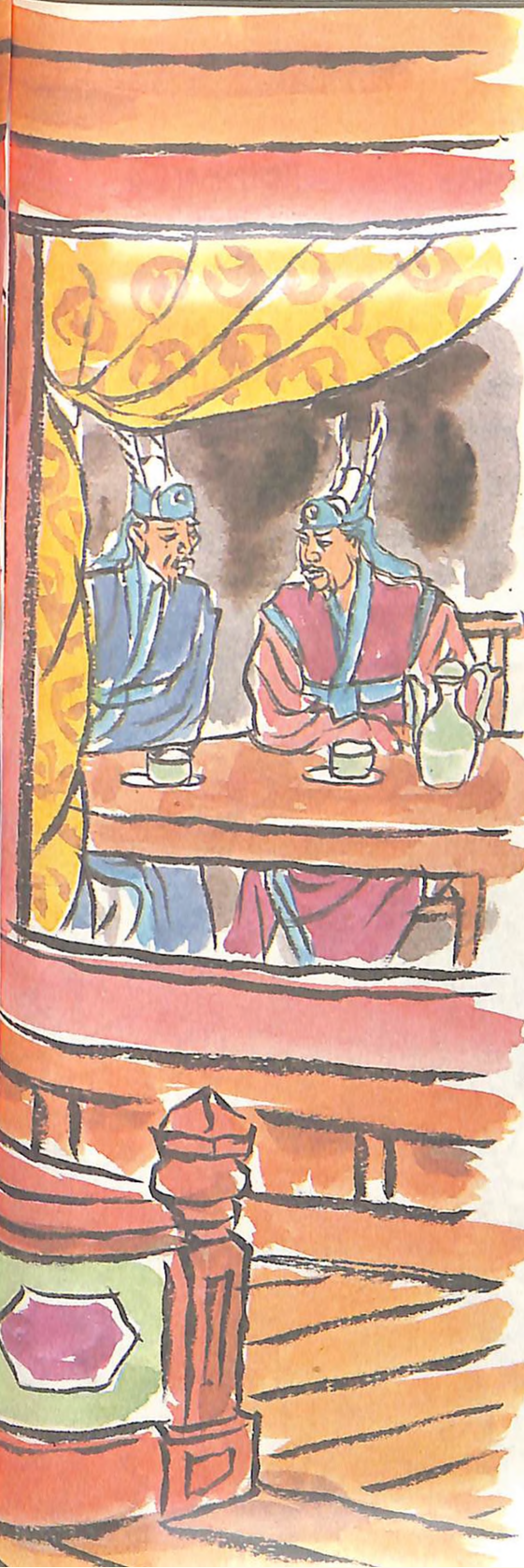
“시중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나는 요즈음 잠이 오지 않아서 큰 걱정이오.”

“상대등께서 국사에 너무 열심이라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건강이야 좋지만, 김 예징과 김 양순이 청해진에 있는 김 우징한테 가서, 장 보고와 함께 있다는 소문을 들은 뒤로는 통 잠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오.”

김 명은 김 우징의 세력이 점점 커 가고 있는 데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중…….”

“예, 상대등.”

“김 우징의 세력이 커지고, 그 자가 서라벌로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일을 해 치워 버립시다.”

김 명은 소리를 낮추어 이 홍의 마음을 떠보았읍니다.

이 홍은 짐짓 놀라는 체하고,

“일을 해 치우다니, 무슨 일을 말입니까?”

“아, 허수아비 같은 왕을 몰아 내고 우리가 왕권(王權)을 손아귀에 넣자, 이런 말이오.”

김 명은 서슴지 않고 왕을 제거해 버리자고 말했읍니다.

이 홍은 다시 한 번 놀란 얼굴을 지어 보이며 말했읍니다.

“상대등께서 왕권을 잡으신다는 것은, 바로 보위(왕의 자리)에 오르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맞았네. 일이 성사되면 내 그대를 요직에 앉도록 할 것이니 협력해 주지 않겠나?”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이 홍은

“좋습니다. 상대등께서 하라시는 대로 일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암! 여부가 있나. 그 대신 내 시중을 크게 대접해 주겠다니까!”



두 사람의 밀담은 끝났습니다.

이튿날, 김 명과 이 흥이 동원한 군사는 예고 없이 대
궐 안에 뛰어들어, 왕의 측근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겁에 질린 희강왕은 안절부절 못 하고 얼굴이 창백
해지면서,

“이, 이런 변고가 있나? 상대등! 상대등은 어디 있
소? 시중! 시, 시중은 어디 있소? 과인을 남겨 두
고 경들은 어디로 피한 거요!”







하며, 왕은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김 명과 이 흥의 얼굴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 습니다. 오직 피를 본 군사들 만이 궁궐 안을 미친 듯이 치 달으며 왕의 측근들을 발견하 는 대로 사정 없이 목을 베어 버릴 뿐입니다.

궁궐 안은 너부러진 시체와 아우성치는 군사들, 그리고 어 찔 줄 몰라 도망치는 신하들로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고 말았 습니다.

이제 혼자가 되어 버린 왕은 날뛰는 군사들의 칼에 꿈쩍 없 이 죽음을 당할 판입니다.

‘아아, 이럴 수가 있나……. 2년 전엔 내가 칼을 휘둘러 왕위에 올랐는데, 이제 내가 그 꼴이 되었구나. 내가, 내 가 왕위를 탐내는 무리들의 칼에 죽게 되다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 스스로 이 욕된 생애를 끝내고 말리라!’

왕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견잡을 수 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배신감! 자기를 떠받들어 왕이 되게 했던 그 신하들이 이제는 자기를 몰아 내려는 그 배신 행위가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 날, 왕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재빨리 청해진에 전해졌습니다.

장 보고의 막사에서, 김 명과 이 홍이 왕을 죽이고 실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왕손 김 우정은 주먹을 움켜쥐며 치를 떨었습니다.

“장 대사, 내가 뭐라고 했소? 김 명 그놈이 기어이 왕과 왕의 측근들을 모조리 죽이고 실권을 잡았지 않소. 죽일 놈 같으니라고…….”

듣고 있던 장 보고도 몹시 못마땅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김 명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사실이고말고요. 나는 이번 일을 그냥 눈감아 버릴 수가 없소. 김 명을 그대로 왕좌에 앉혀 놓는다면 앞으로 그놈은 우리를 죽이러 올 것이 분명하오.”

장 보고와 김 우정이 서라벌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진귀한 손님이 또 청해진에 나타났읍니다. 상대등으로 있던 김 양(金陽)이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김 우정을 찾아온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김 우징 자신도 마음을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장 대사, 김 명은 국왕을 시해(弑害)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소. 그리고 일찌기 나와 뜻을 같이하던 이 홍이란 자도 군부(임금)를 죽게 하였으니, 나는 그놈들과 함께 하늘을 같이하고 살 수가 없소. 원컨대 장군의 군사에 의지하여 군부의 원수를 갚으려 하니 협력해 주오.”

김 우징의 노기에 찬 결심을 보고, 장 보고는 쾌히 응낙하고 나섰습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맹이 없는 것이라’ 하였소. 내 비록 용렬한 사람이긴 하지만, 오직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고맙소, 장 대사.”
장 보고는 즉시 정 연을 불러서 지시했습니다.

“연이…….”



“예, 형님.”

정 연은 언제나 장 보고를 형님으로 각뚝이 위했습니다.

“연이, 자네가 아니면 어지러운 이 난국을 평정할 사람이 없네. 이분(김 우징)을 도와 김 양과 함께 김 명(민애왕)을 치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형님.”

뒤이어 장 보고는 김 양을 평동 장군에 임명하고, 염 장(閻長), 정 연, 장 건영(張建榮), 이 순행(李順行) 등 무예에 능한 장수들과 5000여 명의 정예 군사를 주어 민애왕을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급보를 받은 민애왕은 허겁지겁 대감 김 민주(金敏周)를 앞세



위 김 양의 벌 떼 같은 군사를
맞아 싸우도록 하였으나, 당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크, 큰일났습니다, 전하!”

대궐 안은 벌집을 쭈셔 놓은
듯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양
의 군사가 서라벌을 향해 돌진
해 온다니까, 대신들은 이리 뛰
고 저리 달고, 갈피를 잡지 못
했습니다.

“크, 큰일났다고 아뢰오.”

“어찌 이리 수선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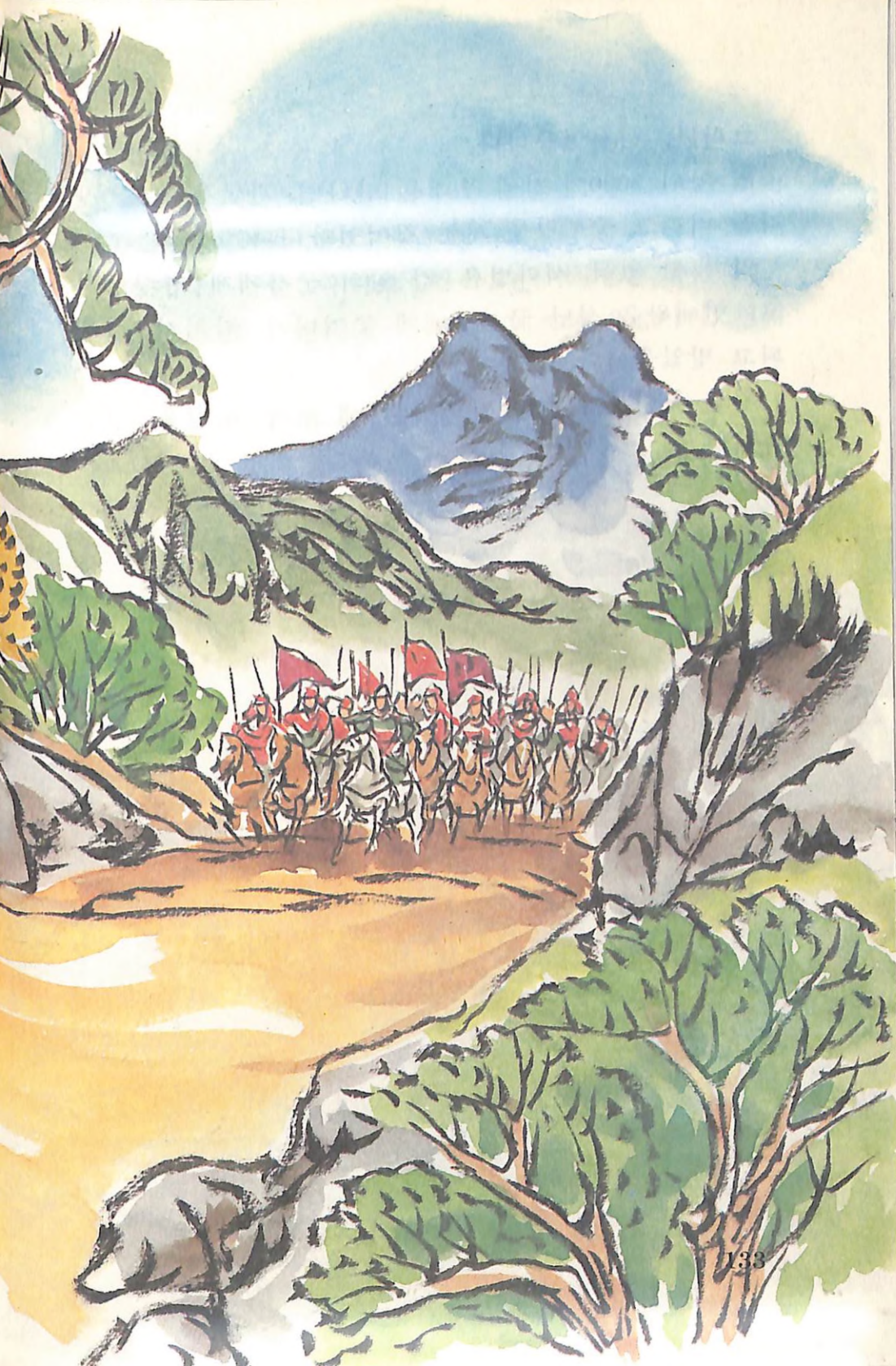
민애왕은 그래도 위엄을 잃
지 않으려 애쓰면서 전황(戰況)
을 물어 보았습니다.

“김 양의 군사는 이미 무주
(지금의 광주), 철야현(지금
의 나주)을 넘었고, 멀지 않
아 달구화현(지금의 대구)으
로 밀고 들어올 태세입니다,
전하!”

“허 이, 이런 변이 있나!”

“즉시 이찬 대 혼(大昕)과 대
아찬 윤 인(允璘)을 시켜 나
아가 싸우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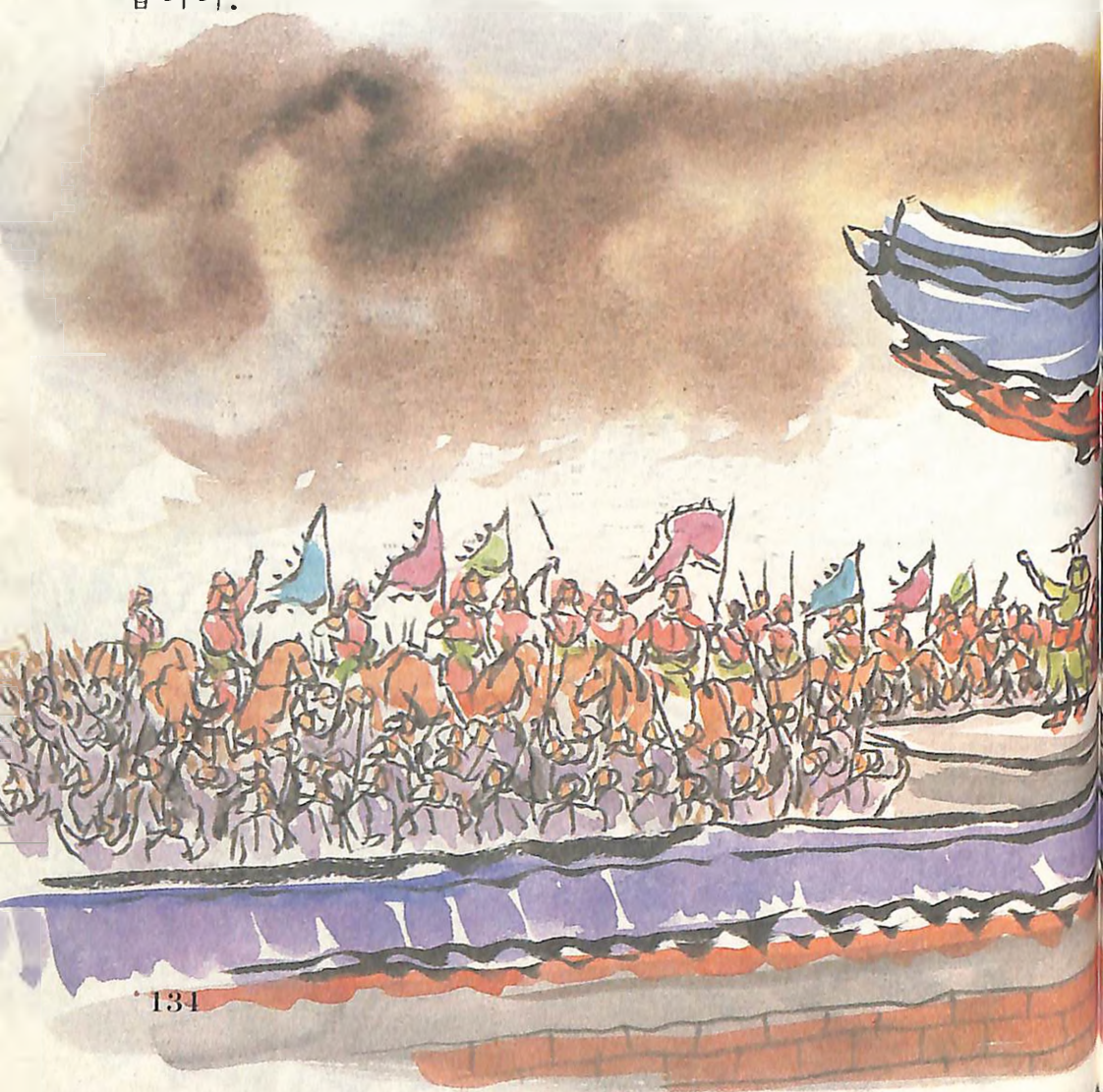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김 양의 5000여 정예 부대를 만나면, 관군은 싸울 생각을 버리고 줄행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서라벌은 김 양의 군사에게 점령당하고, 민애왕은 성난 군사들에게 쫓기다가 잡혀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왕을 죽인 군사들은 대궐 마당에 모여 함성을 질렀습니다.



“민애왕을 죽였다!”

“그까짓 게 무슨 왕이냐? 나라를 1년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왕이냐?”

“옳거니,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김 명을 죽였다!”

“이는 오로지 청해진 장 보고 대사의 은공이다. 청해진 대사 만세!”

“청해진 대사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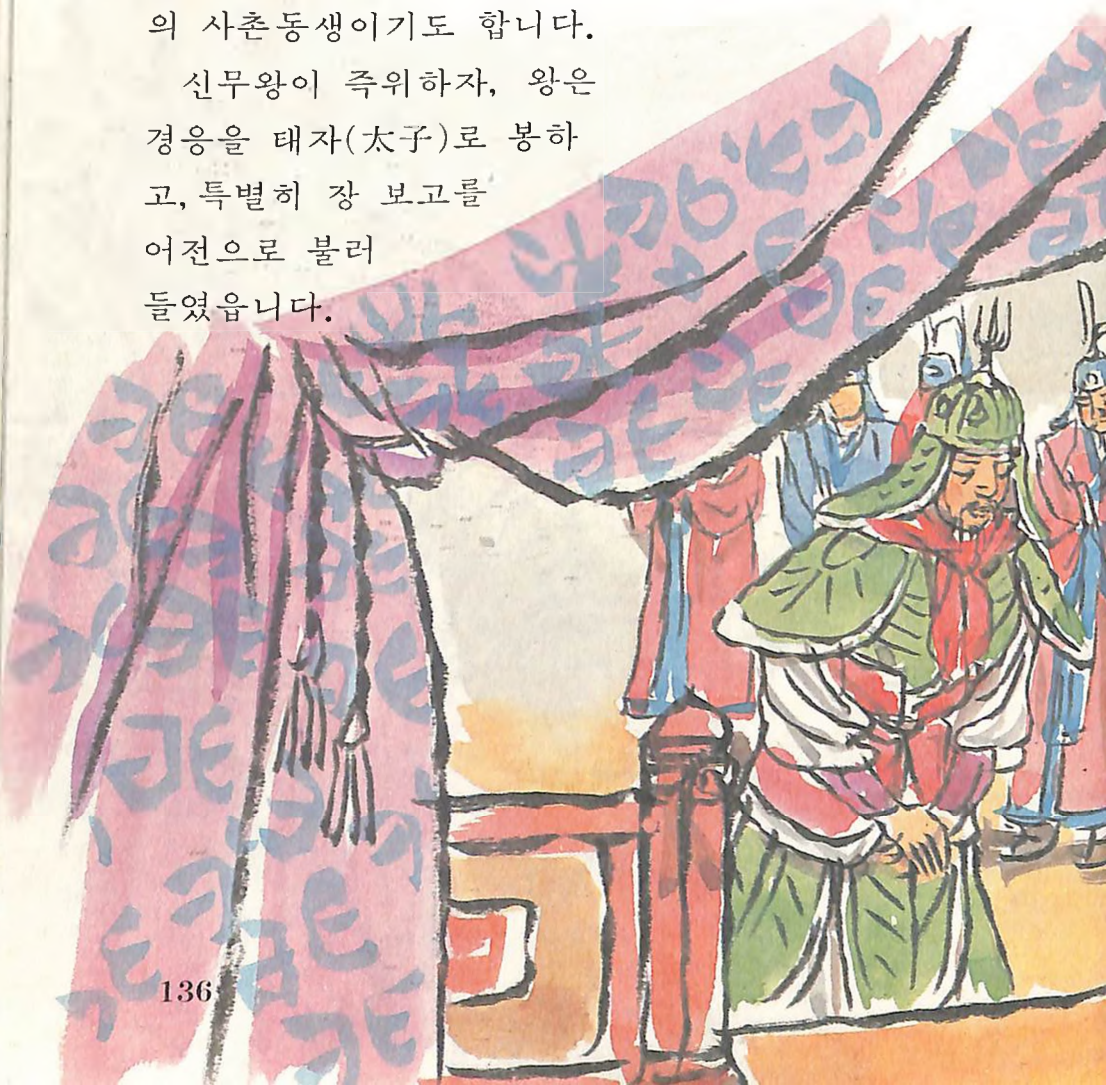


진해 장군 장 보고

839년 4월, 김 우정은 예를 갖추어 신라 제45대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가 곧 신무왕(神武王)입니다.

신무왕은 신라 제38대 원성왕(元聖王)의 손자이고 상대등 균정(均貞)의 아들이며, 43대 희강왕(僖康王)의 사촌동생이기도 합니다.

신무왕이 즉위하자, 왕은 경응을 태자(太子)로 봉하고, 특별히 장 보고를 어전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오래 왕권 쟁탈전의 시련 속에서 왕의 모습은 피로하고 병약해 보였으나, 용안(임금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 대사…….”

“예, 전하!”

대답하는 창 보고의 목소리도 감격에 넘쳐서 떨렸읍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장 대사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보존하지 못했을 것이요. 내, 그대의 은공을 생각하여 감의군사(感義軍使)로 삼고, 식읍(나라에서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리어, 조세를 개인이 받아 쓰게 한 고을) 2천 호를 봉(封)하리로다.”

“실로 과분하신 처사이옵니다, 전하.”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과인이 약속해 두는 일은, 태자(경응)가 이 다음에 장군의 딸 나미를 비(妃)로 맞이하도록 할 것이니, 뿌리치지 마오.”





“전하께서
하명하신 대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어전을 물러 나온 장 보고는 곧장
나미를 불러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성상께서 약속하신 일이니 너는 이 다음에 태자비가
될 게다.”

“아버님, 그게 사실입니까?”

나미는 태자비가 된다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게 모두 아버님 은공이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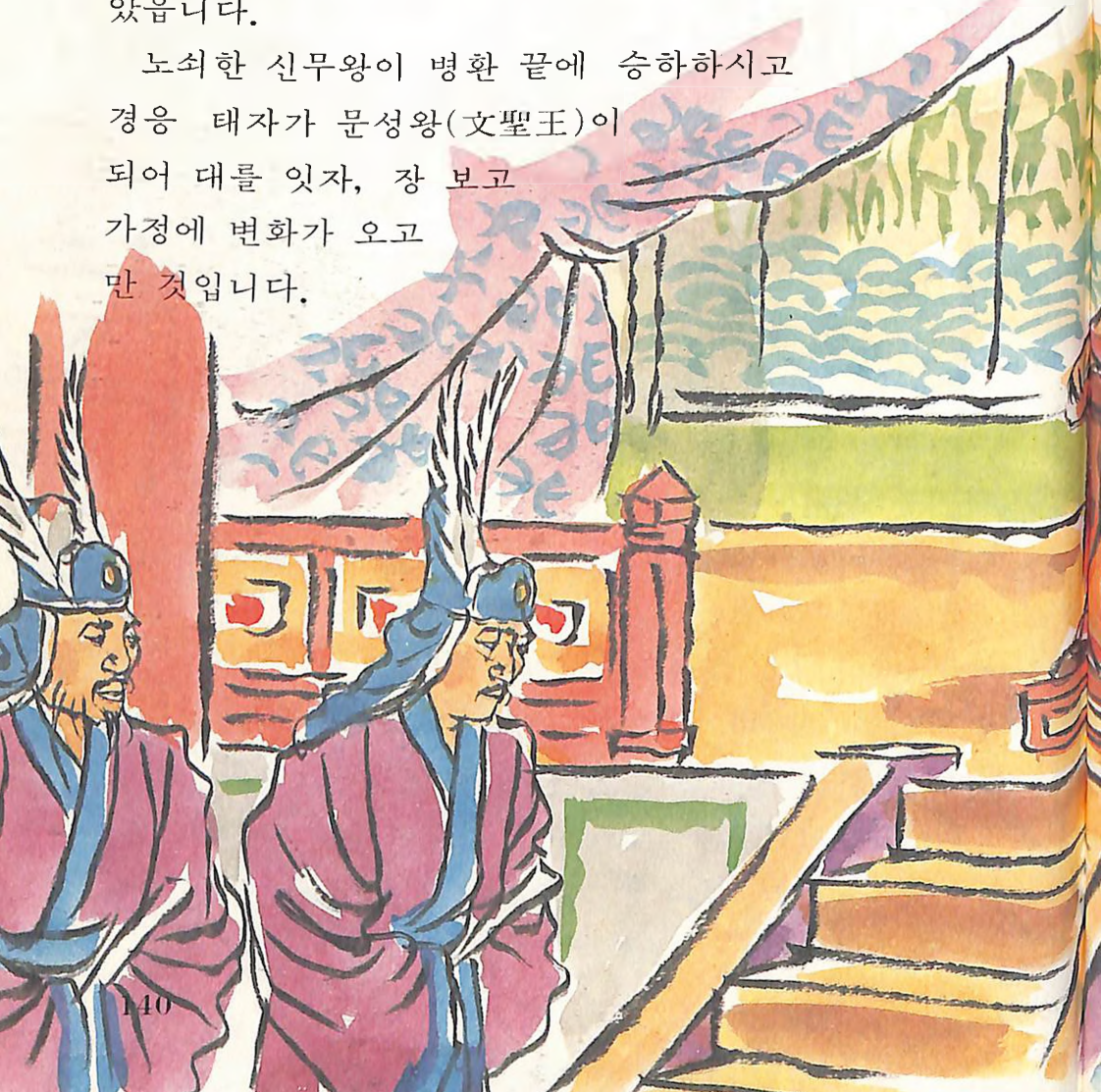
“허허허……, 눈물을 거두어라. 이 기쁜 날에 눈물
을 보이다니.”

“예, 아버님.”

그러나, 미친한 가정에서 태어난 몸이 궁중에 들어가 태자비가 될 것이라는 것이 꿈만 같아서, 나미는 자꾸만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미도 나미려니와, 장 보고는 이제 바다의 명장에서 신라의 막강한 세력가로 등장하게 되었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노쇠한 신무왕이 병환 끝에 승하하시고 경응 태자가 문성왕(文聖王)이 되어 대를 잇자, 장 보고 가정에 변화가 오고만 것입니다.



문성왕은 선왕(신무왕)이 약속한 일도 있고, 왕 자신이 장 보고의 딸 나미를 마음에 두고 있던 터라,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 이 이야기를 대신들 앞에서 꺼냈습니다.

“과인은 오늘 청해진 대사 장 보고에게 진해 장군을 봉하여 그 은공에 답하려 하오. 그리고, 경들도 알고 있듯이-부왕께서 장 보고 장군에게 언약한 일이니,

오늘 과인은 장 보고의 딸을 비로 맞이할 것을 알리는 바요.”



듣고 있던 대신 가운데서 상대등 김 예징(金禮徵)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옵서 장 보고를 진해 장군으로 봉하심에는 다른 이론이 없으나, 그의 딸을 비로 맞으심은 불가한 일이오니 마음을 고쳐 잡으심이 옳은 줄로 아뢰오.”

김 예징의 말이 끝나자,
시중 의 종(義踪)이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장 보고는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무장이므로 그의 딸을 비로 맞이하심은 불가한 줄로 아뢰오.”

그러자, 이찬(2등 관직) 김 양순도 김 예징의 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장 보고에
대한 은공은 진해
장군으로 족하오니 따로
그의 딸을 비로 맞이하시겠다 하심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인·출로 아뢰오. 왕족
가운데에 얼마든지 좋은 여자가 있을 터이니 미천한
여자는 삼가하심이 가하나이다.”
대신들은 한결같이 장 보고의 딸이 미천한 집 태생
이란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이 혼사는 대신들
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아, 이 억울한 최후

“뭐라고? 대신들의 반대로 내 딸이 왕비가 될 수 없게 되었다고?”

청해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장 보고는 펄쩍 뛰었습니다.

“선왕(신무왕)이 약속하신 일인데, 제까짓 대신들이 무얼 안다고 혼사를 반대해?”

장 보고는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위로 솟구쳐
올라, 흥분을 가눌
수가 없었
습니다.



‘지금껏 선왕(김 우정)과 새 전하(김 경응)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돌봐 준 데에 대한 보답이 기껏 이
런 것이란 말인가.’

걸잡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은 왕족과 대신들에 대
한 반항의 마음으로 바뀌어 갔읍니다.

그는 즉시 청해진의 모든 부장을 한 사람도 빠뜨리
지 않고 불러들였읍니다.



“너희들은 듣거라!”

“예, 대사님!”

부장들도 이미 장 보고의 마음을 짊어 보고 노기가 등등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선왕과 새 전하를 위해 내 한 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 왔었다. 그런데, 새 왕조(王朝)는 내가 미친한 뱃놈의 자식이라고 하여 내 딸 나미가 왕비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장 보고는 옆에 놓인 찻잔을 들어 단숨에 마시고는,

“해적으로 들끓던 바다를 평정하고, 무역업에 힘써 창고마다 가득가득 군량미를 축적한 나……, 김 명의 무리에 쫓겨 이 곳 청해진까지 피신해 온 선왕과 전하 일가족을 보호하면서 오늘의 평화를 가져오게 한 나를, 신라 왕실이 외면을 하고, 내 딸



나미에게 시름을 안겨 주었으니, 도무지 이 욕스런
대우를 그냥 덮어 버릴 수는 없다! 난 부장들과 함
께 시라벌로 쳐들어가, 썩어 빠진 왕실을 뒤엎어 버
릴 테다!”





“부족한 저희들도
대사님의 뜻을 따
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겠습니
다!”

“저도 싸우겠습니
다!”

“대사님, 저도 목
숨을 바치겠습니
다!”

“저도요!”

“저도요!”

부장들은 저마다
주먹을 불끈 그러쥐
고 용맹스럽게 나섰
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내게도 새
힘이 솟는다. 한
달 동안 군비를
정돈하고 군력을
키워 서라벌을 정
벌하는 것이다. 알
았느냐?”

사태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장 보고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소문은 곧 서라벌 대궐 안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으음, 진해 장군에 대한 과인의 대접이 너무 소홀하게 된 것 같도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장 보고가 서라벌로 밀고 온다면 정녕코 이는 큰일이로다. 여러 대신들은 달리 묘책이 없소?”



왕은 두렵기도 하고, 또 장 보고에 대한 소홀했던 대
접이 새삼스레 죄스럽기도 해서 안절부절을 못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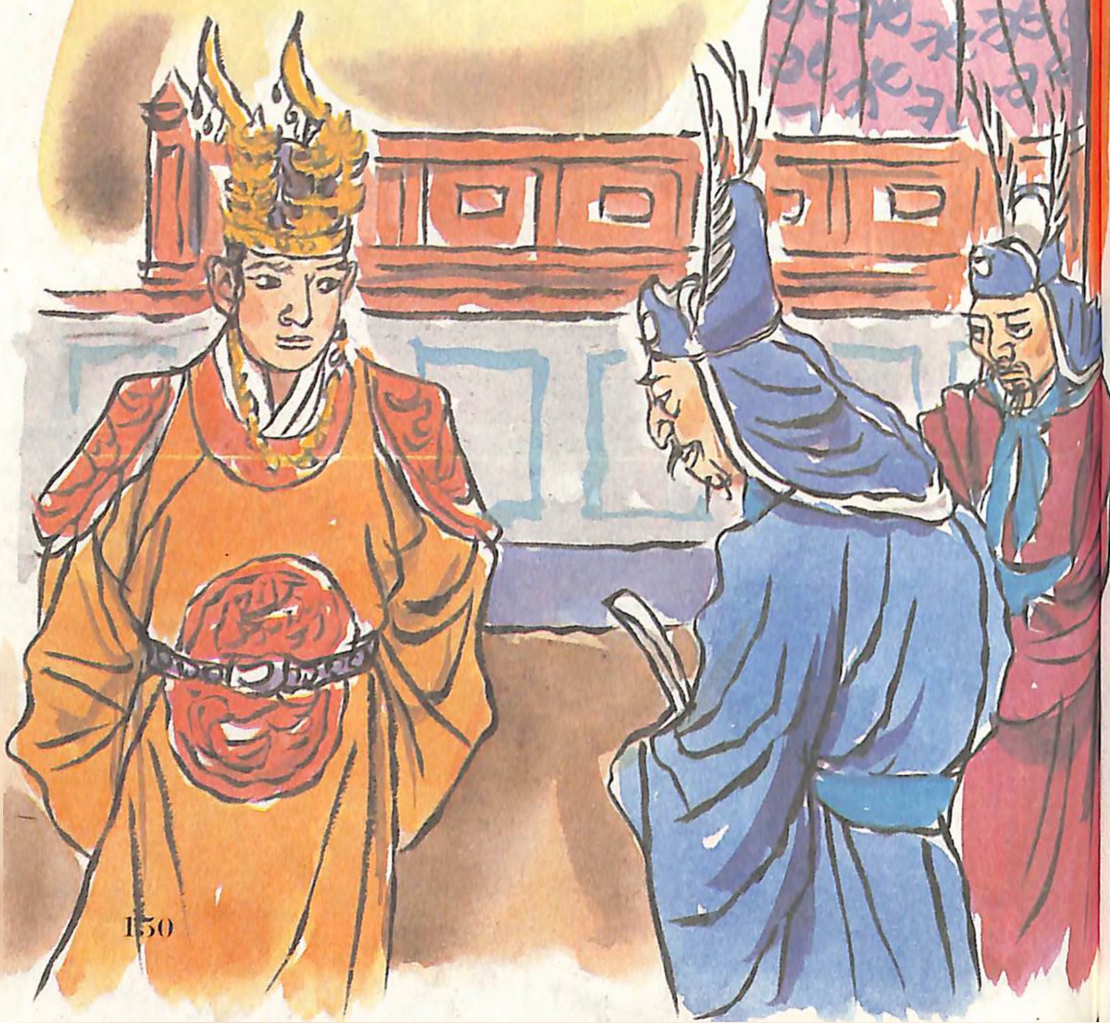
장 보고가 모반을 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대신들
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때, 김 명 일당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웠던 염 장
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소신에게 묘책이 있긴 합니다만…….”

“방법이 있다고? 어떤 방법인지 말하라.”

왕은 몸이 달았습니다.



염 장이 모삿군담계
재빨리 눈알을 굴리면서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청해진
으로 장 보고를 찾아
가겠사옵나이다.”

“찾아가서 어찌겠다는
말인가?”

“서라벌에서 죄를 짓
고 탈주해 온 죄인으
로 가장하여, 장 보고
의 뜻에 찬동하는 것
처럼 꾸미겠나이다.”

“그 다음엔?”

“그 다음 일은 신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하.”

“알았다. 춘각을 지체
치 말고 어서 떠나라!”

무신 염 장은 그 길로 남루한
옷으로 갈아 입고는 청해진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청해진에서는, 염 장을 맞이한 장 보고가 술자
리를 마련하고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흥건하게 술을 마
셨습니다.

“잘 왔다, 염 장. 그대가 서라벌에서 죄를 짓고 왔
다고?”





“예, 그렇습니다, 대사님. 이놈은 청해진에다 몸을 숨기려고 대사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대사님이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겠사오니, 거절하지 마시고 이 미천한 몸을 받아주시면 더없는 은혜로 알겠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하하하……. 내가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예, 대사님.”

“내가 왕궁을 치러 간다면 자네는 앞장 서주겠나?”

“여부가 있겠습니까, 대사님! 그렇지 않아도 왕실과 대신들의 하는 짓이 못마땅하던 참인데, 잘 되었습니다, 대사님.”

“좋아, 자네는 오늘부터 내 부장이다.”

“황송합니다, 대사님.”

“원, 천만에. 부장을 한 사람 더 얻었으니 오늘같이

즐거운 날이 또 어디 있겠나? 자! 내 술 한 잔 받게나, 염 장.”

“에, 에. 이놈의 술잔도 받으십시오, 대사님.”

“오냐. 어서 따라라! 하하하…….”

장 보고는 염 장이 따라 주는 술을 아무 생각도 없이 밤늦도록 마신 다음에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조차 가눌 수 없을 만큼 한껏 취한 장 보고는 쓰러진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 때, 염 장은 장 보고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잠이 든 청해진 대사의 가슴에 깊숙이 내려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장 보고는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숨이 끊어져 깨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청해진 대사 장 보고는 억울하고도 한 많은 일생을 마치고 만 것입니다.



동양의 해상을 주름

잡은 바다의 영웅

구 석 봉

〈전기 작가〉

우리 나라 역사상에서 바다의 영웅이라고 하면, 누구나,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이 순신 장군을 꼽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하는 장 보고는, 이 순신 장군보다 700여 년 전에 신라에 태어나, 나라의 어려움을 구한 바다의 왕자입니다.

이 순신 장군이 순수한 전략가임에 비해, 장 보고는 해적을 무찌르고 해상의 질서를 바로잡았으며, 국제 무역의 실권을 장악한 무인 겸 해운가(海運家)라 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아뭏든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와는 도저히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뛰어난 해상의 전략가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장 보고는 우리들이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가 태어난 연대며 성장한 기록은 자세히 전하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신라 흥덕왕 때 남해의 어느 어촌에서 태어났다는 정도이며, 당나라에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가 그 자리를 물려나 귀국한 후의 일, 그러니까, 그가 성인이 된 후의 기록만이 어느 정도 전하여지고 있으나, 그의 유년,



소년 시절은 전혀 알 길이 없어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라는 제 29대 태종 무열왕 시대와 제 30대 문무왕 시대에 걸쳐 당나라의 힘을 빌어서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여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 후 나라가 평화로와지자, 왕실의 황족과 귀족들은 차츰 당나라 문물을 받아들여서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화스러운 생활로 국방이 소홀해지자, 이 틈을 타서 왜구와 당나라의 해적들이 바다를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신라 왕실과 상류층은, 삼국 통일을 완수했다는 자만감과 안일한 국방 의식, 그리고 사치스러운 사생활로 인하여 매년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라 안에서는 한재가 자주 들고, 이름 모를 질병이 만연하여 백성들이 죽어 가는가 하면, 흉년이 들어서 평야 지대가 붉은 땅바닥을 드러내는 등 기근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상류층의 부패와 서민층의 기근,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굶주림으로 해서 도처에서 많은 도둑의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또, 국방력이 소홀한 틈을 타서 왜구와 당나라의 해적들이 해안 지방을 어지럽혔습니다. 해적들의 노략질은 날



이 갈수록 기승을 부려, 해안 지방에 살고 있는 신라의 청 소년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예가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계속되면 신라의 실권이 언제, 어느 나라 해적들의 수중으로 들어갈지 모를 판국이었습니다. 삼국 통일 이후 150여 년 간의 황금 시대는, 사실 상류 사회만의 황금 시대였지, 서민들에게는 질병과 기근과 해적과 도둑들의 피해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길고 긴 암흑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당나라 무령군의 소장 자리를 박차고 장 보고는 신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장 보고는 당나라의 소장 직위에까지 오른 무장이었으나, 이렇게 유능한 무장도 귀족 의식에만 젖어 있던 당시의 신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 보고가 당나라로 건너갔던 것도 사실, 신분의 차이가 심해 신라 사회에서는 도저히 출세할 수가 없었던 현실을 비관한 끝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장 보고는 귀국 즉시 청해진 대사로 임명받고, 일차적으로, 바다를 어지럽히는 해적 소탕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1만 명의 잘 훈련된 장 보고의 군사는 오래지 않아 바다



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무렵 신라 왕실은, 또다시 왕위 쟁탈전으로 피비린내나는 홍역을 치르게 되어, 서로 해치고 모반하고 음모하는 세월이 한동안 신라의 조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바다의 왕자요, 해상 무역의 실권자인 장 보고는 타의에 의해서 이 왕권 싸움에 말려들었습니다.

장 보고는 김 우징이 자기의 힘을 빌리고자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義)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맹이 없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장 보고는 의로운 장수이며, 의를 위해 살다가 간 자랑스러운 사나이입니다.

뒷날에 신라 왕실이 자기와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딸을 비(妃)로 맞아들이지 않자, 장 보고는 약속을 어긴 신라 왕실에 칼을 겨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장 보고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최후를 마쳤지만, 장 보고는 어지러운 신라 조야(朝野)에 우뚝 솟은 의(義)의 사나이요,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꺼지지 않을 바다의 영웅인 것입니다.

연 표

연대	나이	장 보고의 생애와 업적	
800~809?		신분이 미천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의 몇째 아들로 태어났는지 분명치 않으나 바닷가 어촌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됨.	
현덕왕 시 대	?	말을 잘 타고, 활과 창을 잘 다루어서 궁복(弓福)이란 이름으로 불림.	
?	?	미천한 신분 때문에 신라에서의 출세를 단념하고서 중국 당나라 쉬조우(徐州) 지방으로 건너감.	
?	?	정 연(鄭年)과 함께 쉬조우 지방의 무령군 소장(武寧軍小將)이 됨. 중국에서는 활을 잘 쏘고 말, 잘 타는 사람을 보고(保舉)라고 부른다 하여 이름을 장 보고로 고침.	
?	?	당나라 황제에게 해적 소탕을 건의. 당나라에 잡혀와서 노예로 고생하는 신라 소년들을 구출해 냄.	
홍덕왕 시 대	?	해적 소탕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어 신라로 돌아갈 것을 결심.	

연대	나이	장 보고의 생애와 업적	
828~836	?	무령군 소장직을 사임하고 혼자 신라로 돌아옴. 4월, 흥덕왕을 배알하고 해적들을 소탕할 것을 건의. 이 자리에서 장 보고는 청해진 대사에 임명되어, 왕이 내린 1만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의 완도 가리포에 부임함.	
836	?	12월에 흥덕왕이 승하하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짐. 현강왕의 조카 김 제룡이 희강왕으로 즉위.	
837	?	5월, 왕위 쟁탈전에서 패배한 김 우징이 가족을 데리고 청해진으로 피해옴. 무령군 소장으로 있던 장 보고의 옛 친구 정 연, 청해진으로 돌아옴. 6월, 아찬 김 예징과 김 양순 등도 청해진으로 피신해옴. 김 우징과 그의 일족, 김 예징, 김 양순 등은 장 보고의 막강한 세력과 결탁하여 왕위에 오를 계획을 세우게 됨.	

연대	나이	장 보고의 생애와 업적	
838	?	김 명이 반란을 일으켜 희강왕은 자살하고, 김 명이 민애왕으로 즉위. 2월, 김 양이 군사를 모아 청해진으로 옴. 청해진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김 우정은 정 연, 김 양과 함께 장 보고가 내준 5000여 명의 장병을 이끌고 서라벌 공격.	
839	?	민애왕을 죽이고, 김 우정이 신무왕으로 즉위. 신무왕은 장 보고의 은공을 생각하여 감의군사라는 벼슬과 식음 2000호를 내림.	
845	?	5월, 문성왕은 장 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으려 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함.	
846	?	장 보고는 왕이 자기의 딸을 왕비로 맞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라 왕실을 뒤엎을 계획을 세움. 그러나, 김 명 일당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웠던 염 장에게 속아 어이없게도 살해됨.	

학습 역사 인명 사전

감 수 / 심 경석(아동문학가 · 서울 서초국민학교 교장)
 <무순> 김 중상(아동문학가 · 서울 유석국민학교 교사)
 도 재희(아동문학가 · 서울 광장국민학교 교사)
 김 일환(아동문학가 · 서울 당곡국민학교 교사)
 최 영재(아동문학가 · 서울 신월국민학교 교사)

● 김 효원	162
● 나 도향	164
● 나 석주	166
● 나이팅게일	168
● 나폴레옹	171
● 난 센	174
● 남 이	178
● 낫세르	181
● 네 루	187
● 넬 슨	196
● 노 벨	199
● 노 자	203
● 논 개	205

● 이 <학습 역사 인명 사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 공부나 전기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역사 공부에 나오는 인물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큰 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데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므로 이 사전은 이런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金 孝 元
김 효 원 (1532~1590)

—신진 사림파의 대표—

조선 시대 선조 임금 때의 문신인 김 효원은 자를 인백(仁伯), 호를 성암(省庵)이라 했다. 그는 1532년(중종 27)에 현감 벼슬을 지낸 김 홍우(金弘遇)의 아들로 태어났다.

1565년(명종 20)에 문과에 급제한 후, 영남(嶺南)에 내려가 퇴계(退溪), 남명(南冥)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 무렵에 그렇게 시골 정원이나 산림에 묻혀 유학(儒學)을 공부하던 학자를 사림파(士林派)라 일컬었다.

선조가 즉위하자, 김 효원은 신진(新進)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조 정랑(吏曹正郎)의 벼슬자리에 천거되었다. 그러나, 사림파의 구세력인 이조 참의(吏曹參議) 심 의겸(沈義謙)에 의해 거부당했다. 그 까닭인즉 이러했다. 오래 전에 심 의겸이 공적인 일로, 당시 영의정이며 권세가 당당한 윤 원형(尹元衡)의 집을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 때 김 효원이 아예 이부자리까지 갖다 놓고 그 집에 묵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때문에, ‘그토록 권세 있는 자에게 붙어 지내며 아부하는 사람에게 이조 정랑의 벼슬자리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심 의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효원은 이조 정랑 벼슬을 따내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는 이듬해, 이번에는 사정이 뒤바뀌어, 누군지 김 효원에게 심 의겸의 아우 심 충겸을 이조 정랑(正郎) 자리에 앉혀 달라는 부탁을 해 왔

다. 이 때, 김 효원은 극구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다.

“심 의겸은 왕실과 인척이 되는 사람ियो. 그런 척족(戚族)에게 정랑 자리를 맡기는 것은 부당한 일ि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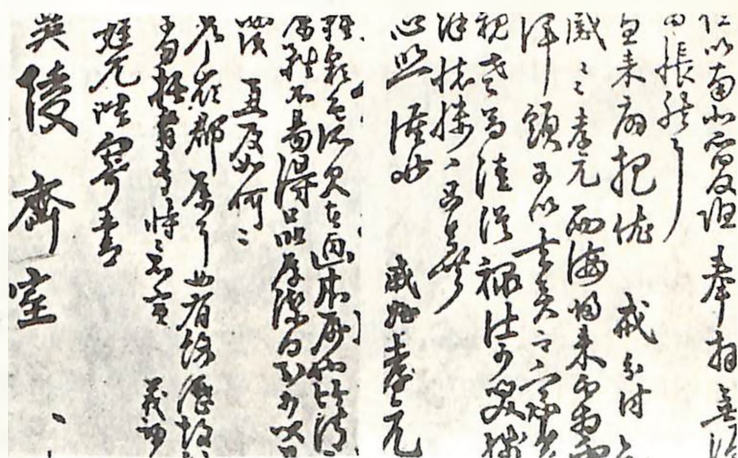
김 효원은 심 의겸이 전에 자기를 이조 정랑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꾀방을 놓은 데 대하여 보기 좋게 복수했던 것이다. 심 의겸은 김 효원의 얘기를 전해 듣자 화가 치밀어

“외척(外戚 : 자기를 가리킴)이 원흉(元凶 원형을 얹잡아 놀린 말)의 식객에게 질 줄 아느냐?”

고 소리쳤다. 그리하여, 이들 사림파 중에서 신진 사림파와 기성 사림파로 갈리게 되었는데, 신진 사림파의 대표는 김 효원이었고, 기성 사림파는 심의겸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 효원의 집은 동쪽, 심 의겸의 집은 서쪽에 위치했으므로 동인과 서인의 두 파로 갈려 당쟁의 근원이 되었다.

1583년(선조 16) 당쟁이 더욱 심해지자, 김 효원은 그런 싸움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뉘우치고, 스스로 시골의 한직을 택하여 내려가 있으면서 자숙했다. 뒤에 선조의 특명으로, 영흥부사(永興府使)로 승진하여 재직 중인 1590년(선조 23)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김 효원의
글씨(오른쪽)
와 심 의겸의
글씨(왼쪽)

A photograph of two vertical calligraphy scrolls. The scroll on the left is written by Kim Hyowon and the one on the right by Shim Iggyeom. Both are in traditional Korean calligraphy style (Seoye). The left scroll has the signature '英後齋' (Eonhaejae) at the bottom. The right scroll has the signature '成齋' (Seongjae) at the bottom. The text on the scrolls is a mix of vertical columns of characters, some of which are in a more cursive style.



羅 稻 香
나 도 향 (1902~1926)

—날카로운 필치의
천재 작가—

나 도향은 1902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그의 본명은 나 경손(羅慶孫)이며, 도향과 빈(彬)은 그의 호이다.

그는 1919년 배재 고보를 졸업한 후, 경성 의전(京城醫專)에 진학했으나, 곧 문학 수업에 뜻을 두고 의학 공부를 중단할 결심을 세웠다. 그러한 결심이 서자, 그는 가족 몰래 일본으로 건너가 고학을 하며 문학 수업에 전념했다. 그러나, 학비 조달이 어려워 곧 귀국하고 말았다.

그 이듬해인 1920년, 그는 안동(安東)에서 1년 동안 보통 학교(지금의 국민 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계속 문학 공부를 했고, 1926년에는 중편 소설 《청춘》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처녀작은 아니었다. 그는 그보다 5년 앞선 1921년에 처녀작 《추억》을 《신민 공론(新民公論)》이라는 잡지에 발표했으며, 홍 사용(洪思容), 현 진건(玄鎭健)이 상화(李相和), 박 종화(朴鐘和) 등과 함께 문예 동인 잡지 《백조(白潮)》를 창간하여, 《젊은이의 시절》 《별을 안거든 우지나 말걸》 《옛날 꿈은 창백하더이다》 등의 단편 소설을 발표했다.

또한, 1922년에는 그의 첫 장편 소설인 《환희(幻戲)》를 《동아 일보》에 연재하여 천재 작가로 불리기도 했으며, 1923년에는 《17원 50전》 《은화와 백동화》 《춘성(春星)》 《행랑 자식》 《여이발사》 등을 발표하여, 초기의 낭만주의 작품 세

계에서 벗어나 사실주의 경향으로 탈바꿈했다. 그 무렵, 그는 『시대일보』라는 신문의 기자로 1년 동안 활약하다가 다시 『어명(黎明)』의 농인이 되어 계속 좋은 작품을 발표했다.

1924년에는 그의 대표작으로 인정받는 《계집하인》《병어리 삼룡이》《물레방아》《꿈》《뽕》등 주옥 같은 단편을 계속 발표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듬해, 보다 넓은 작품 세계를 갖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역시 생활의 어려움으로 오래 견디지 못하고 곧 귀국했다.

그러나 그 때,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 생활로 일정한 거처도 없이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 무렵의 무질서한 생활 때문에 그는 폐병을 앓게 되었고, 《지 형근(池亨根)》《화염에 싸인 원한》 등의 소설을 발표했으나, 결국 건강을 회복지 못하고 1926년, 24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





羅 錫 疇
나 석 주 (1892~1926)

—서른 네 살의
장렬한 순국—

“두고 보아라, 이놈들아! 다음번에는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생길 테니!”

서른도 채 안 되어 보이는 한 젊은이가 산골짜기에 앉아

남쪽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불과 한 시간 전에 상월면(上月面: 황해도 평산군의 한 면 소재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상월면 사건이란 그 곳 주재소(지금의 파출소)에 근무하는 일본 순사와 왜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한국인인 상월면 면장을 살해한 사건이다.

그는 1892년(고종 29)에 황해도 재령에서 나 병헌의 아



들로 태어나 그 곳 명신 학교에서 2년간 공부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하느니보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을 하는 것이 보람되고도 급한 일임을 깨닫고, 23세 때에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 무관 학교에서 4년 동안 군사 훈련을 받고 항일 공작원으로 일하다가 상월면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다.

나 석주는 그 길로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서 임시 정부의 경무국 경비원을 지내다가 허난 성에 있는 한단 군관 학교를 졸업하고, 한때는 중국군 장교로도 복무했으며, 김 구 선생의 의열단에 들어가 계속 항일 운동에 힘썼다. 그러던 1925년 12월, 그는 일본이 우리 나라를 착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동양 척식 회사와 식산 은행을 파괴할 목적으로 당시 의열단 고문이던 김 창숙과 의논한 뒤 서울로 숨어들었다.

1926년, 먼저 전기공으로 가장하여 식산 은행에 잠입한 나 석주는 폭탄을 던져 많은 일본 사람들을 죽인 다음, 동양 척식 회사로 달려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던진 폭탄이 불발하고 말았다.

나 석주는 권총을 발사하여 수라장을 만들고는 재빨리 몸을 피하여 이번에는 다시 조선 철도 회사로 내달렸다. 여기서도 많은 일본 사람들을 죽인 나 석주는 달려온 일본 순경들에게 쫓기어 을지로에 이르렀는데, 끝까지 일본 순경들과 접전을 벌였지만 혼자 힘으로는 당해 낼 수가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발로, 일본 순경의 총탄에 죽는 치욕을 남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4세의 젊은 나이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나 석주에게, 나라에서는 1962년 대한 민국 건국 공로 훈장 복장(復章)을 수여했다.



나이팅게일 (1820~1910)

— 전쟁터의

백의 천사—

1854년, 크림에서 영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전세는 영국측에 유리했으나, 부상을 입은 많은 병사들이 초라한 바라크 속에서 제대로 간호도 받지 못하고 죽어 갔다.

그 때, 간호원 한 사람이 육군 장관 시드니 하아버드에게 종군을 지원한다는 편지를 냈다. 그리고 1854년, 이 간호원은 38명의 대원을 이끌고 전장으로 향하여, 1 만 명이 넘는 환자와 전상자를 간호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했다. 이 간호원이 곧 나이팅게일이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태어났으나, 영국 본토로 가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양친은 상류 가정에 시집 보낼 생각이었으나, 어린 시절부터 환자를 간호하는 놀이를 좋아한 그녀는 부모들과는 생각이 달랐다.

그 무렵의 간호원이란 매우 낮은 신분이어서 멸



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녀는 간호원이 될 것을 결심하고, 의학이나 위생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도이칠란트의 수도원 병원에서 간호학을 익혔다. 그 후 영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런던의 한 병원에서 간호원장이 되었다. 그 때 그녀의 나이 33세였다.

이듬해 크림 전쟁이 한창일 때, 부상병들의 비참한 보도를 듣고 그녀는 즉시 지원했다. 당시 영국에서는 여자가 육군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스쿠타리에 상륙하여, 초라하고 불결하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바라크 병실에서 6개월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스무 시간을 일했다.





그녀는 동료 간호원
을 격려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면서 병원의
개선에 힘썼다. 환자들
의 옷이나 병원의 청
결 및 식사에 이르기
까지 신경을 써서 어
머니와 같은 인자한
마음으로 부상자들을
돌보았다. 병사들은 그
녀를 <크림의 천사>라
고 불렀고, 어느 종군
기자는 그녀가 어두운
밤에 작은 램프를 들
고 전상자들을 돌보는
가룩한 모습을 <램프
의 천사>로 보도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은 이 기사에 크게 감동했다.

1856년, 전쟁에서 개선한 그녀에게 국민들은 5만 파운드의 감사금을 전했다. 그녀는 이 돈으로 간호원 양성을 위한 간호 학교를 세웠고, 그 밖에 위생 관념을 높이고, 시설의 개량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그녀의 박애 정신은 적십자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1907년에 나이팅게일 상이 제정되어 훌륭한 간호원에게 주어지고 있다.

나이팅게일은 1910년 8월 13일, 90세의 고령으로 세계 사람들의 아픔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났다.



나폴레옹 (1769~1821)

—전 유럽을 정복한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769년 8월 15일, 코르시카 섬의 아야치오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가난했으나 아버지는 귀족이었으며, 어머니는 현명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열성적이었다.

나폴레옹은 13형제 중의 둘째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조그만 몸집에 머리만 크고 싸움을 잘했다. 10세 때, 프랑스로 건너가 브리엔 유년 학교를 거친 다음, 1785년 사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포병 소위가 되어 복무하는 틈틈이 많은 책을 탐독하여 자유를 동경하게 되었고, 《코르시카 섬의 역사》를 써내기도 했다.

1796년, 이탈리아 원정 당시의 나폴레옹



1789년, 프랑스 혁명을 맞아 한때 코르시카에 돌아가 독립 운동에 참가했고, 1793년, 혁명 전쟁에 참가하여 툴롱 항 탈환의 포병 지휘관으로 활약했으며, 이듬해 이탈리아 전선의 여단장으로 서 두각을 나타냈다.

나폴레옹은 1796년 3월에 조제핀과 결혼했고, 그 해 3월에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되어, 이어 오스트리아 군 및 이탈리아 군을 격파한 후 1797년 10월에 개설했다.

1798년에 이집트를 원정하고 카이로에 입성했는데, 그 뒤 본국의 정치 정세가 어지러워지자 단신 귀국하여, 1799년 11월에 제1통령이 되어 군사 독재의 실마리를 얻었다.

1802년, 종신 통령에 취임한 나폴레옹은 국내의 평화를 위해 학제, 행정, 징세 제도 등을 개혁했고, 재정의 재건, 자본가의 보호, 공업의 발전 등을 장려했으며, 특히 《나폴레옹 법전》을 펴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비롯해서 법 앞





1812년, 러시아 원정에서 패하고 퇴각하는 나폴레옹

에서의 만인의 평등, 재산의 불가침 등의 조항이 간결 명료하게 표현되어 근대적 법전의 모범이 되었다. 1804년 12월 2일, 황제가 되어 대관식을 가짐으로써 나폴레옹 1세가 되었다.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했으나 오스트리아·러시아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도이칠란트를 휩쓸었으며, 1806년 대영 대륙 봉쇄를 강화하여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네덜란드를 정복함으로써 사실상의 전성기를 맞아 전 유럽을 지배했다.

그러나, 1812년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1813년 라이프찌히에서 프로이센·러시아·오스트리아의 연합군에 패하여 파리가 함락되자, 이듬해 그는 엘바 섬에 유배되었다.

루이 18세가 복위한 후 1815년 3월, 다시 소수의 병력으로 파리에 들어와 제위에 올라 <백일 천하>를 누렸으나, 6월 18일의 워털루 싸움에서 패하고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1821년 5월 5일, 그 곳에서 사망했다.



난 셴 (1861~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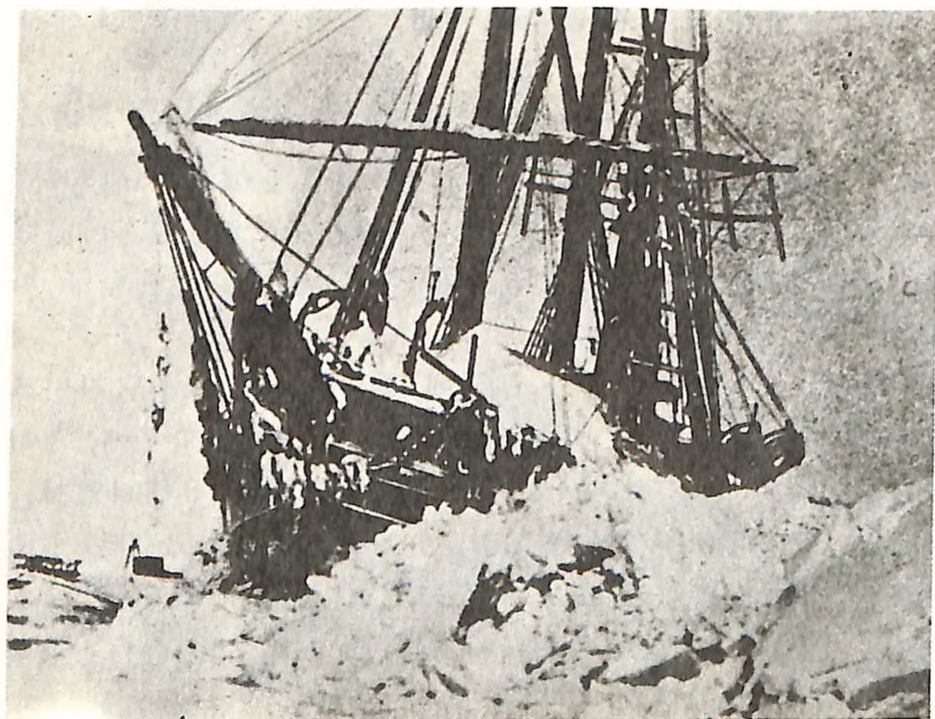
— 노르웨이의

북극 탐험가—

난센은 1861년 10월 10일, 노르웨이의 수도 크리스차니아(지금의 오슬로)에서 법률가인 아버지 베르줄 난센과 어머니 아데라이트 웨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9세 때에는 스케이트 대회에 나가 1마일 경주에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크리스차니아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하였으며, 1882년

얼음에 갇힌 난센의 북극 탐험선 프람 호





대학을 졸업한 후 바다표범 수렵선인 바이킹 호를 타고 그리인란드를 탐험하고 돌아온 후, 베르겐의 자연사(自然史) 박물관에서 미생물 연구에 종사했다.

24세 때인 1885년에, 베르겐 자연사 박물관에서 연구 업적 공로로 금 메달을 받았고, 다음 해에는 이탈리아의 나폴리 수족관에서 해양 동물을 연구했다.

1888년에도 그리인란드를 탐험했는데, 이 때 처음으로 그리인란드를 횡단하는 데 성공했다. 이 탐험을 끝내고 1889년에 해양 동물 연구가의 딸 카엘 에바와 결혼했고, 탐험 보고로 《그리인란드 최초의 횡단》과 《에스키모의 생활》 등의 저서를 펴냈다.



1893년에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 프람 호를 타고 크리스차니아 항을 떠나 북극해의 얼음산에서 겨울을 나고, 1895년 3월에 북위 83도 59분 지점에까지 가서, 요한센과 함께 프람 호에서 내려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북위 86도 14분 지점에 도달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북쪽에 도달한 셈이었다. 이때, 북극에는 육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탐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조난을 당했다가, 이듬해 6월, 영국 탐험가인 프레데릭 잭슨에게 구조되어 8월에 무사히 함멜페스트로 돌아왔다.

그는 이 때의 탐험 기록을 담은 《최북(最北)》《노르웨이 북극 탐험》(1900~1906) 등을 발표하였다.

1897년에 오슬로 대학 동물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다음 해에 국제 북극해 연구소장으로 선임되었다.

1905년에 노르웨이가 스웨덴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하자, 초대 영국 대사가 되어 3년간 근무했다. 1908년에 대사를 사임하고 오슬로 대학 해양학 교수로 취임했고, 북대서양과 시베리아를 탐험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국제 연맹 결성에 노력했으며, 192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 해에 《시베리아를 지나서》를 썼고, 그 뒤 《아르메니아를 지나서》 등의 저서를 냈다.

난센은 이처럼 다방면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1930년 5월 13일, 69세의 생애를 마쳤다.

1896년 5월, 노르웨이 건국 기념일을 축하하는 프람 호 승무원들





南
남

怡
이

(1441~1468)

— 포부를 이루지
못한 조선의 장군 —

남 이는 조선 시대 세조 임금 때의 장군으로, 1441년(세종 23)에 의산군(宜山君) 휘(暉)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태종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장성하여서는 당시 좌의정을 지내던 권 남의 네째 딸을 아내로 맞아 그의 사위가 되었다.

1457년(세조 3)에는 16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여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이 시애(李施愛)가 난을 일으킨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다.

이 시애는 대대로 함경도 지방에 살던 호족 출신의 아들로, 당시 벼슬이 회령 부사였다. 그런데, 세조가 벼슬자리에 북쪽 지방 사람을 쓰지 않고, 중앙에서 직접 뽑아 파견하는 등 중앙 집권을 강화하자 자기의 벼슬자리가 위태롭다고 느끼고 1467년, 당시 군사권을 쥐고 있던 강 효문(康孝文)과 그의 부하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을 평정하는 데에 남 이는 큰 공을 세웠고, 그 뒤 여진족의 본거지인 건주위(建州衛)를 칠 때에도 큰 공을 세워 1등 공신이 되었으며, 26세의 젊은 나이로 병조 판서가 되었다. 그러자 많은 신하들이 그를 시기했으며, 그 중에서도 유 자광(柳子光)이 특히 심했다.

남 이가 병조 판서에 오른 이듬해인 1468년 9월,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예종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 무렵,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남 이는 그 날 숙직을 하다가 밤하늘에 혜성이 나타난 것을 보고, ‘혜성이 나타난 것은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나게 하려는 징조다’라고 말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유 자광이 둘러대어, 남 이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예종에게 일러바쳤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남이가 여진 정벌 때 압록강에서 읊은 시도 다르게 꾸며 예종에게 들려 주었다.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없앨 것ियो,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없애겠다. 사나이가 나이스물에 나라를 평정치 못하면 후세에 누가 그를 사나이라 하겠느냐.’라는 시 맨 끝 귀절을 ‘사나이 나이스물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이라 고쳐서, 남이가 반역을 꿈꾸고 있다고 없는 말을 꾸며댄 것이다.

그러자 예종은, 그러잖아도 세조 때부터 남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오고 있던 터라, 유자광의 고자질을 기회로 남이는 물론, 그와 가까웠던 강순(康純), 조경치(曹敬治) 등 술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리하여 남이는 그를 시기한 유자광의 모함으로 아까운 나이스물 일곱에 억울하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 세 르 (1918~1970)

—아랍 민족주의의 기수—

통일 아랍 공화국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한 아랍 민족의 지도자 가말 압델 나세르는 1918년 1월 15일, 이집트의 베니모르에서 태어났다.

우체국 사무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카이로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으며, 20세 때 영국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하였다. 보병 소위가 된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때에 알렉산드리아로 파견되어 영국군 전선 부대의 후방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이집트는 영국의 지배하에 있는 독립국이었는데, 나세르는 항상 자기 나라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청년 장교들로 구성된 <자유 장교단> 이집트 혁명을 이끈 장교들로, 왼쪽부터 나세르, 나기브, 오른쪽 끝이 사다트.



바라는 마음으로 불타 있었다.

1948년, 나세르는 소령이 되어 팔레스티나 전쟁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써 휴전이 되었다.

나세르는 부상한 몸을 치료하기 위해 쉬고 있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였다.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의 생각은 국가가 부패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굳어졌다. 그는 당시의 국왕 파루크 1세의 정부를 쓰러뜨려야겠다고 생각하여, 청년 장교를 모아 <자유 장교단>이라는 비밀 단체를 조직하였다.

1952년 7월, 드디어 나기브 장군과 함께 쿠데타에 성공한 그는 파루크 1세를 국외로 추방하고 혁명 위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축하 퍼레이드를 벌이는 젊은 장교들 1952년 7월 23일, 혁명에 성공한 혁명 위원회의 젊은 장교들이 축하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차 위의 모자를 든 사람이 나기브, 그 옆에 모자를 벗은 사람이 나세르다.

이로써, 그는 영국에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던 봉건적 세력, 즉 파루크 1세의 정부를 없애고 영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민족 해방의 주체성을 확립한 것이다. 1953년 6월에는 토지 개혁을 단행하여 공화국을 선언했다. 그 후에 나세르는 나기브 밑에서 부수상 겸 내상으로서 정부의 실권을 손아귀에 넣었다. 그러나, 건설 정책과 혁명 방식에서 그는 나기브와 뜻이 맞지 않았다. 드디어 나세르는 나기브를 물리치고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비동맹주의의 외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티토 및 네루와 친교를 맺었고, 반동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도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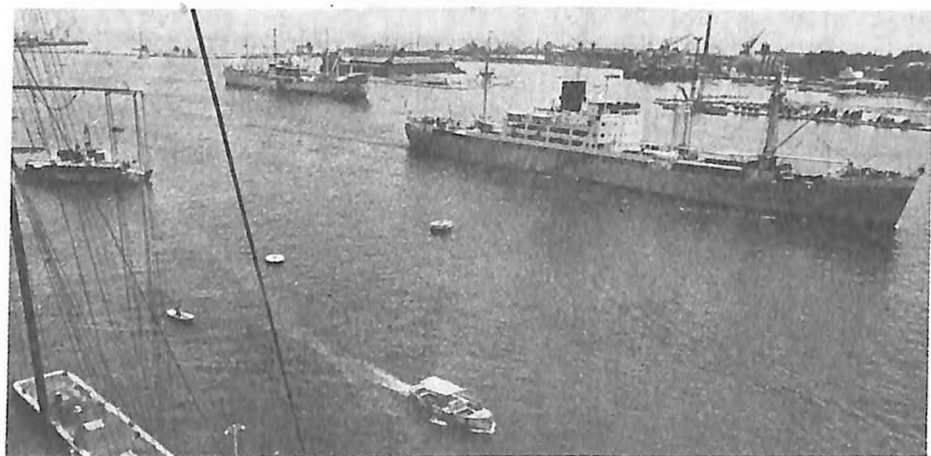
1956년 6월, 드디어 영국군을 철수시키는 데 성공한 나세르는 새 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된 뒤 그는 정치, 경제면에서도 자주적인 독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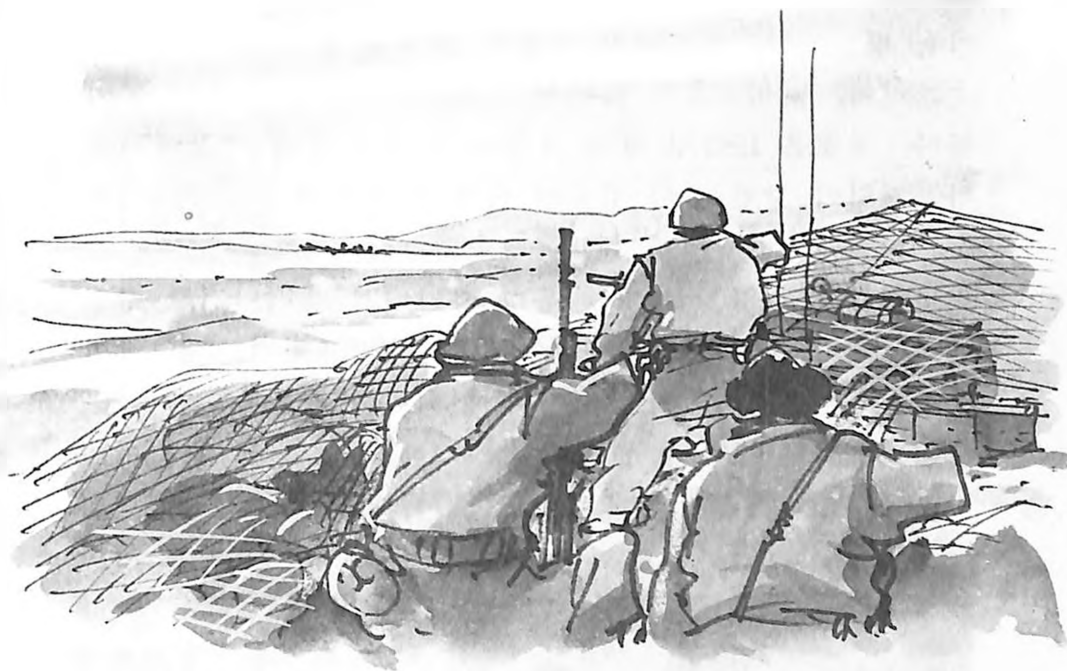
그 해 7월에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맞서 반대했던 영국, 프랑스의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이것은 수에즈 운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아랍 여러 민족의 강한 유대를 보인 것이며, 나세르의 업적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1958년 9월, 시리아와의 합병에 의해 이집트의 국명은 통일 아랍 공화국이 되었으며, 나세르는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67년 9월, 시리아가 통일 아랍 공화국에서 분리하여 나간 뒤에는 국내의 사회주의적 건설에 노력하였다.

아랍 여러 나라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한 유대인의 이스라엘과 줄곧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 이유는 민족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아랍 민족이 믿는 이슬람 교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 교와의 대

나세르가 국유화를 선언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킨 수에즈 운하





결에서 오거나 또는 두 민족이 역사적으로 고대에서부터 대결해 온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정치적인 것이 더욱 큰 이유가 되어 있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인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존권을 아랍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1956년,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데 반대하여 영국, 프랑스가 이집트를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이 영국, 프랑스의 세력에 가담한 것이 큰 불씨를 안게 된 것이다.

아랍 여러 나라의 지도자가 된 나세르는 아랍 민족을 단결시켜서 이스라엘과의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이스라엘의 세력 증대에 위협을 느껴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나세르는 또 한 번 아랍주의, 중립주의, 반서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나세르주의를 주장하여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환

영을 받았으며, 아프리카인들의 정치적 구심점이 되었다.

그러나, 나세르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실패의 날이 왔다. 그것은 1967년 6월 5일에 일어난 중동 전쟁에서였다. 전력의 강한 아랍 민족이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것이다.

나세르는 책임을 느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그가 자신의 결심을 국민들에게 발표하자, 온 국민들은 그를 만류하였다. 하는 수 없이 나세르는 그 다음 날, 물러나겠다던 뜻을 바꾸었다. 그 뒤에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아랍 혁신 세력의

나세르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집트 국민들



중심적 지도자로 활약했다.

나세르는 정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내정에도 힘써 1960년에는 에스원 댐을 건설하여 상습적인 홍수 지역을 옥토로 바꾸었으며, 연간 100억 킬로와트라는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여 공업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도 했다.

1970년 9월 28일, 뛰어난 정치가 나세르는 심장병의 발작으로 카이로에서 사망했다.



네 루 (1889~1964)

—현대 인디아의 지도자—

인디아의 독립 운동가이며 위대한 정치가인 판디트 자와 할랄 네루는 전세계 비동맹 운동의 기수로서 세계의 하늘 높이 셋별처럼 빛나는, 아시아가 낳은 위인이다.

네루의 선조는 학자였지만, 캐시미르 지방으로부터 델리에 이사 온 후로는 대체로 사법관 또는 행정관으로서 국왕을 섬겨 왔다. 그리고, 아버지 모틸랄은 엘리하벳에 이사하여,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인디아 국민을 위해 변호사로서 활약했다.

네루는 이러한 인디아의 상류 가정에서 1889년 11월 14일에 태어났는데, 오늘날 이 탄생일은 인디아의 어린이날로 정해져서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네루는 어린 시절을 영국인과 인디아인의 두 가정 교사 밑에서 배우며 자랐다. 그가 10세 때 새로 지은 커다란 저택으로 이사했는데, 그 집에는 넓은 정원과 푸을 장이 있었다. 그 때의 인디아에서는 푸을 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1905년 5월에 16세의 나이로 영국 유학을 떠난 네루는, 런던에서 명문의 자제들밖에 들어갈 수 없는 헤로우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한 후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하여 자연과학인 식물학과 지질학을 전공했다. 그 후 1910년,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대학을 나온 네루는 2년 동안 더 머무르면



네루의 어린 시절

서 변호사 면허증을 따 가지고 1912년 가을, 7년간의 영국 생활을 마치고 인디아로 돌아왔다. 네루는 “내가 런던의 해로우와 케임브리지에서 배운 것은 절대로 친구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유럽의 사상을 잘 알게 되고, 특히 사회 민주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된 것이라든지, 비행기와 비행선 등 근대 과학

학의 발달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디아에 돌아온 네루는 얼마 동안 엘리하벳 고등 법원에서 근무했는데, 그 생활에서 그는 도저히 일할 의욕과 보람을 느낄 수 없었다.

그 무렵, 훨씬 이전에 영국으로부터 인디아의 자치를 도모할 목적으로 인디아 국민 회의파가 조직되어 있었다. 네루의 아버지도 그 중 한 사람으로서 활약하고 있었지만, 그 운동은 조금도 진척이 없었다. 네루는 인디아의 국민들이 영국 통치자들로부터 착취와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피부로 느껴 보지는 못했다. 당시 마하트마 간디는 남 아프리카에서 아직 인디아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였다.

1914년 7월,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전쟁이 끝나면 인디아에 자치를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인디아 국민을 전쟁으로 내몰았다.

이처럼 전쟁이 한창인 1916년 3월, 네루는 캐시미르 출신인 카발라와 결혼하여 그 이듬해에 딸 인디라를 낳았다.

이 무렵부터 네루는 인디아 자치 획득 동맹과 국민 회의파에 가입하여 활약하다가, 1916년에 열린 럭나우 대회에서 처음으로 간디와 만나게 되었다. 또한, 이 대회에서 인디아의 유명한 시인이며 애국자이기도 한 사룰디니 나이주 여사의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마침내, 5년 동안에 걸친 지루한 전쟁이 끝났으나, 영국은 인디아에 자치를 부여하겠다는 앞서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인디아인의 민족 운동을 단속하기 위한 <로우러트 법안>이라는 식민지 통치 강화법을 제정했다. 그리하여 1919년부터, 간디를 지도자로 한 국민 회의파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영국에 대해 협력하지 말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처럼 영국에 대한 비협력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1920년, 네루는 농촌을

밟았을 때의 네루 부부

순회하며,

비참한 생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농민들을 만나보고서야 비로소 인디아의 참 모습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 대해 네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20년 6월에 나는 동지 몇 명을 거느리고 처음으로 멀리 떨어진 벽지의 고을들을 순회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벌어진 누더기를 걸쳤으며, 그 얼굴 표정은 길고도 지루한 이 비참한 생활을 빨리 끝나게 해 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고 자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가슴이 미어질 듯한 분노로 잠자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맨발에, 굶주림에 무참히 짓밟히는 인디아, 이것은 나에게 있어 너무도 새로운 인디아였다.”

그 후 인디아가 독립될 때까지 네루는 조국 독립을 위하여 전력을 다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는 차츰 책임 있는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인디아의 독립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우국 지사들을 혹심하게 탄압했다. 1921년, 네루도 처음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며, 그 뒤 아홉 차례에 걸쳐 체포되어 10년 이상의 세월을 형무소 안에서 보냈다. 그 동안, 그는 외딸인 인디라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딸에게 들려 주는 세계 역사》와 조국의 진로를 제시하는 《인디아의 발견》, 그리고 《인디아의 통일》 등을 집필하였다.

1934년, 일곱 번째의 복역 중에 카말라 부인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으므로, 네루는 아내의 병문안을 위해 잠시 동안의 형무소 출감을 허락받았다. 2개월 후에 다시 병문안을 갔을 때, 그녀는 조그만 목소리로 ‘당신이 정부 당국에 대해 더 이상 정치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소문

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고 남편에게 속삭였다고 한다. 네루의 가족들은 부모를 비롯하여 아내까지도 여러 차례 연행되어 고문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해, 아내가 요양을 위해 유럽 여행을 떠날 때, 형무소에서 갓 나온 네루도 아내를 따라서 유럽으로 떠났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다. 이 무렵에, 네루는 국민 회의파의 의장으로 선임되어 인디아에서 간디 다음 가는 지도자가 되었다.

네루는 간디를 충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견해를 같이했던 것은 아니다. 네루는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었지만, 간디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아 네루와 간디는 서로 결속되어 온갖 박해에도 굽히지 않고 독립을 추구하는 인디아 민중의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다고 할 수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 네루는 거의 대부분의 날들을 형무소 안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벌인 민족 운동으로 말미암아 대전이 끝나자,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인디아를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시켜 주었다. 그러나, 서글프게도 인디아는 이슬람 교도가 많은 파키스탄과 힌두 교도가 많은 인디아 연방으로 갈라져 독립하게 되었다.

1947년 8월 15일, 인디아가 마침내 독립하여 공화국이 되자, 네루는 신생 공화국의 수상 겸 외상으로 취임하였다. 그 전야제에서 네루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1946년 7월에
개최된 국민 회의
파의 한 위원회에
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네루(왼쪽)
와 간디



“한밤중에 알리는 종 소리와 함께 인디아는 드디어 암
흑으로부터 벗어나 광명과 자유를 찾게 되었다. 이제 과
거는 끝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 내야 하는 미래뿐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분
(간디)의 유일한 희망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
는 일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는 일인지
도 모른다. 그러나, 눈물과 고통이 있는 한 우리의 노력
은 영원히 끝날 수가 없을 것이다.”

네루는 철저한 평화주의자였다. 전쟁이 끝난 후 자유주
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자,
그는 그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그 중간에 서서 두 진
영을 화해시키려고 무한히 노력했다. 또한, 독립은 했지만
고질적인 무지와 빈곤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저개발 농업국
인 인디아를 구제하여 보려고 심혈을 다 기울였으나, 끝내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1964년 5월 27일, 뉴우델리에서
75세의 생애를 마쳤다.



넬슨 (1758~1805)

—영국의 위대한 해군 제독—

〈해군력의 화신〉으로 일컬어지며, 해군사상 가장 위대한 지휘자로서 알려져 있는 호레이쇼 넬슨은 1758년 9월 29일, 영국 노오퍽셔의 버어넘도오프에서 태어났다.

그는 외삼촌 모리스 서클링 선장의 권유와 도움을 받아, 12세 때인 1770년에 해군에 입대하였고, 19세 때에는 해군 대위로 진급하였으며, 미국 독립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서인도 제도에서 영국 함대의 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

넬슨



1787년, 29세가 된 그는 의사의 미망인인 프랑시스 니스베 부인과 결혼하였다. 1793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그는 지중해 방면으로 나아가 싸웠고, 이듬해 코르시카 점령에 큰 공을 세웠다. 이 때 오른쪽 눈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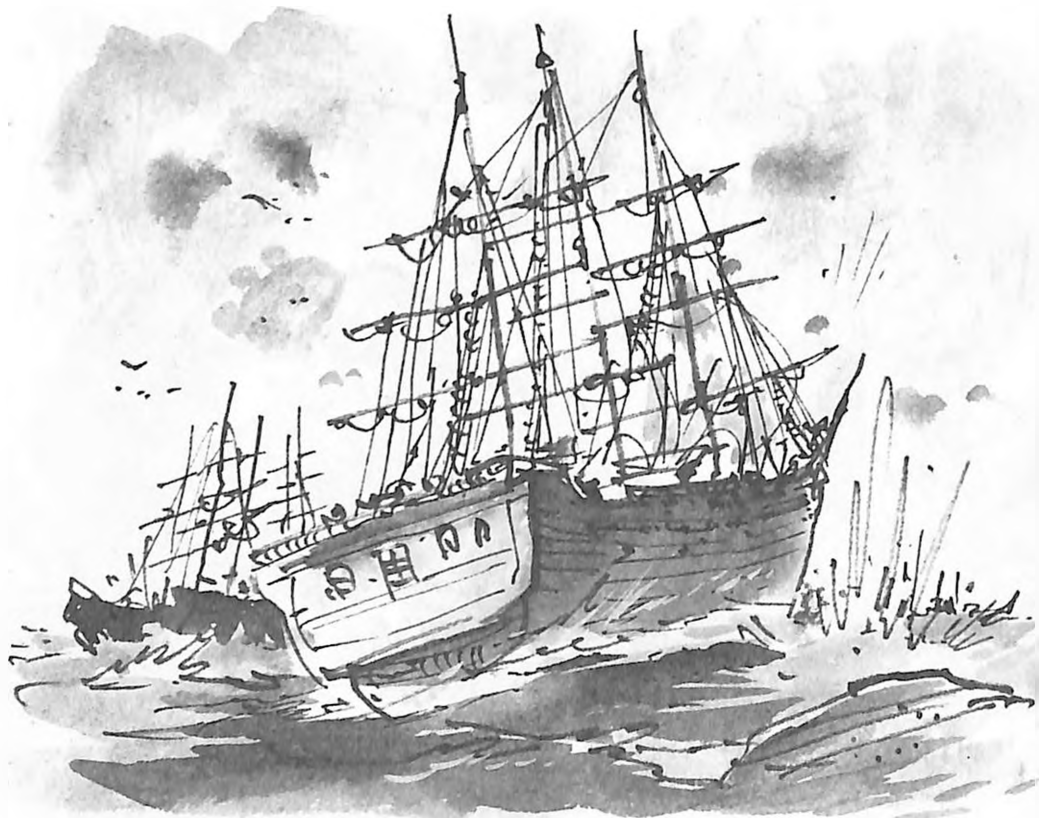
1797년 2월 14일, 넬슨은 세인트빈센트 해전에서 에스파니아 함대 격파에 공을 세워 바아드 훈장을 받았으나, 그 해 7월 24일,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항구 공격에서 오른팔을 잃었다.

1798년 초, 프랑스 군이 이집트에 상륙하려 하므로 넬슨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진격하여 완전히 격멸시켰다. 이로 인해 넬슨은 <나일 강의 넬슨 남작>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프랑스 군의 이집트 상륙을 봉쇄하기 위해 나폴리에 머무를 때, 넬슨은 개인적인 일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 곳에 와 있는 영국 대사 윌리엄 해밀튼의 아내인 해밀튼 부인과 알게 된 그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 곳에 머물렀으며, 나중에는 병을 구실로 해밀튼 부부를 따라서 귀국하였다. 그 뒤, 런던 교외에 별장을 마련한 그는 해밀튼 부부를 그 곳에 초청하기도 하였다. 1801년 초, 넬슨은 마침내 아내와 이혼하고 해밀튼 부인과의 사이에서 딸 호레이샤를 낳았다.



1803년에 프랑스와의 전쟁이 재개되자 그는 지중해 함대 사령관이 되었고, 2년 동안 프랑스 함대를 틀롱에 봉쇄하여 나폴레옹의 영국 본토 상륙 작전을 방해하였다.

그의 마지막 교전은 1805년 10월 21일, 지브롤터 근처의 트라팔가에서 있었다. 그는 프랑스·에스파니아 연합 함대 33척을 맞아 27척으로 대항하였다. 이 싸움에서 영국 해군은 프랑스·에스파니아 연합 함대를 격멸, 영국 해상권의 강진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넬슨 자신은 전함 빅토리 호 위에서 전사하였다.

영국 해전사상 넬슨이 이룩한 공적은 영구 불멸의 것으로 전해진다.



노 벨 (1833~1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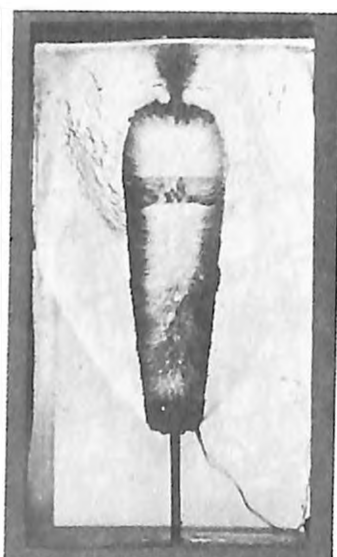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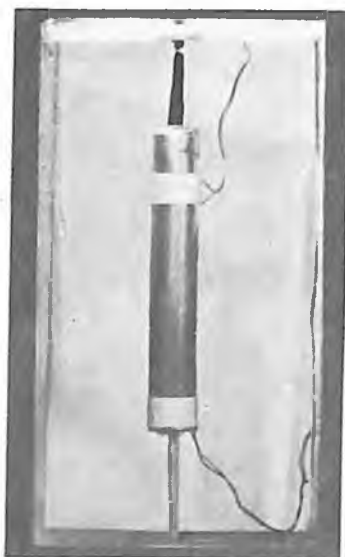
—노벨상을 제정한

다이내마이트의 발명자—

알프레드 베른하르트 노벨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훌륭한 기계 기사였으나 집은 가난했다.

노벨이 4 세 때, 아버지는 가족을 남겨 두고 러시아로 일하러 떠났다. 그리하여, 노벨 형제는 5 년 동안 홀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났다. 러시아로 건너간 아버지는 그 후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작은 기계 공장을 시작하여, 1842년에 고국에 있는 가족을 불러들였다.





물 속에서의 다
이너마이트 폭발
실험 폭발 직전
(왼쪽)과 폭발 직
후(오른쪽)

성장하여 청년이 된 노벨은 파리에 있는 화학 교수인 벨주르 교수의 자택 연구소에 고용되어, 거기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폭약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2년쯤 과학 기술을 공부했다.

1853년, 노벨의 아버지는 러시아 정부의 의뢰로 수뢰(水雷) 제조를 시작하여, 그 속에 채워 넣는 강력한 화약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 때 노벨 부자(父子)는 이탈리아의 소브레로에 의해 발견된 위험한 폭발물 니



트로글리세린에 착안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었다.

1863년, 노벨은 그 화신을 사용하여 니트로글리세린을 폭발시킬 것을 생각해 내고 운하에서 수중 폭발시켜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특허를 얻어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듬해 노벨은 아버지와 함께 스톡홀름 근처에 니트로글리세린 공장을 만들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새로운 화약 스프랭겔을 제조해서 판매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자주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1867년, 노벨은 규조토가 흡수제(吸收劑)에 가장 알맞음을 알아 내어 스프랭겔을 규조토에 흡수시킨 이 고품 화약을





(固形火藥)을 그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특허를 받았다. 이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으로 광산이나 터널 공사는 눈부시게 발달했다.

1868년, 노벨 부자는 스웨덴의 과학원으로부터, 아버지는 니트로글리세린의 실용화,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데 대해서 각각 표창을 받았다.

그 후, 노벨은 외국의 특허를 받아 도이칠란트, 영국, 프랑스, 미국 등지에 다이너마이트의 제조 공장을 세워서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화약왕>으로 불리게 된 것은 1888년에 무연 화약(無煙火藥)을 개발한 후부터이다.

노벨은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다. 1896년에 그가 사망하자, 그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재원(財源)으로 하여 평화와 과학에 진력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이 제정되었다.



노

자

(기원전 5세기? ~ 4세기)

— 무위 자연을

부르짖은 사상가 —

노자는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이며, 인간 사회가 너무도 많은 규칙이나 습관으로 얽매어 있는 것을 비판한 학자이다.

노자는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황하 중류 뤼양(洛陽)에서 태어났는데, 성은 이(李)요, 이름은 이(耳)이다.

그의 사상은 고대 중국 남방의 대표적인 인문 사상으로, 북방 공자의 유교적인 사상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즉, 사람들이 억지로 가르치는 인위적인 지혜나 학문은 모두 자연의 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자연 그대로, 소박한 그대로, 억지가 아닌 순리로 자연의 도에 따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우주의 일체를 도(道)라고 하였으며, 만물은 도(道)에서 나와서 도(道)로 돌아간다고 하여, 자연의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를 펴냈다.

그가 지은 《도덕경》은 교작 5,000자에 불과한 분량이지만, 그 속에 담긴 진리는 바로 자연에 담긴 진리요, 또한 우주의 질서에 따르는 진리이다.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급 자족의 자연 생활 속에 인간의 이상이 있으며, 참 진리가 있다고 그는 갈파하였다.

주(周)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서쪽으로 길을 떠나는데, 어떤 선비가 와서

“선생님, 가시기 전에 저를 위해 책 한 권 써 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이 뜻을 받아들여 상·하 2편 81장의 《도덕경》을 남기고 갔다고 한다.

노자는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을, 동(動)보다는 정(靜)을 강조하여, 강자의 폭행이나 강요를 배격하고, 인간의 본래 모양 그대로를 따르라는 무위 자연(無爲自然)의 도를 역설했다. 무위 자연이란, 억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것이다.

노자는 주나라의 도서관원과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맹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설이 있어, 그도 맹인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으며, 200세를 살았다는 등 선인(仙人)으로서의 전설이 전한다.

한(漢)나라 초기에 노자의 사상은 널리 퍼져서, 학자마다 흠모하게 되었다.

노자의 도에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깊은 진리가 깃들여 있다고 한다.





論
논

介
개 (? ~1593)

— 왜군의 장수와 함께 죽은 의기 —

논개는 본디 전라도 장수에서 양가의 딸로 태어났다. 성은 주(朱)씨였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얼굴이 매우 예쁘고 노래, 춤 등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그러나,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경상도 진주의 어느 기생집에 들어가서 기생이 되었다. 그 시대의 기생은 노래와 춤뿐 아니라 글과 글씨에도 능해야 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잘 하면서도 품성이 고결했던 논개는 당시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이던 최 경희의 사랑을 받는 몸이었다.

그런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이듬해 6월, 영남 지방으로 퇴각하던 왜군이, 그 전해에 함락하려다 실패한 진주성을 다시 한 번 공략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었는데, 이 싸움에서 불행히도 최 경희는 성 위를 순시하다가 적탄에 맞아 숨지고 말았다.

논개는 최 경희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몸단장을 곱게 하고 진주성 옆을 흐르는 남강가에 솟은 바위 위에 올라가 섰다.

마침, 근처에 있는 축석루에서는 왜군의 장수들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이윽고 왜군의 장수들이 몹시 취하자, 논개는 그들 중에

서 가장 높아 보이는 장수 한 명을 유인하여 바싹 끌어안고 바위 아래 남강으로 떨어져, 그 왜장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 때 논개와 죽은 왜장은 케야무라라는 장수였다.

그리하여, 진주 사람들은 그 바위를 옳은 일을 한 사람의 바위라는 뜻에서 의암(義岩)이라 이름지었고, 그 바위 위에 비석을 세워 논개의 의거를 길이 추모하는 한편, 축석루 서쪽에는 사당을 세워 놓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어 논개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으며, 그의 고향 장수에도 논개의 의거를 기리는 정문(旌門)이 세워져 있다.



학습 역사 인명 사전 찾아보기

이름	권수	이름	권수	이름	권수	이름	권수
카리알티	1	김 진내	6	원트겐	13	박 업	20
가 미	1	김 동창	6	루빈스타인	13	박 영효	20
가우스	1	김 효도	6	루 소	13	박 은식	20
간 디	1	김 휴집	6	루우스베르	13	박 재상	20
갈릴레이	1	김 할란	6	루터	14	박 지원	20
갈릴	1	김 효원	7	르노와르	14	박 평년	20
강 소천	1	나 토향	7	리텔	14	박 혁거세	20
강 수	1	나 석주	7	리빙스턴	14	발레리	20
강 우규	1	나이팅게일	7	리실	14	발자크	20
강 회맹	1	나폴레옹	7	리스터	14	방 정환	20
강 회안	1	난 센	7	리 흥장	14	배 중순	20
갈희제	1	남 이	7	린 네	14	백 거이	21
거실부	1	넛세르	7	린드버그	14	백걸 선생	21
게이뤼삭	1	네 루	7	린 위탕	14	버어뱅크	21
게 일	2	넬슨	7	칼리엔달	15	베 델	21
건 현	2	노 뱀	7	일 케	15	베드로	21
건 대수	2	노 자	7	림 컨	15	베르디	21
검덕왕	2	논 개	7	마 네	15	베를렌	21
검순왕	2	누르하치	8	마르코니	15	베를리오즈	21
개 맥	2	뉴우커먼	8	마아살	15	베살리우스	21
고 경	2	뉴우든	8	마아르트웨인	15	베시머	21
고 국원왕	2	나이세	8	마의 태자	15	베에도벤	22
고 선지	2	다비드	8	마젤란	15	벨	22
고 아	2	다아원	8	마 해충	16	보돌레르	22
고 종	2	다 윌	8	마호메트	16	보 일	22
고 호	2	단 군	8	막사이사이	16	복카치오	22
공민왕	2	단 종	8	만 적	16	볼 타	22
공 자	2	단 태	8	암 로	16	볼테르	22
공쿠르형제	3	대 조영	9	앙 로	16	봇티첼리	22
관 채우	3	도니체티	9	매코오익	16	본 첸	22
관 우	3	도 선	9	맥아더	16	브라망스	22
관 중	3	도스토예프	9	앨더스	16	브라운	22
관 창	3	스키	9	맹 사성	16	브라운	23
관개도왕	3	도 연명	9	맹 자	16	브라크	23
관 테	3	도 일	9	맹 로	16	브론테 자매	23
구텐베르크	3	돌 턴	9	앤 델	17	브루투스	23
권 율	4	동명왕	9	앤델스존	17	블레이크	23
그레셴	4	두 보	9	앤델스존	17	비스마르크	23
그림 형제	4	뒤 낭	9	앤델스존	17	비 제	23
근초고왕	4	뒤 마	10	모리악	17	빅토리아여왕	23
김 경	4	듀우이	10	모 방	17	빌헬름 1세	23
김 경필	4	도 골	10	모 세	17	빗토리오에마	23
김 구	4	드라크르와	10	모오스	17	누엘레 2세	23
김 대건	4	드보르작	10	모오스	17	사다함	23
김 대성	4	드뷔시	10	모 씨르트	17	사르트로	23
김 동민	4	디오게네스	10	모파상	17	사마 의	23
김 마리아	4	디이젤	10	몽고메리	18	사마 천	24
김 만종	4	디즈니	11	몽테뉴	18	서 거천	24
김 방석	5	디킨즈	11	무 청	18	서 검덕	24
김 부식	5	디포우	11	무 광범	18	서 광범	24
김 상욱	5	라브로크	11	무 재필	18	서 재필	24
김 상현	5	라브외지에	11	서 회	18	안 중근	24
김 성수	5	라이트 형제	11	석가모니	24	안 진경	30
김 소월	5	라파엘로	11	석 주면	18	안 창남	30
김 수로왕	5	러더퍼드	11	선 덕 어할	24	안 창호	30
김 시민	5	러 샐	12	선 조	24	안토니우스	30
김 시습	5	레이르크	12	설 출	24	안평 대군	31
김 욱균	5	레오폴트	12	설 삼문	24	안평	31
김 유신	6	레오나르도	12	설 충	25	알렉산더대왕	31
김 욱	6	빈치	12	세네카	25	알	31
김 인문	6	렘브란트	12	민 영환	19	알프레트대왕	31
김 정호	6	로 옹	12	밀 레	19	알페르	31
김 정희	6	로 옹스	12	밀 턴	19	애치슨	31
김 중서	6	록펠러	13	바그너	19	애들리	31
김 작진	6	몽랑	13	바 들	19	앤더슨	31
김 천일	6	몽 랭	13	바이런	19	앵베르	31
		뫼트시니	13	바 하	19	아스페르스	31
				박 문수	19	양 건	31
				박 연	20		

이름	권수	이름	권수	이름	권수	이름	권수	이름	권수
양 만춘	31	유 종원	38	지멘호프	45	최 중	51	프로스트	58
양 사연	32	유 처진	38	지비왕	46	최 중헌	51	프로이트	58
강 성지	32	유 처한	38	자장 법사	46	최 치원	51	프뢰벨	59
양 자	32	유 클리드	38	장 건	46	최 학송	51	플라톤	59
양 제	32	유 형원	38	장 덕수	46	최 함	51	플레민	59
어 유소	32	유 호인	38	장 보고	46	최 헌배	51	플로베르	59
엔드워드	32	유 회	38	장수왕	46	춘신왕	52	플루타르크	59
에드워드 3세	32	윤 관	38	장 승업	46	치유크프스키	52	피에리	59
에디슨	32	윤 동주	38	장 영신	46	침기즈칸	52	피카소	59
에머슨	32	윤 백남	38	장 지	46	카루소	52	피타고라스	59
에 랠	32	윤 방길	39	장 지연	46	카 뢰	52	히마솔드	59
연 개소문	32	윤 선도	39	잔 다르크	46	카이네기	52	하 엠	59
임 상섭	32	윤 처호	39	장 재소	46	키아트라이트	52	하아그리브스	59
임류왕	32	윤 치호	39	전 봉준	46	카잘스	52	하이다	60
임양왕	32	윤 최	39	전영택	46	카 투	52	하야비	60
영 조	33	윤 지문덕	39	전영택	46	카프카	53	하 위지	60
예수그리스도	33	윤 파소	39	정극인	47	칸 토	53	하이네	60
에이츠	33	의 상	39	정 도진	47	캐로더스	53	하이데거	60
에 중	33	의 천	39	정 두원	47	케네티	53	하이든	60
오 달제	33	이 개	40	정 물주	47	케말 파샤	53	한비자	60
오 비디우스	33	이 광	40	정 선	47	케사르	53	한 신	60
오 삼순	33	이 광우	40	정 악용	47	케인즈	53	한 시	60
오 세창	33	이 규보	40	정 인보	47	케플러	53	한 용운	60
오 승은	33	이 덕형	40	정 인지	47	코 로	53	한 류	60
오 울컷	33	이 동녕	40	정 조	47	코페르니쿠스	54	한 호	61
오 울	34	이 우영	40	정 지상	47	코 호	54	함무라비	61
오 우엔	34	이 백	40	정 철	47	골공루스	54	함 우	61
오 우 헨리	34	이 범석	40	재 너	47	쿠베르탱	54	허 군	61
오 일러	34	이 범운	41	제 퍼슨	47	쿠 크	54	허 난성현	61
오 파린	34	이 병기	41	조 광조	48	퀴리 부인	54	허 년	61
오 덴하이어	34	이 병기	41	조 두순	48	크로웰	54	허어셜	61
옥타비아누스	34	이 불창	41	조 만식	48	클레오파트라	54	허 준	61
온 달	34	이 상	41	조 성환	48	클레르케고르	54	허슬리	61
온 조	34	이 상설	41	조 영	48	키에르케고르	54	해 겐	61
와 일드	34	이 상재	41	조 이	48	키치즈	54	해 딘	61
와 토	34	이 신화	41	조 조	48	키케로	54	헤라클레이토스	61
와 트	35	이 색	41	조 준	48	길	55	헤로도투스	62
왕 건	35	이 성계	42	조 현	48	타고르	55	헤르츠	62
왕 산악	35	이 세민	42	조 손	48	탄 언	55	헤임웨이	62
왕 안식	35	이 승	42	조 줄리	48	탈해왕	55	헤 세	62
왕 양명	35	이 수광	42	조 공	48	태종 무열왕	55	헤 델	62
왕 원	35	이 순신	42	주 돈이	48	테니스	55	엘렌 웰러	62
왕 인	35	이 승만	42	주 세봉	49	토스키니	55	엘름홀츠	62
왕 회지	35	이 승훈	42	주 시경	49	토인비	55	현 제명	62
왕 스텐민	35	이 시영	42	주 울	49	톨스토이	55	현 진건	62
우 록	35	이 연	43	주 원장	49	투르게네프	55	해 초	62
우 장춘	35	이 용익	43	주 자	49	투루만	56	해 동	62
우 탁	35	이 원익	43	주 네	49	티치아노	56	호라티우스	63
우 탕트	36	이 위중	43	증 자	49	파가니니	56	호메로스	63
우 포	36	이 육사	43	지 놀	49	파브르	56	호오도운	63
워싱턴	36	이 윤재	43	지 드	49	파블로프	56	호이겐스	63
워어즈워드	36	이 아	43	지 석영	49	파스칼	56	홍 경래	63
윈 광	36	이 익	43	지 못토	49	파스테르니크	56	홍 단파	63
윈 술	36	이 조	43	지 중환	49	파스티르	56	홍 대용	63
윈 효	36	이 인로	44	지 청천	49	파운트	56	홍 범도	63
윌리엄	36	이 재명	44	진 흥왕	50	패러데이	56	홍 영식	63
윌슨	36	이 집귀	44	제펠린	50	퍼어킨	57	황보 인	63
위 고	36	이 재만	44	차이코프스키	50	퍼얼 벅	57	황 진이	63
위 만	36	이 재현	44	채 이코프스키	50	페르미	57	환 회	63
윌리엄 3세	36	이 조년	44	채 윤	50	페스타로체	57	환 중	64
윌슨	37	이 준	44	처 여경	50	포스터	57	혹	64
유 관순	37	이 차운	44	척 준철	50	포오드	57	휘트먼	64
유 김준	37	이 천	44	체 호손	50	포모크니	57	휘 틀	64
유 방	37	이 천로	44	최 남선	50	포 우	57	휴 정	64
유 비	37	이 함로	44	최 명길	50	폴 로	58	휴즈	64
유 성훈	37	이 항복	45	최 무신	50	폴 페이우스	58	홍선 대원군	64
유 성원	37	이 해조	45	최 세진	51	푸시킨	58	홍 수	64
유 승인	37	이 향	45	최 시형	51	쥘 텐	58	협 수	64
유 우리	38	이 효석	45	최 일	51	쥘 니	58	협 리리	64
유 정	38	임 연	45	최 익형	51	퓨물리처	58	협라테스	64
		임 경연	45	최 제우	51	프랭클린	58		
		임 센	45						

을칼라판 / 소년소녀

위 인 전 기

전 64 권



개정신판 1982년 9월 30일
 중판발행 1984년 7월 30일

발행인 김 락 준
 발행처 금 성 출판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42의 63
 등록 1965. 10. 19 제10-6호
 전화(713)9651-8 우편번호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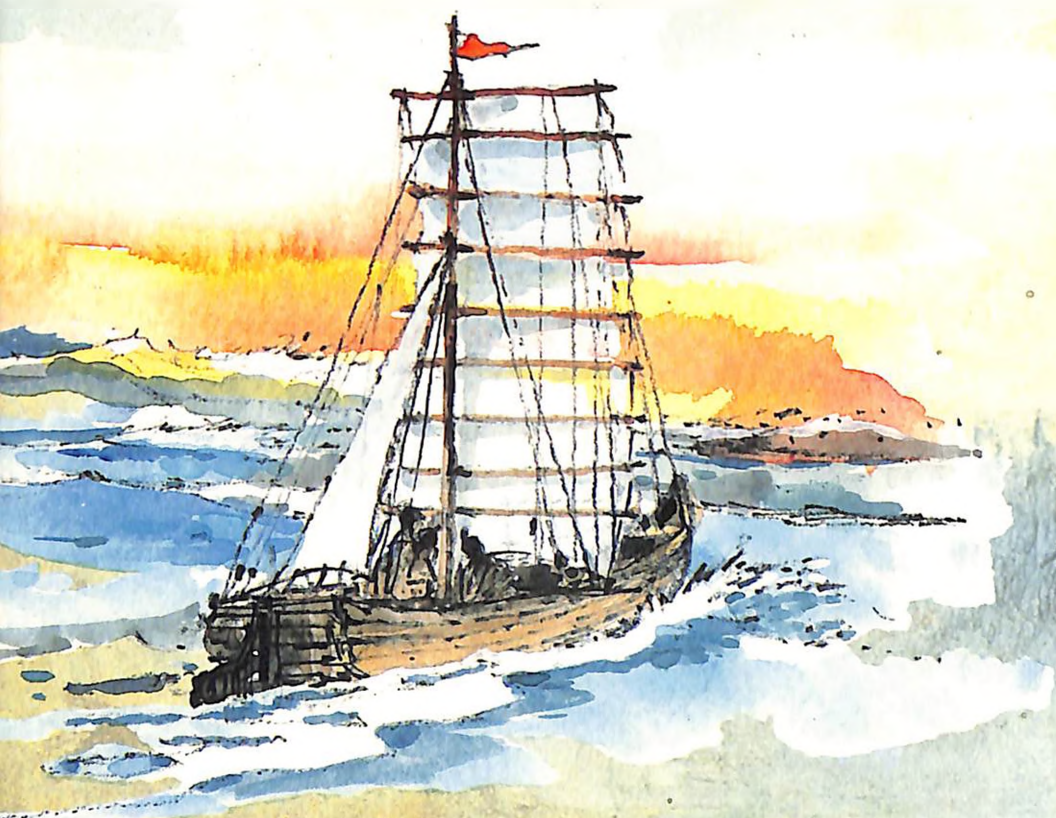
제 판	삼화인쇄 주식회사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일칼라
인쇄	삼화인쇄 주식회사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광명인쇄 공사
제 책	삼화인쇄 주식회사 제책부 당산실업 주식회사
제 지	계성제지 주식회사

정가 3,000원

(본사는 출판윤리 강령을 준수함)

소년소녀 위인전기 7 장 보 고

특집 부록 : 학습 역사 인명 사전



금성출판사